



HAUS OF MATTERS

NEW RELEASE

[Bad Songs] [thai,s] [NO] [YAHORE] [Rich or Die II]
[SAViOR] [퇴마왕] [MEWSIC] [바보지퍼]

04

NR+INTERVIEW

[[WAH]] 해민송, 허다니엘, 렌코
[Talk Less, Do More 1.0] 제이컨
[Secret] 카모
[#FREEO2] 정연서

09

FULL REVIEW

[4SHOBOIZ MIXTAPE] [Hm()mm] [Plantis Mantis] [LIT]

26

CLASSIC REVIEW

[THIS & THAT] [졸업]

47

FEATURE

야 됐어, 우리끼리 할게 힙합
씬의 탄생을 지켜보고 싶다면, 이 레이블에 주목해야 한다.

54

2025 YEAR IN REVIEW

62

2025 YEAR IN EDITOR'S PICK

82



NIR

NEW RELEASE

[Bad Songs] 비지니스머니, 비지니스 메인, 아이엠머니

❶ Hypersonic ❷ Hideonbush ❸ Bad songs ❹ 바람처럼 왔다가 Came like the wind ❺ 보라색 안개 Purplehaze

DATE 2025.10.29

비지니스 메인의 [aka Busyness mane]과 아이엠머니 [Money Makes More Problem], 작년 2024년에 나온 두 형제의 솔로앨범은 뉴웨이브 레코즈 시절의 거칠었던 스타일이 한층 정돈된 형태로 발전한 수작이었다. 두 뮤지션은 이 흐름을 이어 2025년에도 꾸준한 활동과 함께 여러 합작 앨범을 공개했다. '비지니스머니(BUSYNESS-MONEY)'라는 팀명으로 공개된 [Bad Songs]도 그중 하나다. 앨범은 '비지니스 메인의 전곡 프로듀싱 + 두 형제의 랩'이라는 제작 공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서로가 낼 수 있는 퇴폐미를 선명히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견인하는 것은 역시 프로덕션이다. 스산한 사운드를 메인으로 일관된 트리피한 무드를 형성하고, 트랙마다 뚜렷한 차별점을 두어 듣는 재미를 높인다. "Hideonbush"가 거친 트랩 사운드로 음산함을 부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라색 안개"에서는 몽환적이고 몸이 늘어지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사운드 설계는 이들의 랩 퍼포먼스를 더 돋보이게 한다. 두 사람은 여전히 직설적인 가사와 일관되고 공격적인 래핑을 고수하지만, 뚜렷하게 대비되는 음색과 더욱 유려해진 플로우도 함께 챙겨나갔다. 그 덕에 비지니스 메인의 무게감을 깔고 아이엠머니가 이를 치고 나가는 조합은 흥미로운 감흥을 자아낸다. 만약 그간 두 형제의 행보를 놓친 사람들이 있다면, [Bad Songs]는 날 것에 깊은 품미를 더한 이들의 현재를 짧고 굵게 확인하기에 안성맞춤인 작품이다.

Editor loding



[thai,s]

사이코

① ties ② next ③ skit ④ run it back ⑤ Jiří Procházka (유리 프로하스카)

DATE 2025.10.30

누구에게나 각자의 길이 결정지어지는 시기가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 때를 ‘계기’라고도 하고, 혹은 ‘기점’이라고도 한다. 사이코가 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그러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정규 이후,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사이코의 [thai,s]는 여전히 그의 장기로 가득하다. 묵직하며 어둡한 분위기를 뽐낸 비트 위에서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그의 랩은 청각적 쾌감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ties"에서는 태국 유학생 시절부터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훑어보며, "next"에서는 래퍼로서 사이코의 각오를 강렬한 단오들에 담아냈다. 스킷을 지나 "run it back"에 도달하면 아티스트로서의 고뇌와 태도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Jiří Procházka"에서는 자신을 UFC 챔피언 이리 프로차스카에 빗대어 표현하며 당찬 포부를 드러낸다. 응축되고 집약된 에너지를 느껴보고 싶다면 [thai,s]를 들어보길 강력히 권한다. 참고로 본인은 요즘 중량 칠 때마다 듣는다.

Editor writersglock

[NO]

합노시스 테라피, 알렉스 윌콕스

① NO! ② HALLO ICH BIN JJANGYOU ③ RITUAL FREESTYLE (feat. Ecco Bazz) ④ WHERE'S YOUR MOTHER? ⑤ UMJIGYEO! (MOVE!)

DATE 2025.10.31

음악에 담긴 여러 인류 보편적 감정과 메시지는 언제나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음악적 교류에 있어 국적의 경계가 희미해진 지금, 아티스트들은 자신과 뜻이 맞는 해외 아티스트와 함께 서로 간의 공감대를 음악에 녹여낸다. 실험적인 태도와 에너지틱한 사운드를 선보이는 한국의 ‘합노시스 테라피’, 그리고 폭발적인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선사하는 독일 베를린의 프로듀서 Alex Wilcox가 손을 잡았듯 말이다. 이들의 합작 앨범인 [NO]의 주제는 ‘거부와 반항’이다. 첫 트랙 "NO"부터 이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향해 거침없이 ‘싫어’를 외친다. 이후에도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사운드에서도 드러난다. 테크노, 펑크 등 여러 장르를 적극적으로 섞는 제이플로우의 프로덕션에 정교하고 공격적인 알렉스 윌콕스의 신디사이저가 더해지면서 모든 걸 때려 부술 듯한 강렬한 사운드가 만들어졌다. 그 위에 얹어진 짱유의 파워풀한 래핑은 사운드가 지닌 반항적 정서를 언어로 풀어낸다. 앨범 속 메시지는 반항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방하자는 메시지도 담는다. "UMJIGYEO! (MOVE!)"의 가사에 담긴 자기긍정적 태도는 이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국가 불문하고 나타나며, 때로는 사회 전체를 바꾸기도 하는 반항 정신도 그 시작은 불합리한 체제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신답게 있고자 하는 심리에 있다. 어떻게 보면 [NO]에 담긴 반항은 ‘솔직함을 과감 없이 드러내자’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Editor loding



[YAHOO RED]

EK

① moyou ② Virgintarian ③ READY FOR WAR (Feat. Make a Movie) ④ GO! ⑤ Dance With U ⑥ SNOW ⑦ 디지털부대

DATE 2025.11.01

아무리 생각해봐도 EK는 신림동 별빛거리를 바라볼 적, 밤하늘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범한 행보가 나올 리 없다. 지난 7월, 파란을 불러일으켰던 [YAHOO]가 더욱 ‘빨간 맛’으로 돌아왔다. [YAHOO RED]는 전작이 전달했던 감흥을 짊고 굵게 정제해낸 액기스와도 같다. 더욱 자극적이고 즉흥적이다. 전작 후반에 남아있던 이성의 편린도 걷어낸 채, 그저 본능대로 치고 달려나가는 작품이 되었다. 초반부 “moyou”와 “Virgintarian”같은 트랙명만 보고도 이번 앨범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천박함의 계곡(?)’을 넘고 나면, 여전히 여전히 수위는 높아도 EK 특유의 매력이 살아있는 트랙들이 펼쳐진다. 느슨한 음담패설처럼 들려도 비트를 날카롭게 찌르는 랩 퍼포먼스와 일상의 소재들을 비틀어 신박한 라인으로 재구성하는 솜씨는 결코 허술하지 않다. 저속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즉흥적이지만 영리한 감각으로 설계되었다. 그렇게 [YAHOO RED]는 [YAHOO]의 자연스러운 확장선에서 인상적인 완결점을 찍었다. EK는 자신만의 솔직함으로 ‘쾌락’을 서사로 만들었고, 이것을 미학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충분히 성공적이다.

Editor 자이즈

[Rich or Die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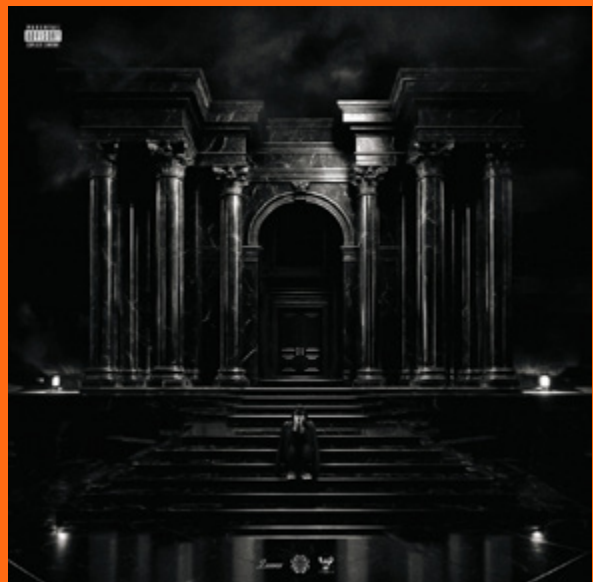
로얄 44

① YÖLÖ (Feat. Kobane) ② PSYCHO (Feat. HAON, Fleeky Bang) ③ DTB ④ BIRTHDAY (Feat. Rich Iggy, UNEDUCATED KID) ⑤ CROSSFADE (Feat. SUPER-BEE) ⑥ FASHION KILLER (Feat. CK) ⑦ PCX FREESTYLE (Feat. Tray B) ⑧ BAD NEWS (Feat. Kobane, Louie) ⑨ NO.5 FREESTYLE ⑩ MIN' ⑪ ABOUT MY EX ⑫ R.O.D (Feat. Kobane, Chin) ⑬ Luv n Hate

DATE 2025.11.11

자신이 몸담은 레이블의 슬로건을 로얄 44만큼 구체화한 래퍼는 드물다. 그의 신보 [Rich or Die II]는 시작부터 한 가지 사실을 들이민다. 돈이 곧 전부. 이 세계에서 숨 쉬는 법은 속도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감각. 앨범은 그 체험을 증명하려는 듯 트랩의 압력을 쉬지 않고 끌어올린다. 드럼은 숨 돌릴 틈 없이 달리고, 그 위에서 로얄 44는 자신의 싱잉 랩을 날카롭게 정렬한다. 멜로디를 흘리는 대신, 트랩 뱅어의 중심에 서기 위해 필요한 톤과 리듬만 정확하게 붙잡는다. 이번 앨범의 진짜 무게는 피처링 조합에서 드러난다. 리치 이기, 코바네, 플리키뱅 같은 로우 톤 래퍼들이 등장할 때마다 트랙의 질감이 단단해지고, 로얄 44의 음색은 더 선명해진다. 서로의 결의 충돌하지 않기 에 듣는 맛은 배가 된다. 전환점은 "No.5 Freestyle"이다. 그 이전이 무식할 정도의 질주였다면, 이후에는 과열된 세계 뒤편에 숨어 있던 쓸쓸함이 서서히 드러난다. 초반의 폭력적 이미지는 큰 울림을 남기지 않지만, 랩 메이킹의 결, 피처링의 구조적 배치, 후반부의 음색이 만들어내는 여운은 [Rich or Die II]를 트랩 송 플레이리스트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다. 로얄 44는 자신이 믿는 세계의 속도를 본인만의 감각으로 설계했고, 그 안에서 어떤 목소리로 살아남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Editor 공ZA



[SAViOR]

도화

① justmyself ② 선의의거짓말 ③ 우리는사라질것들만사랑하지 ④ 난아무것도안했는데왜사람은 ⑤ 사랑모아 ⑥ bluebird ⑦ 666 ⑧ 안는건죄가아니잖아 ⑨ 미안해 ⑩ wish ⑪ 구원자

DATE 2025.11.12

산산히 부서진 사랑 이야기. 도화는 사랑을 ‘원죄’로 정의했다. 원죄란 무엇인가. 타고난 죄성, 물려받은 죄성이다. 사랑은 왜 죄가 되는가. 어떤 사랑은 파멸로 결말을 맺으니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AViOR]은 그렇게 죄로 남은 사랑 모음집이다. 집착, 방치, 미련, 폭력...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파생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SAViOR]의 가사는 요즘 말하는 멘헤라적 성향이 짙게 묻어 있다. ‘손목엔 무수한 면죄부’라거나 ‘네가 죽고 싶을 때 나에게 전화해’라는 가사가 수시로 등장한다. 또한 감정이 가장 극단적으로 치달는 "666"은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가사들로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앨범을 듣다 보면 이 노래들이 모두 하나의 욕구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살고 싶다’라는 욕구다. 살고 싶어 사랑을 했고, 사랑을 하며 살고 싶었으며, 사랑을 해서 살고 싶어졌다. 그 도중에 어그러지기도, 뒤엎기기도, 망가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히 그를 살게 만든다. 앨범의 제목이 [SAViOR]인 까닭 또한 사랑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써 사랑하게 되는 굴레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마치 선악과가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함과 동시에 인간을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Editor writersglock



[퇴마왕]

김오키

① 탄생! ② 온다온다 ③ 수련 ④ 악 ⑤ 경청 ⑥ 혼꾸녕 (협업 동이) ⑦ 사랑의 퇴마식 (협업 손정진) ⑧ 멀리 안 나간다 ⑨ 인생 ⑩ (Bonus Track) 준비왕의 탄생

DATE 2025.11.14

태평소가 우렁찬 소리를 내뿜으니, 천지가 진동하며 [퇴마왕]의 “탄생!”을 알린다. 이윽고 박민표의 소리와 김오키의 색소폰이 뒤얹히며 ‘그’가 “온다온다”. 올해 초 ‘힙합’을 통해 심신을 단련했던 김오키는 국악 타악 연주자 박민표와 손을 잡으며, 마침내 [퇴마왕]으로서 현세에 강림한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김오키의 음악적 방향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나아가니, 이것이 퓨전재즈할극 [퇴마왕]이 되었다. 김오키가 빚어내는 색소폰 사운드와 함께 나아가는 국악기는 드림이 되었고, 박민표의 소리는 스캇이 되었다. 퇴마왕이 발산하는 기운은 곳판의 신장들과 재즈바의 자유로운 영혼이 한데 모여드는 기묘한 공간을 형성해낸다. 그야말로 ‘재즈 한마당’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작품의 서사는 명료하다. 사회를 좀먹는 온갖 부정을 소리로 때려잡는 퇴마왕의 활극이다. 퇴마왕의 탄생과 수련, 악의 등장, 그리고 이를 몰아내는 과정이 타악의 파동과 색소폰의 유려함을 타고 울곧이 뿜어나간다. 둔탁한 징과 날카로운 팽과리 소리는 몽둥이로 이 세상의 온갖 잡귀들을 두드려 패는 퇴마왕의 신령한 의식이며, 그 사이를 가르며 흐르는 유려한 색소폰 소리는 부정에 시달린 이들에게 건네는 인자한 손길이다. 이 끝에는 김오키가 추구하는 ‘사랑’의 메세지가 담겨있다. 악한 자에게는 몽둥이를, 약한 자에게는 손길을. 재즈와 국악, 두 기운이 강렬히 맞부딪히며 현세인들의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올바른 흐름을 만들어내니 이것이야말로 김오키식 무협이며, 현대적 곳판이 아닐까?

Editor 자이즈



[MEWSIC]

원디올

① Geeeeeked (feat. Daddy\$vibe) ② 퍼서 미안해 ③ Young Ninja ④ Last Week (feat. Jew Ian) ⑤ Wit me (feat. Jeremy Que\$T) ⑥ Bool ⑦ Gotchoo ⑧ Water ⑨ In my vein (feat. Uneducated Kid, Daddy\$vibe) ⑩ Bag ⑪ How it goes ⑫ Heaven(Hell) ⑬ The Road (Feat. 로꼬) ⑭ Yessir ⑮ 필요해

DATE 2025.11.14

현재 음악 시장은 아티스트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표정을 요구한다. 힙합도 더 이상 한 가지 결로 설명되지 않고, 2025년의 흐름은 트랩의 에너지와 팝의 개방성, 레이지의 거친 텍스처가 한없이 뒤섞인다. [MEWSIC]에서 원디올은 그 복잡한 지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초반의 트랙들은 속도와 톤을 흔들며 그의 익숙한 색을 그대로 드러낸다. 리듬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스피트, 긴장과 충동이 공존하는 보컬의 움직임, 이 모든 요소는 본능적으로 강한 원디올의 영역이다. 분위기는 중반을 넘어 조금씩 바뀐다. "Water"에서 원디올은 이전의 모습과 다른 결을 보여준다. 멜로디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보컬은 더 부드럽고 선명하게 떠오른다. 팝적 구조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은 아니지만, 익숙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전체 사운드의 표면을 한 톤 밝힌다. 대중의 감각의 대명사 로꼬가 참여한 "The Road"는 그 흐름의 끝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는다. 이 두 지점이 원디올이 가진 공격적인 결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선보인다. [MEWSIC]은 균형보다는 변화의 속도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vanguard이 선택한 이 남자, 스펙트럼의 확장은 직선과 같이, 때로는 곡선처럼 뺏어 나간다.

Editor 공ZA

[바보지퍼]

박문치

① Put Your Zip Up! (Feat. 최엘비) ② Code : 광 (光) (Feat. 조유리) ③ Love Theme (Feat. 존박) ④ Bah! (Feat. 이진아, 스텔라장) ⑤ 바보지퍼 광고 (75") ⑥ 불청객 (Feat. 박문치 유니버스) ⑦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⑧ Good Life (With. 박문치, 최엘비, 조유리, 존박, 이진아, 스텔라장, 박문치 유니버스, 장들레)

DATE 2025.11.17

'복고'에 대한 대중의 수요는 주기적으로 치솟는다. 박문치는 프로덕션부터 패션 코드까지, 이 수요를 언제나 지독하리만치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아티스트다. [바보지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순풍산부인과>나 <거침없이 하이킥>을 연상시키는 시트콤 컨셉트도 흥미롭지만, 장면 장면을 채우는 트랙들의 완성도는 더욱 범상치 않다. 조유리의 캐치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Code : 광 (光)"은 故 신해철의 "아주 가끔은"이 주던 경쾌한 충격을 재현하고, 존박의 감미로움이 흐르는 "Love Theme"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 시절의 낭만적인 R&B 향수를 절로 불러낸다. 여기에 이진아를 대동한 애시드 재즈 넘버 "Bah!"부터 최엘비의 올드스쿨한 래핑이 유감없이 드러난 "Put Your Zip Up!"까지, 이 시트콤의 사운드트랙은 과거에 대한 헌사와 재해석으로 가득하다. 복잡한 세상, 때로는 이 앨범과 함께 지퍼를 굳게 올리고 시끄러운 세간의 잡음을 차단해 보자. 혹시 모른다. 그 고요한 흥겨움 속에서, 잊고 지냈던 당신의 추억을 마주하게 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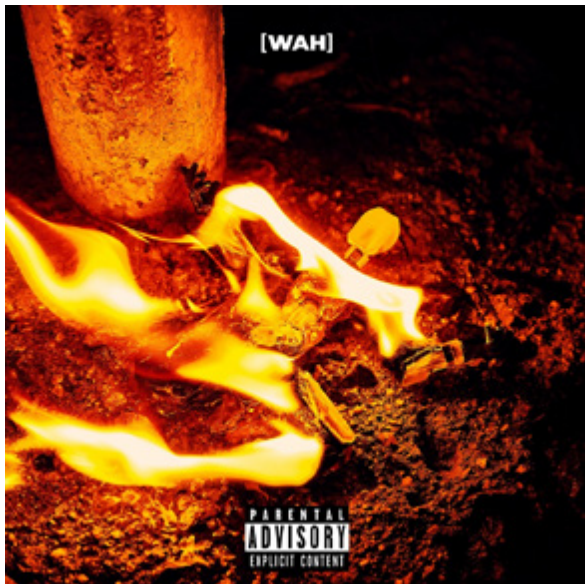
Editor Alonso2000





NR+

NR+INTERVIEW



[[WAH]]

헤민송, 허다니엘, 렌코

① SET (Feat. Hanhoryong, 권기백) ② MAGAZINE (Feat. VINXEN, k4ton) ③ TIF-
FANY ④ EASIER (Feat. YOGI) ⑤ PAUL2000 (Feat. NSW Yoon) ⑥ WDDP (Feat.
Kymishawty, k4ton) ⑦ TANG ⑧ WAH SKIT ⑨ DIRTY JEANS ⑩ REGULAR-D
(Feat. HYOL) ⑪ KUSARI ⑫ MONONOKE (Feat. shinjihang) ⑬ AKAI+ ⑭ HOL-
LISTER (Feat. TRADE L) ⑮ KEPLER (Feat. 율음) ⑯ CHUCK TAYLOR ⑰ DEAD-
POOL ⑱ ALAMOANA GIRL

DATE 2025.10.23

젊음의 불타는 열정을 맛보시라. [[WAH]]는 허다니엘, 렌코, 헤민송이라는 씬의 미래를 도맡을 젊은 아티스트들의 청사진이다. 헤민송의 'Young Blood Trap Mixtape'이라는 멘트처럼, 앨범은 이들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믹스테이프이라는 포맷을 채택한 만큼 보다 자유로운 퍼포먼스는 동시에 그만의 거친 분위기를 담아낸다. 오랜만에 트랩으로 돌아온 헤민송의 비트가 먼저 귀에 들어온다. 첫 트랙부터 무겁게 치고 들어오는 "SET"이나 저지클럽을 차용한 "PAUL2000",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는 레이저 트랙 "WAH SHIT" 그리고 몽환적인 "MONONOKE" 등 그간 잠시 감추고 있던 헤민송의 트랩 비트들은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완벽히 장악한다. 허다니엘과 렌코 또한 이에 밀리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다. 그들의 개인작에선 볼 수 없었던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인상적인데, "WDDP"나 "DIRTY JEANS"과 같은 곡에서 특히 빛난다. 피쳐링진도 마찬가지로 루키들을 한껏 모았다. 효이, 권기백, 카톤 등 최근 씬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인들이 참여해 젊은 에너지를 더 증폭시킨다. 18트랙이라는 분량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믹스테이프의 정석을 보여준 [[WAH]]는 이들이 만들어 나갈 씬의 미리보기와도 같은 순간이다.

Editor writersglock



+INTERVIEW

hyeminson, HEO DANIEL, renko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헤민송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헤민송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허다니엘 허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렌코 음악하는 렌코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Q 헤민송님은 잼마님과 의 합작앨범 [시나리오] 이후 두번째 인터뷰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혜민송 시나리오가 나온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HAUS OF MATTERS 인터뷰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사 알앤비 컴필레이션 앨범도 나오고,
동료친화적인 해를 보내고 싶어서 다른

아티스트분들의 앨범작업과 프로듀싱 등을

워주로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서

허다니엘이랑 렌코랑 믹테도 만들었네요! 매해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재밌는 작업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Q 올해 초 공개된 싱글 “열두시”가 세 분이 모이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세 분 중 두 분이 함께한 작업은 종종 있었지만, 세 분이 모두 참여한 곡은 이 곡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셋이서 함께 작업해보게 되었나요?

히대니엘 2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전여친

생각하면서 작업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헤민송한테 비트가 하나 오더라고요. 심심해서 그 날 바로 녹음까지 끝내버렸어요. 그 노래가 “열두시”로 발매되었습니다. 그렇게 [[WAH]]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헤민송 사실 “열두시” 때부터 [[WAH]]를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곡을 만든 지 1달 만에 발매될 수 있을 만큼 작업 과정이 엄청 수월하기도 했고, 그 기억이 강렬했나 봐요. 이후에 허다니엘이랑 먼저 만나 무엇을 또 만들어 볼지 이야기 나누며 작업실에 있었는데, 그날 “SET” 이랑 “MAGAZINE”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아, 이거 재밌는데? 우리 “열두시” 만들었던 멤버로 믹스테입 만들자, 근데 믹스테입이면 야마 있게 최소 18곡이면 좋겠는데?’ 하고 의견을 낸 거죠. 렌코는 [REBORN] 만들 때 예스코바 오빠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모래성”을 같이 작업했었는데, 허다니엘이랑 초등학교 친구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렌코 다니엘이랑은 어릴 때 부터 같이 음악하고 지냈고, 헤민송은 [REBORN]에서 “모래성” 트랙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헤민송 앨범 릴리즈 파티 이후로 CD를 받았어야 했는데, 살다보니 1년 넘게 못 만나고 있다가 감자탕을 맛있게 먹으면서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네요.

Q 새로이 발매된 믹스테입 [[WAH]]입니다. 앨범에 대한 각자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헤민송 트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기기 쉬운 곡들로 이루어진, 단순하면서도 아이디어 포인트가 있는 믹스테입 [[WAH]] 입니다!

허다니엘 생각과 의심을 최대한 수갑한 믹스테입입니다.

렌코 기분 따라 작업했던 앨범이라 다양한 모습을 담았던 앨범입니다.

Q 타이틀의 풀네임이 ‘Without Any Hurry’입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헤민송 렌코랑 다니엘이 아주 작명소인데요! 너네가 썰 좀 풀어줘봐.

렌코 서두르는, 뭔가 쫓기는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허다니엘 사실 그냥 녹음하면서 혼자 “와와와..”

거리다가 다같이 모였을 때 이거 제목으로 좋다!

해서 WAH 알파벳을 따서 단어를 만들었죠. “서두름 없이”라고 지어줬지만 서둘러야 했어요.

헤민송 앨범 제목을 정하기 전에 “SET”을 먼저 만들었는데, 처음 인트로 들어갈 때 허다니엘이 ‘와.와.와’ 하거든요. 저는 그 애드립이 너무 꽃혀서 wah 애드립을 의도적으로 더 밀었던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게 앨범 제목까지 갔네요(웃음).

Q 믹스테입 공개 당시 헤민송님이 스토리에 올렸던 “YOUNG BLOOD TRAP”이라는 문구도 인상깊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헤민송 사실 별 뜻은 없고 그냥 래퍼 스토리처럼 올리고 싶었어요. 그게 또 [[WAH]]의 정체성이랑도 맞기도 하고. 도움을 주신 피쳐링진 분들이 다 저희랑 동갑이거나 동생들이거든요. ‘요즘 제일 젊은 트랩’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허다니엘 저희끼리 있을때 헤민송 별명인 “트랩대모”거든요. 이렇게 트랩대모 커리어를 인스타 스토리로 시작하는구나 싶었어요.

Q 총 18곡, 러닝타임 약 50분에 달하는 볼륨감 있는 믹스테입입니다. 이번 작품을 믹스테입의 포맷으로 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헤민송 듣는 사람들도 좀 더 섭취하기 쉽고, 만드는 사람들도 오직 재미로만 만드는 프로젝트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계기는 각자 피와 살을 깎으며 만드는 정규앨범과 다르게 창작의 재미를 찾기 위함이었어요. 허다니엘의 [인디언]을 좋아하는데 들어보면 진짜 고생했겠다는 게 감성적으로도 느껴지거든요. 저의 [REBORN]과 [시나리오]도요. 그래서 저희끼리 정한 룰이 하나 있었어요. 모인 날에 제가 바로 비트를 만들고, 브레이크나 트랙 뮤트 같은 정도의 원시적인 편곡만 거쳐, 거의 초안대로 가서 저희가 처음에 좋았다고 느낀 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보자! 었어요. 만날 때마다 한 곡씩은 무조건 나오는 셈이죠. 저희 트랙리스트도 만든 순서를 반영했어요. 주변에도 미리 들려주니까 다들 재미로 만든 게 느껴져서 좋다는 평이었어요. 오히려 진짜 신선한 아이디어는 순수한 재미와 이게 맞아 싶을 정도의 과감함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헤미송 24년에 [인디언]을 발매한 이후, 당분간은 10곡이 넘어가는 앨범을 발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 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음악에 지쳐있었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별 특별한 이야기 없이 제작할 수 있는, 믹스테이프의 형식이 재밌어 보였어요. 평소에 제가 하지 않는 음악을 만들어보면서 새로운 시야를 갖고 싶었습니다. 원래 작업을 할 때 수정을 자주 거치는 편이었는데, 이번 믹스테이프는 수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18곡은 많긴 하더라고요. 타이틀과 다르게 Hurrying 해야 했어요(웃음).

렌코 한 명의 프로듀서와 협업해서 작업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몰입해서 할 수 있었고, 음악도 편하게 나왔습니다. 진지하게 뭔가를 담아서 앨범을 구성하기보다는 재밌게 노는 바이브로 진행했습니다. 너무 잘 났으려고 신경 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원래 하던 음악에서는 못 해봤던 걸 하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났는 것도 곡마다 다 다르게 해버린 거 같습니다. 저희끼리는 스킨끼듯이 났는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Q 이번 앨범의 기획사가 “열두시”처럼 헤미송님의 소속 레이블인 AP 알케미/마인필드 이름이 아닌, 세 분의 명의로 된 것도 흥미로워요. 이번 프로젝트는 세 분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작업일까요?

헤미송 믹테의 취지를 더 살려보고자 회사에 미리 얘기해서 투자를 안 받고 저희끼리 만들어요. 회사가 이해해 준 부분도 감사하고, 인디펜던트로서의 프로젝트 과정에서도 새로운 자극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도와준 사람들도 많아요. 믹스에 [시나리오]를 같이 했던 박유상 오빠랑 다혜언니의 [개미의 왕]으로 함께 했던 daniel chae, 아트워크랑 멋진 프로필 찍어준 상문 오빠, 모든 영상을 해준 감독 민기, 어시 호롱 정말 고맙다! 그리고 피쳐링분들도 연락드렸을 때 아주

흔쾌히 다들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땡스 투 전윤님도요!

헤미송 저는 투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샤라웃 민기, 호롱, 상문이형, 유상 형님.

렌코 저 혼자 하는 앨범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둘이 많은 사람들 소개해줘서 사람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A	B	C	D	E	F	G	H
[WAH]							
2025. 10. 23.							
100				18			
Tr. no.	곡명	HEO DANIEL	RENKO	FEAT	리메인 (목소리)		
1	SET	O	O	O	O	안호준, 김다예	
2	MAGAZINE	O	O	O	O	민현, Aflon	
3	TIFFANY	O	O	O	X		X
4	EASIER	O	O	O	O	YOGI	
5	PAUL2000	O	O	O	O	NSHY yoon	
6	WDDP	O	O	O	O	Kymahereby, Aflon	
7	SANG	O	O	O	X		X
8	WAH SKOT	O	O	O	X		X
9	DIRTY JEANS	O	O	O	X		X
10	REGULAR O	O	O	O	O	HYOK	
11	KUSARI	O	O	O	X		X
12	MONOROCKE	O	O	O	O	신지형	
13	AKAH	O	O	O	X		X
14	HOLLISTER	O	O	O	O	Trade L	
15	KEPLER	O	O	O	O	불공	
16	CHUK TAYLOR	O	O	O	X		X
17	DEADPOOL	O	O	O	X		X
18	ALABAMA GRL	O	O	O	X		X

Q 1PD 2MC라는 흔치 않은 조합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세 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헤미송 헤미송의 작업실에 매주 모여 곡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몇 곡을 만들 때도 있었고요. 헤미송의 비트 루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는 제 차에 가서 가사를 완성하곤 했습니다. 저는 앨범 진행 상황을 엑셀로 정리하는, 이러한 문명적이고 체계적이고 똑똑한 방식은 처음 겪어보는데요(웃음). 헤미송이 고생했죠.

렌코 매주 만나서 레퍼런스 없이 헤미송이 신나게 비트를 찍으면, 저랑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라인 짜고 났고 즉시 가사 쓰는 식으로 주로 진행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사를 다 못 쓰고 간 적도 있어 작업실에서 따로 쓰기도 했었어요. 추가적인 수정 없이 원래 찍고 났는 대로 갔습니다.

헤미송 같은 시기 [개미의 왕] 작업할 때 사용한 작업진행표 파일을 사용했어요. 저희가 만든 트랙이 18곡이라 그 품이 진행상황을 정리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작업했던 태홍오빠한테 부탁해서 받았거든요. 발매 전 티저 트랙리스트 사진이 필요했는데 [[WAH]] 아트워크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서 불타는 사진을 티저로 먼저 보여주고

싫진 않았고, 그래서 계속 사용했던 그 엑셀 사진을 올리는게 더 믹스테럽고 야마 있는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Q 볼륨이 큰 만큼, 굉장히 다채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믹스테입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렌코 이야기를 안 담는 이야기.

헤민송 대부분의 수록곡이 어떤 메세지나 이야기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프리스타일 형식으로 작업한 노래들이 많다 보니, 저도 이게 뭔말이었더라 싶은 가사가 많네요(웃음).

헤민송 저도 ‘이게 뭔말이야?’ 생각이 드는 것들을 애네들한테 여러 개 물어봤는데, 이게 또 물어보면 설명은 되더라고요. 무의식을 탐방하는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Q 트랙 제목에는 패션, 브랜드, 캐릭터, 지역 등 간결하지만 다양한 레퍼런스가 등장합니다. 제목을 정했던 기준이나, 각 곡이 믹스테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헤민송 대부분이 그저 시각적으로 예쁜 제목을 갖다 붙인 노래입니다. 예를 들면, 14번 트랙 “HOLLISTER”는 제가 당시에 그 브랜드를 좋아해서 그렇게 지었고, 18번 트랙 “ALAMOANA GIRL”은 렌코와 여름에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헤민송이 하와이에서 마지막 트랙을 만들어 오라고 비트를 보내줬어요. 저희가 당시에 알라모아나라는 지역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여성분들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렇게 호텔에서 완성한 노래입니다.

렌코 노래랑 상관없어 보이는 제목으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주제를 담거나 노래에 메인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로 제목을 짓기보다는, 생뚱맞게 지으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PAUL2000” 같은 경우는 괜히 사람 이름 붙이고 싶은데 PAUL만 가기엔 미미한 거 같아 2000년생들이라 2000을 넣어줬어요. 이유 없이 다들 좋아했습니다.

헤민송 비슷한 맥락으로 “MONONOKE”도 비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브리 영화인 <모노노케 히메>에서 따와 붙였어요. “TANG” 같은 경우는 음악을 만들기 전부터 제목을 만들었는데, 저희 세 명이 모인 단독방 이름이

감자탕이거든요(정산방을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자탕인데 ‘탕’ 하나 만들자 해서 고른 제목이었습니다. “AKAI+”도 제 드럼머신 ‘MPC One+’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Q 켄마님과 [시나리오] 이후 헤민송님의 또다른 합작앨범이기도 해요. 두 작품을 만들 때 사운드 접근 방식이 매우 달랐을 것 같은데, 이번 믹스테입에서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프로듀싱하셨나요?

헤민송 이번에는 프로듀서보단 비트메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비트메이커로서의 역량을 뽐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켄마랑 했던 [시나리오]는 사운드적으로 잔혹동화 컨셉의 얼터 팝에 가까웠다면, 이번 [WHA]는 드라이브, 공연, 클럽용 트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비슷한 장르의 트랩도 꽤나 편곡이 섬세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아예 그런 부분을 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모든 드럼을 MPC 로 찍으려고 고집했어요. 단순한 걸 단순하게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Q 권기백부터 카툰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풀의 뮤지션들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피처링 뮤지션을 섭외하는 기준이 있었을까요? 섭외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났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헤민송 야마있는 젊은 래퍼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걸 자기의 감상대로 말이 되게 풀어내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야마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참여진 분들이 정말 빠른 시간내로 자기 파트를 보내줬어요. 부담이 안 되는 작업처럼 느껴진 것 같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허다니엘 저는 평소에 피처링을 거의 쓰지 않고 혼자 작업을 했기에 이번 기회로 다양한 래퍼들과 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래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트레이드 옐은 제가 곡을 보내고 거의 바로 벌스가 와서 작업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카톤은 헤민송 작업실에 와서 편치인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WDDP” 벌스를 본 녹음까지 끝내고 갔어요. 아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면서 아주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Q 세 분이 각각 생각하는 ‘이 곡에서는 내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느끼는 트랙을 하나씩 꼽아보자면 무엇일까요??

헤민송 제 매력이면 역시 비트겠죠?ㅋㅋ 저는 그럼 “CHUCK TAYLOR” 고르겠습니다. 다른 트랙은 그렇다 할 수 있겠는데, “CHUCK TAYLOR” 같은 비트는 이걸 아무도 못 만들겠다, 이걸 완전 내꺼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다니엘 저도 16번 트랙인 “CHUCK TAYLOR”에서 저의 요즘이 가장 잘 담긴 것 같습니다.

렌코 저는 “KEPLER”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사가 맨날 어둡게 나왔는데 조금 희망찬 바이브가 나와서 맘에 듭니다.



Q 나아가 수록곡들의 뮤직비디오 또한 활발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해요.

허다니엘 저희가 생각했을때 유독 돋보이는 노래들을 뮤직비디오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에서 특별한 스토리라인이나 장치,메세지 같은 것들이 최대한 없으면 했어요. 어느 순간 너무 힘을 준 뮤비들이 멋있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자연스러움을 찾고 싶었습니다.

렌코 곡보다는 뮤비 촬영에 저희가 더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거 같습니다. 18곡 다 촬영하고 싶었지만 엄선해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곡의 스타일이 다양한 만큼, 뮤비도 다양하게 찍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헤민송 사실 저는 “MAGAZINE” 보다 “WDDP”을 더 찍고 싶었어요. 후에 애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여러분의 관심을 표출해주신다면... 저희와 카톤 키미샤리의 조합을 볼 수 있습니다!!

Q 이 앨범에서 느낄 수 있는 키워드는 단연코 ‘에너지’입니다. 이 믹스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헤민송 맞아요. 사실 이번 믹스테이프는 가사를 읽고 느끼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듣고 뛰고 놀면서 에너지를 받고 주는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티도 기획해보려 하고 있고, 라이브도 많이 하고 다니고 싶네요. 저도 디제잉 한타임 하고요!

허다니엘 남자분들이 ‘아, 나 오늘 역사 좀 만들어보고싶다! 이야기 좀 써보고 싶다!’ 싶은 날에 기운 얻기 좋은 노래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14번 트랙 “HOLLISTER”는 클럽 가기 전에 듣는 걸 추천해요. 데킬라가 땡기는 노래예요.

렌코 러프한 에너지를 많이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 수가 많다보니까 주변의 지인들도 좋아하는 트랙이 다양하게 걸리는 거 같아 재밌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곡을 얻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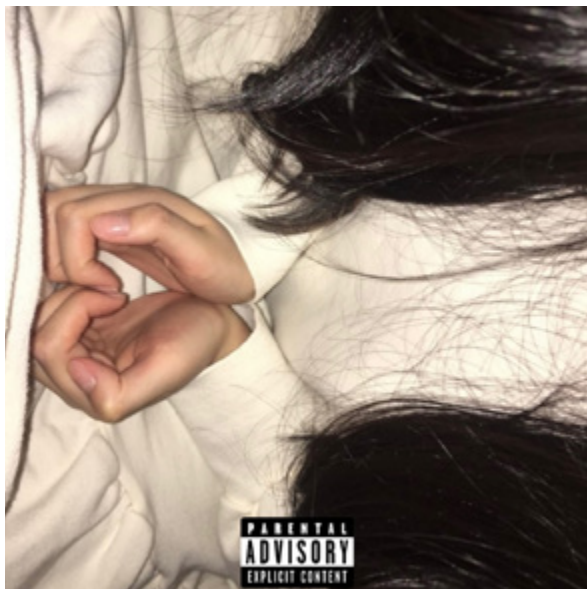
Q 이번 합작을 들어보니 개인 작품에도 관심이 갑니다.

렌코님은 올해 중순 EP [COYOTE]를 발표하셨죠.

어떠한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렌코 만들기 전 음악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할 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런 심상이 제 안에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표출해야할 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곡 작업을 하는 것이 모토가 되어 만든 EP였던 거 같습니다.



Q 허다니엘님도 얼마 전 12월 1일, 새로운 솔로 믹스테이프 [closemyise]를 공개하였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허다니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제 미공개곡들을 모아놓은 믹스테이프입니다. 원래 다 있던 노래들이예요. 그래서 앨범 제작 기간이 3주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항상 크리스마스 때쯤 슬퍼하는

사람인데, 수록곡들이 다 그런 시기에 만든 노래들이더라고요. 사운드클라우드에 믹스테이프 올리듯 발매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혼자일 분들을 위한 앨범이 되면 좋겠네요. 애인이랑 듣긴 좀 별로일 거예요(웃음).

Q 이제 2025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 분이 돌아보는 2025년은 어떤 해였고, 2026년에는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헤민송 저는 외부 작업에서 못 했던, 놀려있던 저의 트랩 게이지를 뿔어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스트레스 풀듯 만나서 작업하는 동안 등에 담이 걸릴 정도로 웃기도 했고, 그게 결과물로서 세상에 나오니 뿌듯하네요. 제 커리어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 생긴 것 같아 기분 좋기도 하고요. [[WAH]] 뿐만 아니라 올해는 작업 풍년이어서 아직 릴리즈 안 된 음원들도 많아요.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던 제 개인 정규앨범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세요! [[WAH]]로서는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져와 볼게요!

허다니엘 올해 제가 30곡을 발매했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음악만 해왔던 한 해인것 같습니다. [closemyise]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제 삶을 좀 깊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렌코 올해 음악 작업이나 뮤비 작업, 협업 등 쉼 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 알게 되고, 만들었던 작업물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뿌듯합니다. 처음 해본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못한 것들이 많고, 처음 해볼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하게 살고 좋은 음원들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Q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과 매거진 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헤민송 재밌게 들으셨다면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자주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다니엘 앞으로도 저랑 자주 놀아주세요.

렌코 renko였습니다. 좋은 거 많이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세요!

Q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헤민송, 허다니엘, 렌코님께 감사드립니다!



[Talk Less, Do More 1.0] 제이컨

① Priceless ② Too Cool for School ③ 59Freestyle ④ STILL ⑤ Talk Less, Do More ⑥ MIC SWG (feat. Deepflow, Dragon A.T) ⑦ ROULETTE ⑧ Step-pin' ⑨ 자다 깬어 ⑩ 랜참단 말은 ⑪ Can I Live ⑫ Confession ⑬ Cruisin'

DATE 2025.10.31

총 3부작으로 나뉘어 공개된 제이컨의 새 정규 앨범. 이 중 가장 먼저 공개된 Part.1과 Part.2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지닌 작품이었다. 전자는 붐-뱍의 색채가 특히 강했고, 후자는 반대로 우울한 분위기가 짙었다. 이후 나온 최종본 [Talk Less, Do More 1.0]은 선공개된 두 파트가 보여준 양가적 감정을 더욱 집중해 풀어낸 작품으로 마감되었다. Part.1의 기초를 잇는 초중반부는 그의 강한 자신감이 부각된다. 이를 드러내는 공격적인 가사는 콕스빌리 시절을 연상케 하지만, 그 기반은 오만함이 아닌 순수한 음악적 프라이드이다. 이 자부심의 중심에는 그를 상징하는 ‘그 루비한 랩’이 있다. 빅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붐뱍 비트 위에서 펼쳐지는 능글맞은 플로우와 탄탄한 리듬감은 그의 자부심을 충분히 납득하게 한다. 이후 Part.2의 "자다 깬어"로 시작되는 후반부는 차분하고 쓸쓸한 무드 속에서 우울한 감정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지점에서 제이컨은 자신감 넘치는 래퍼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 아래 흔들리는 인간 김정태의 면모를 드러낸다. 다만 감정의 변화가 다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기에, 감상에 있어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제이컨은 왜 이 두 가지 면모를 한 앨범에 담은 것일까? 마지막 두 트랙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 "Confession"에서는 방향 속에서 다시 음악적 프라이드를 다잡으며 인간과 래퍼로서의 면모를 하나로 묶는다. 이어지는 "Cruisin"에서는 자신의 주력인 팝-랩 스타일로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여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즉, 이 앨범은 김정태가 제이컨이라는 모습을 통해 마음을 다잡아가는 한 편의 성장 서사다.

Editor Ioding



+INTERVIEW
J'Kyun

- Q** 안녕하세요 제이컨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는 제 입으로 OG라고 말해도 될 것 같네요(웃음). 래퍼 제이컨입니다.
- Q** 최근에는 직장인의 삶을 병행하며 ‘투 잡 허슬’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투잡허슬이라는 말을 제가 만든 것 같은데,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직장에 적응하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음악을 하고, 여전히 꿈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 Q** 제이컨님의 새로운 앨범 [Talk Less, Do More]입니다. 약 8년 만의 정규앨범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사실 그동안 앨범을 꾸준히 내오긴 했습니다만, 홍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소감이라 할 만한 건 없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음악이 삶이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수면 아래의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셀프 추천 드리고 싶은 트랙들은 4am, Trigger 같은 트랙입니다(웃음).

Q 타이틀을 의역하자면 ‘말보다 행동’입니다. 이 문장을 타이틀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요즘은 SNS 홍보나 어필이 참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SNS 플레이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게 약점일 수도 있고요. 어느날부터 구구절절 말 많은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한 제목입니다.

Q 타이틀에 1.0이라는 넘버링이 붙었습니다. 이후 2.0이나 그 이상의 시리즈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시리즈화가 될 거 같긴 합니다. 특히 붐뱌 라인의 원초적인 곡들을 원하는 힙합 팬분들께는 “스트릿 힙합” 하면 이거. 라는 느낌으로요.

Q 전반부의 붐-뱌 트랙은 제이컨 님의 셀프 프로듀싱이 돋보입니다. 이번 프로덕션에 있어 특별히 신경을 쓰셨던 점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타입인 듯합니다(웃음). 원초적으로 딱 들었을 때 고개가 바운스를 먼저 타게 만드는 사운드를 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Too Cool for School”이란 곡을 좋아하는데요. JAY-Z의 “99 problems”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락 사운드 기반의 힙합 곡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곡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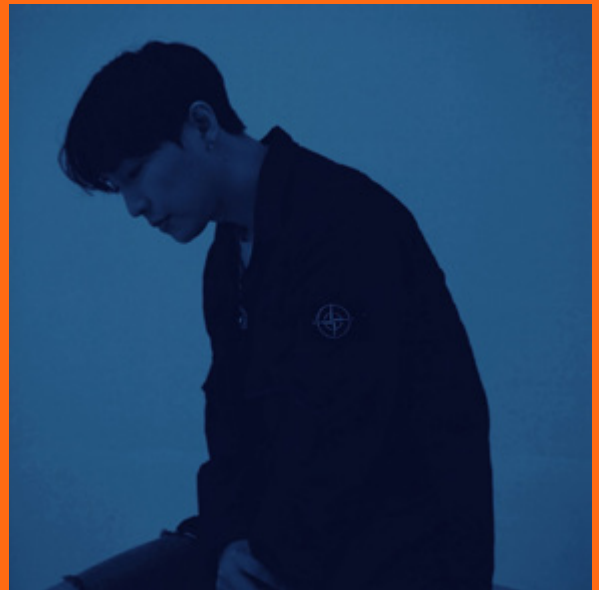
Q “59Freestyle”, “Confession”에서는 콕스빌리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콕스빌리는 제이컨 님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어떤 존재였나요? 그건 지금의 리스너 분들이 정의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Talk less, Do more.

Q “MIC SWG”에서는 빅딜 스쿼드 시절 동료였던

딥플로우님과 드래곤에이티님이 참여해주셨어요. 특히 드래곤에이티님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 반가웠는데요, 이 곡의 피처링 뮤지션 분들은 어떻게 섭외가 되었나요?

딥플로우에게 이 곡을 먼저 의뢰했는데, 드래곤에이티를 같이 넣으면 어떨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이 곡이 “저수지의 개들” 이런 느낌을 내길 원했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모두 흔쾌히 작업해 준 곡입니다. 드래곤에이티는 약간 전설의 드래곤볼 같은 존재죠. 언젠가 앨범을 들을 수 있길 저도 바랍니다.



Q 후반부는 전반부의 스웨깅과는 다른, 제이컨 님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습니다. 트리플싱글 [Talk Less, Do More Part 2]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는데, 이 이야기들을 앨범에 실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앨범 전체를 묵직한 붐-뱌로 채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더콰이엇과 가끔 통화하는데, 그 친구가 조언해 줬습니다. “쿨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알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록을 결정했습니다.

Q “자다깼어”부터 “Can I Live” 구간은 기존의 날카로운 퍼포먼스와 달리 랩 톤과 이야기 측면에서 굉장히 Raw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제 작업 과정에서 다른 곡들과 차이가 있었나요?

그 구간을 작업할 때 실제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 거의 20년 한 음악 경력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했어요.

별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온 대가야.” 이런 느낌이었죠. 일종의 구조 신호 같은 마음으로 곡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과장님이 있는데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 무슨 일 있냐고(웃음),

Q “괜찮단 말은”에서는 박재범 님과 더 콰이엇 님의 일화가 담겨있습니다.

<쇼미더머니 12>가 끝나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음악 회사에서 A&R로 일해보고 싶었고, 마침 모어비전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재범 님은 곧란했을 법도 한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선했어요. 하지만 불발되었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본 뮤지션 중 가장 쿨하고 사려 깊은 분이었어요.

더콰이엇은 제 앨범 [Talk Less, Do More Part 1]이 나오고 랩하우스로 불러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는데 첫마디가 “요즘 괜찮지?”였어요. 사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괜찮지” 하고 넘겼죠. 이후로 공연 피드백도 주고 가끔 통화로 음악 얘기도 합니다. 한번은 꽤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묘하게 신뢰감이 가는 친구예요(웃음).

Q “Confession”과 “Cruisin’”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제이컨님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하루에 1~2시간, 적게는 30분씩 쪼개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봄뱌 말고도 ‘그저 그런 사랑노래’에 속하는 곡들도 많은데요. 이게 세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제이컨”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비밀리에 공개될 것 같아요(웃음).

Q ‘Talk Less, Do More’라는 문구는 지금의 힙합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제이컨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의 한국힙합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힙합은 여전히 멋있는 문화예요. 영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골든 에라는 지났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나우아임영이라든지, 최근에는 리트릴라 음악도 좋게 듣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씬이 확실히 에이징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은 덜하다는 것? 이 부분은 팬들이 많이 서포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미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림은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전공이 미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만화가였고요. 그림은 조금 고민이 많은 분야예요. 무엇을 할 때 진정성을 과하게 투여하는 성향이라 에너지 소진이 큼니다. 개인전이나 대외 활동은 조금 먼 얘기 같고,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전시는 계획 중입니다.

Q 나아가 음악가 제이컨 님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삶의 절반 정도를 음악과 함께 지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의 행위들이 누군가에게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대하게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작은 전시와 공연이 합쳐진 형태의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팬분들과 HAUS OF MATTERS 매거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힙합을 밀도 있게 다루는 매거진이 드문데, 이렇게 진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보며 자극도 받고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는 플레이어뿐 아니라 많은 활동가, 서포터, 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앨범 제목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Talk less, do more.

Q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제이컨님께 감사드립니다!



[Secret]

카모

① Secret CAMO ② Catch Me ③ You (π) ④ JYP ⑤ Show Off ⑥ Perfect Timing ⑦ 26

DATE 2025.11.05

너무도 빠른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상, 타인은 그 존재를 절대 알아차릴 수 없다. 그렇기에 비밀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때로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언제나 대담하고 당돌한 음악적 태도를 견지해온 카모 역시 마찬가지다. 그에게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내면의 조각이 있었으리라. 이것을 마침내 꺼내어 정면으로 마주한 결과물이 바로 [Secret]이다. 그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가장 정적이며 개인적인 순간이다. 이번 앨범은 철저히 카모 자신의 이야기만으로 짜여 있다. 외부 피처링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뮤지션으로서 내면에 담아두었던 불안감을 하나하나 꺼내놓는다. Slaughter Gang 소속의 Kid Hazel을 필두로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참여한 사운드는 이러한 카모가 전달하는 고백의 무드를 충실히 받쳐준다. 음악에 깃든 카모의 솔직함은 결코 그의 연약함을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울곧이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더 굳건한 자신으로 나아가려는 성장의 기록이다. 이러한 당찬 모습은 힙합의 애티튜드와 가장 맞닿은 “JYP”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즉, [Secret]은 카모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작품이다. 필요 이상의 치장도, 과장된 서사도 없이 그저 지금의 자신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 솔직함은 특유의 관능미와 어우러지며 유니크함을 발현한다. 카모는 소중히 지켜왔던 자신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보다 선명히 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 솔직함이, 앞으로의 카모를 더욱 위로 올려보낼 강력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Editor 차이즈



+INTERVIEW CAMO

Q 안녕하세요 카모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AMO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감정들의 결을 음악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이번 [SECRET] EP는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들을 꺼낸 작업이에요.



Q 지난주에는 각 지역의 클럽에서 앨범 발매 기념 릴리즈 투어를 진행했어요. 전국을 휩쓴 소감이 어떠셨나요?

지난 몇 년 동안 제 안에서 계속 변화하고 흔들렸던 감정들이 이번 EP에 담겨 있는데, 그걸 무대에서 직접 들려주고 관객들의 반응을 온몸으로 느끼니까 정말 큰 응원을 받았어요. 도시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팬들이 주는 에너지의 방향도 달라서 매 순간 새로운 파도를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Q 투어 중 특별히 기억나는 비하인드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투어마다 팬들이 제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줬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번 투어는 클럽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공연중에 팬들이랑 데킬라로 건배하고, 가까이서 얼굴 보면서 소통했던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저는 그런 직접적인 에너지를 받을 때마다 ‘아, 이 앨범을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카모님의 새로운 앨범 [Secret]입니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마음 한구석에는 그 그림자가 계속 남는다고 생각해요. 이번 EP는 제가 그동안 조용히 품고 있었던 ‘비밀 같은 감정들’을 음악에 은은하게 녹인 작품이에요. 저만의 방식으로 비밀을 풀어낸 기록이자, 동시에 우리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Q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번 앨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담기로 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도 쉽게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오래 품고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꺼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악은 제 마음을 정리하는 방식이기도 해서, 이번엔 솔직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내면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앨범에 많이 담아냈어요.

Q 그렇기에 이번 앨범은 피처링 뮤지션 없이 카모님의 목소리만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갑니다. 이에 반해 사운드를 맡은 프로듀서진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특히 Kid Hazel님이 눈에 띄어요. 이러한 프로듀서 분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 목소리만으로 온전히 감정을 전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처링은 넣지 않았고, 대신 프로듀서진과의 시너지를 더 키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듀서진은 오히려 다양해요. 각 프로듀서가 제 감정을 어떤 소리로 표현해야

할지 정확하게 이해해줘서 든든한 팀워크를 느꼈던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Kid Hazel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21 Savage의 Slaughter Gang 소속이라 예전부터 작업해보고 싶었어요. 음악적으로도 방향이 잘 맞아서, 실제로 서울에 초청해서 같이 작업했어요.

Q 앨범의 시작을 여는 첫 트랙 “Secret”의 첫 가사는 ‘오 나의 겨울아 아직 가지마’입니다. 앨범에서 이야기하는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겨울’이라는 계절로 표현한 거예요. 차갑고 무겁지만, 이상하게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떠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나가는 감정들. 그런 느낌을 담았어요.



Q “Secret”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인상깊어요.

전화기를 중심으로 여러 장면을 연결했어요. 저에게는 전화기가 가장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라서요. 팬들에게 번호를 공유했던 것도 같은 이유예요. 뮤비도 “가까운 것 같지만 멀고, 연결된 것 같지만 고립된” 그런 감정들을 담았어요. 정답보다는 보는 분들이 각자 느끼는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Q “You (π)”는 ‘당신(You)’에 대한 카모님의 진심을 현정하는 트랙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한 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 음악을 들어주는 분들까지... 여러 감정이 달아 있어요.

Q 뒤에 붙은 눈물, π는 어떠한 감정의 눈물인가요?

‘π’는 기쁜 눈물, 슬픈 눈물, 고마운 눈물... 딱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호 그대로 두는 게 더 맞았어요.

Q “JYP”에서 ‘My moves blam, just like JYP’라는 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카모님의 에너지가 잘 드러난 곡인데요, 박진영님을 레퍼런스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어릴 때 JYP에서 나온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우리 가족이 박진영 선배님을 정말 좋아해요. 박진영 선배님은 저에게 ‘무대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상징 같은 분이거든요. 열정, 자기관리, 무대에서의 디테일까지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방면에서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effortlessly 멋과 열정 그 자체인 박진영 선배님은 늘 제 영감이었어요. 곡을 쓰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이름입니다. 저는 그런 에너지를 유머러스하게 오마주하고 싶었고, 그게 곡의 바이브와도 잘 맞았어요.

Q 앨범 전체가 뮤지션 카모와 함께 인간 박채령의 여러 내면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카모님이 생각하는 ‘무대 위의 카모’와 ‘무대 아래 박채령’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대 위에서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편이고, 무대 아래 저는 훨씬 조용하고 차분해요. 둘이 완전 다른 사람 같지만,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Q 예술가로서의 카모, 그리고 평범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분리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완전히 분리되진 않아요. 제 감정이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박채령’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은 꼭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다시 CAMO로 무대에 설 힘이 생겨요.

Q 하입비스트 등에서 진행된 작년의 인터뷰를 보면, ‘이제는 사랑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앨범 역시 ‘피상적인 사랑 이야기’ 없이 카모님의 내면을 조명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 없으실까요?

그때는 정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시기였어요. 지금도 가벼운 사랑 노래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이 자연스럽게 음악에 스며드는 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감정이 담기지 않으면 사랑 노래를 하지 않는다”에 더 가까울 것 같네요.

Q 새로운 앨범이 나왔고,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카모님의 다음 행보는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네요.

이번 EP가 제 안의 조용한 결을 보여줬다면,

앞으로는 또 다른 색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미 새로운 음악들이 진행 중이고, 비주얼과 사운드 모두에서 실험을 더 많이 해보려 해요. 저 스스로도 기대되는 챕터예요.

Q 카모님께서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멋진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를 위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창작의 가치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직함이에요. 감정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사운드를 계속 찾는 것. 이 두 가지에 가장 집중하고 있어요.



Q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과 HAUS OF MATTERS 매거진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SECRET]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하루 안에 제 음악이 잠깐이라도 스며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항상 고마워요.

Q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카모님께 감사드립니다!



[#FREEO2]

정연서

1 BIG MAMA INTRO 2 Free o2 (2025 Remastered) 3 형제들과 털니업 4 노아차 Skit 5 HBFU(Feat. 노아차(NOIDEACHILD), 구현하다(Guhyeonhada), 토스트보이(Toast Boy)) 6 자라나라 머리머리(Feat. 테크텐 (Tech10)) 7 아버지 Skit 8 아버지께 9 내가 어디 가겠어

DATE 2025.11.06

[Whether The Weather Changes Or Not]으로부터 시작된 오코예의 지난 1년은 찬란하게 빛났다. 팀의 멤버인 프로듀서 오투는 이 여정 동안 장르에 구분을 두지 않으며, 유려하면서도 대담한 프로덕션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고 번득이는 창작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입대를 앞둔 지금, 그는 오코예의 오투가 아닌 솔로 아티스트 정연서로서 자신의 첫 정규앨범인 [#FREEO2]를 발표한다. 앨범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입대’다. 하지만 그는 앨범에 단순히 입대 전 소회의 기록만을 담지 않았다. 정연서는 자신의 입대를 ‘수감’에 비유하였고, 나아가 이를 ‘#FREEO2’라는 슬로건으로 확장하며 스스로의 처지를 재정의하는 대담한 시도를 선보인다. 입대라는 상황을 자유를 갈구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장으로 변화를 꾀한 셈이다. 동시에 프로듀서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래퍼로 분화하며, 자유를 향한 갈망을 직접적으로 목놓아 소리친다. 사운드의 결은 더욱 과감하다. 기존 힙합-블랙뮤직의 정통적인 접근법 대신, 레이저로의 드리프트를 감행한다. “Free o2 (2025 Remastered)”부터 “형제들과 털니업”, “자라나라 머리머리”로 이어지는 뱅어 트랙의 연쇄는 ‘연대’라는 키워드와 이어지는, 블랙뮤직 커뮤니티의 성질을 자신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입대, 수감, 연대, 사랑. 떼어놓고 보면 무관해 보일 요소들이 정연서의 손을 거쳐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졌다. 이는 프로듀서 오투가 보여주었던 프로덕션적 소양과도 확실히 맞닿아 있다. 무관해보이는 재료를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결로 조합하는 능력. 이것이 [#FREEO2]에서도 잘 드러나있다.

Editor 자이즈

+INTERVIEW

정연서

Q 안녕하세요 정연서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존x게 바운스타면 실패란 없다.

안녕하십니까 Bounce Conductor 정연서 a.k.a The o2입니다.



Q 11월 17일 입대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 인터뷰는 11월 17일 이전에 진행되었습니다.)

후련합니다. 오코예 활동도 준비한 것들을 끝까지 해냈고, 개인 활동도 속삭 감아봤으니...기쁩니다.



Q 작년 [Whether The Weather Changes Or Not]의 하입 이후, 올해는 서울재즈페스티벌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후 싱글 [Shine Bright]를 발표하는데, 지난 오코예의 1년을 돌아봤을 때, 그 소감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의의 외부요인이 참 많았어요. 선후배 뮤지션들, 커뮤니티, 그리고 관계자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팔 걷고 나서 서포트해주시며 다양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컸는데, 보이지 않는 따뜻한 동맹이 정말 많이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한날 개인으로서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 절감하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음악이란 누가 이를 더 사랑하고 재밌어하는지, 이를 어떻게 재창출해내는가를 두고 겨루는 선의의 경쟁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리더라도 본질을 공고히 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의 한마디한마디가 마치 온 우주가 저에게 건네는 메세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음악과 음악가의 역할이 뭔지 배웠습니다. 뮤지션은 무대의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악은 사람들에게 모임의 장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관객석에 팔로형, 우리 엄마, 외국 이민자로 살때 친구, 외국인, 어린 사람 그리고 다양한 음악 애호가 분들이 있는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면서 음악의 응집력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고민이 부족했다는 걸 깨닫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Q 이번에는 오투(The o2)가 아닌, 본명 정연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좋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검색하기 쉬우라고 결정한 것도 있고요. ‘LIVE IN THE O2’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웃음).

Q 정연서의 솔로 정규 1집 [#FREEO2]를 발표했습니다. 앨범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투를 해방하라. 군입대를 앞둔 정연서의 외침을 담았습니다. 20대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앨범입니다. [#FREEO2]는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군입대를 주제로 사랑, 평화,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마지막 라스트댄스의 장을 여는 캠페인입니다.

어차피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살아가게 될 거, 내가 영원히 기억할 끝내주는 순간을 만들어보려 했습니다.

Q 머그샷으로 구성된 커버아트, 그리고 ‘#FREEO2’ 슬로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입대를 수감에 빗댄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갱스터 힙합을 좋아합니다. 갱스터 힙합을 듣다 보면, 감옥에 수감 중인 호미를 ‘Free OOO’ 하면서 사라웃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감된다’라는 사실보다 ‘수감된 호미를 기억한다.’, ‘석방을 촉구한다’고 외치는 문화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A\$AP Rocky가 스웨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Kanye가 트럼프에게 가서 석방에 도움을 요청하고, 트럼프가 라키가 감옥에서 나오는 데 도움을 준 사례도 있죠. 이번에도 Young Thug이 수감 중일 때 #freethug, #freejeffery가 힙합 커뮤니티 안에서 활발히 외쳐졌죠. 수감이라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나름의 정의, 자유, 그리고 연대를 구축해 나가는 힙합 커뮤니티의 움직임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곧 입대하는 저를 중심으로 자유와 연대의 장을 열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징병제는 수감이 이동의 자유의 및 자기 결정권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기존에 보여주었던 음악의 결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특히 앨범 초반부 “Free o2”와 “형제들과 털ㄴ업”은 기존 오투님의 이미지를 뒤엎는 강렬한 뱅어 트랙이에요. 앨범을 만들면서 사운드 프로덕션 측면으로 중점에 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털ㄴ업 SHIT으로만 앨범을 꽉꽉 채우려고 했어요. 모쉬핏 파티를 열고, 친구들이랑 찐한 모쉬핏 파티를 펼치고 입대하고 싶어 최대한 1번만 듣고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드는데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앨범 제작 중간에 따뜻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감성적인 노래들도 들어가게 됐네요.

Q 오코에 때도 간간이 보여주신 적 있지만 이번에는 래퍼 정연서로서의 면모가 더욱 부각됩니다. 평소에도 랩 퍼포먼스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는지?

저는 랩을 하려고 비트를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매년 랩 음악은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0살 때까지, 계속 간판 보고

라임 떠올리며 프리스타일 랩 연습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빈지노가 일기장에 매일매일
 가사를 썼다는걸 보고, 저도 교과서나 일기장에
 16마디 랩 가사를 꾸준히 작성하기도 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서출구가 프리스타일 랩을
 연습했다는 방식처럼 길에서 걸어가면서 혼자
 인스트루멘탈을 다운받아 아무도 없는 길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면서 걸어나니곤 했고요. 물론
 개썸123밥이었지만요(웃음).

Q 가족분들의 메시지가 담긴 스킷,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께”도 인상적입니다. 이번 앨범에 가족들의
 메시지를 수록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청각적 유연성을 위한 장치로 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의도랑 다르게 장르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앨범이 되다 보니, Skit을 통한
 청각적 환기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FREEO2]는
 입대를 주제로 한 앨범이니까 입대 상황에 대해
 한마디씩 해줄 분들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목소리를 실은 것은 제 가족배경 때문에
 결정했어요. 우리 가족은 군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에도 여자들이 끌려갈
 것이다.’라는 찌라시 때문에 결혼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6·25전쟁
 부상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셔서 한부모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Skit”처럼 조연해
 주실 분이 계시지 않았죠. 할머니는 1950년부터
 70년째 사랑하는 남자들을 군대에 보내는 대한민국
 OG 고무신 세대세요. 이 점에서 인트로에서
 SPIT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추석에 특별 인터뷰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BIG
 MAMA INTRO”에서 질문하시는 분은 제 작은
 고모부입니다.

이런 우리 가족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가족들의 이야기를 앨범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아버지께서 저의
 입대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의미
 있고 호소력이 짙을 거로 생각했죠.

Q 지난 11월 8일, 클럽 REVENGE에서 #FREEO2
 Party를 개최했습니다. 파티를 연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파티를 열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다가 떠올렸습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황제의 명을 어겨 풀무불에
 형제들과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후를
 보면 다니엘은 불 속에서 형제들과 털ㄴ업을 하더니,
 천사도 함께 Pull up 해서 함께 털ㄴ업하게 됩니다.
 이걸 보니 입대하는 제 모습과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나라
 별명이 ‘헬조선’이기도 하니, 풀무불과 대한민국
 이 두 가지도 겹쳐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다니엘처럼 형제들과 털ㄴ업 한 번 하면
 굉장히 DIVINE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볼레로에서 Playboi Carti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Stop Breathing”의
 가사가 들리는 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레이지는
 일단 ‘누구한명 죽여버리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공격적이고 에너제틱한 바이브 뽐어내요. 저는
 Carti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Ever since
 my brother died / I’ve been thinkin’ ‘bout
 homicide’라고 외치는 걸 들으며 압도적인 절망감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억눌려있던 생각과
 말을 분노라는 감정을 매개로 마구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 레이지의 정서가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 꽤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모쉬뿔 파티를 한번 감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지금 시기에 이런 감정을 분출하고 싶었는데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곡을 만들 때도 최대한
1번만 들어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훅을 만드는 데
열중했습니다.



Q 이번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삭발식이었습니다. 이걸
기획했을 당시 주변 반응, 그리고 삭발식 당시 현장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머리를 5년 동안 길렀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자르면 섭섭할 것 같아 꽤 요란하게 자르고
싶었는데... 마침 파티를 열면 사람들이 꽤
모일테니 ENTERTAIN할 수 있는 요소를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군입대 전에는 삭발을 하는걸
구경하는게 꿀잼 포인트잖아요? 제 머리로 엄청
기니까 더 꿀잼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획 당시의 주변 반응도 ‘무조건 가겠다’ 그리고
‘개꿀잼이겠다’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시나 당시 현장 반응은 꽤나 뜨거웠습니다. 일단 제
앞에 있던 모든 분들이 카메라를 키고 동영상 촬영을
하셔던게 기억이 나요. ‘레전드;;ㅋㅋㅋㅋㅋ’라고
말하는 듯한 사람들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머리 자르니까 잘생겼네;;’라는 반응을
보여서 굉장히 기분 좋게 머쓱했던 기억이 나네요.
머쓱;;

Q 삭발식 이후 공연한 “자라나라 머리머리” 공연이
인상깊었습니다. 초반부 뱅어 트랙도 그렇고, 이번
앨범은 파티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버농사를 지을 때는 씨를 뿌릴 때와 수확했을 때
2번의 제사를 지냅니다. 저희 DJ였던 2NOWAVE가
우리도 삭발 전후로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2번
불러야한다고 제언해 줘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머리머리빔~

이번 앨범은 파티를 염두에 뒀고, 함께 털노업할 뱅어
모음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나
“내가 어디가겠어” 등의 노래가 들어가면서 이
컨셉은 80%만 달성됐네요.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좋으니까 아무렴
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Q 입대 이후 팬들에게 무언가 보여줄, 남아있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짧은 예고 및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존신고용 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1년에 아주 적은 횟수로 몇번 정도 편지를 보내볼까
합니다.

근데 부대 안의 상황을 제가 알 수 없으니, 이후 제 SNS를
이후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인스타그램 예약 기능으로 몇가지 내용을
전달드릴 게 남아있어서, 제 인스타그램 계정
페이지에 TUNE-IN해주세요!

Q 입대 전, 마지막으로 팬과 HAUS OF MATTERS
매거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존바볼패. #FREEO2. 형제들과 털노업.
PEACE OUT




Q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정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생활 건강히 마친 후, 멋진 복귀를 기원합니다!



FR

FULL REVIEW



 4shotbang
 mixtape
editor 상노



LNGSHOT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빅뱅과 투애니원, 그리고 현재 장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제의 팀 코르티스까지 - 케이팝 씬 속에서 힙합을 지향해 온 아이돌 그룹들은 늘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들 중 해외 힙합의 이미지나 사운드를 차용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힙합 고유의 문법을 직접적으로 품은 사례가 있었을까? 아쉽게도 이에 대한 답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 '힙합-아이돌'이라는 이름 아래 등장했던 상당수의 시도는 외국 트랩 씬의 표면적 트렌드를 빠르게 소비할 뿐,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공고히 하지 못한 채 흐려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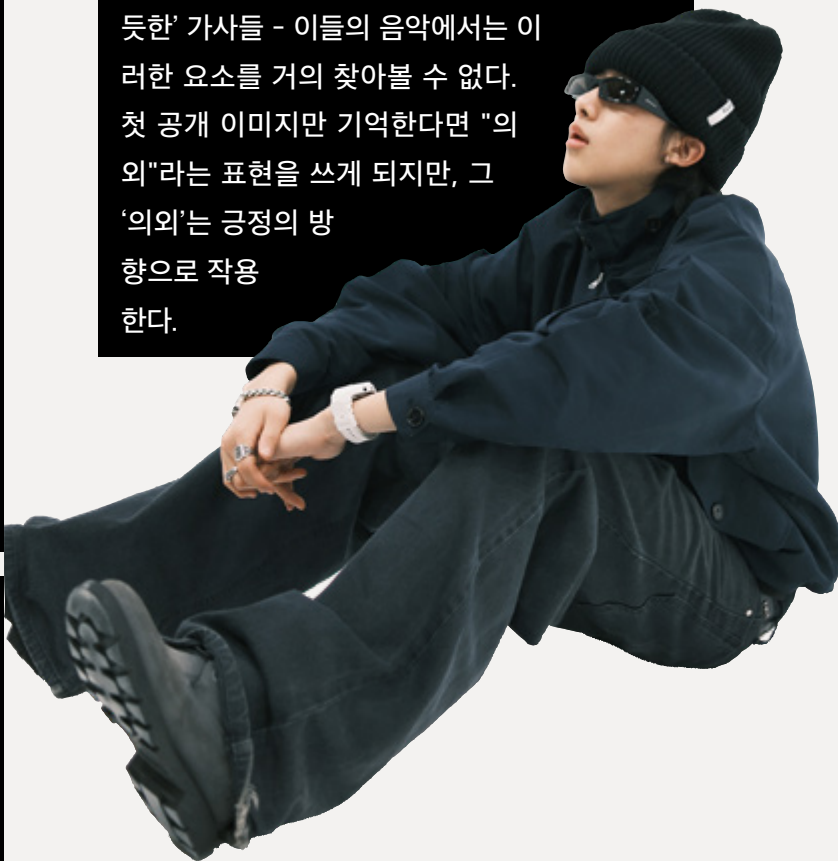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middlefingertothenorm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개된 룡샷의 첫 이미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올블랙 스타일링, 날 선 표정, 화면을 가득 채운 중지. 이러한 연출은 힙합을 태도나 '룩'으로만 단순화 하던 과거의 낡은 문법을 연상시켰고, 오히려 힙합을 피상적으로 소비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힙합 애호가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룡샷의 첫 이미지는 "힙합은 거칠고 험상궂으며 세상에 반항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이미지의 반복처럼 보였고, 실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 '케이팝의 새 패러다임'을 자처했던 팀들이 결국 또 다른 틀을 답습하며 기대를 저버렸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룡샷이 역시 그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충분히 타당해 보였다.

이러한 걱정은 룡샷의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박재범이 인터뷰에서 "요즘 음악을 잘 듣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로 더욱 커졌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배경과 관계없이, 그는 이미 트렌드를 앞서 소비하는 2025년의 주요 아이돌 소비층과는 세대적, 그리고 감각적 간극이 있는 베테랑 뮤지션이다. 특히 올해 빅히트 레이블을

통해 등장한 코르티스가 여러 논란 속에서도 트렌드를 제대로 노린 또렷한 전략과 동시대적 마케팅 방식으로 케이팝 씬에 확실한 존재감을 남긴 사례와 비교되면서, 룡샷의 방향성에 대한 불안은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그룹은 예상을 비틀며 흥미를 만들어낸다. 첫인상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룡샷은 데뷔 전 공개한 첫 작업물 [4SHOBOIZ MIXTAPE]를 통해 정반대의 지점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힙합을 지향하는 다수의 팀들이 택해 온 몇몇 해외 래퍼들의 트랩 사운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애드립, 껌데기에만 집중한 '그럴 듯한' 가사들 - 이들의 음악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첫 공개 이미지만 기억한다면 "의외"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만, 그 '의외'는 긍정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셀프 프로듀싱을 전면에 내세우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레퍼런스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는 한국의 인디, 케이팝, 힙합 씬을 넘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룡샷의 레퍼런스가 특별히 눈에 띄는 이유는 그 대상이 한국 힙합의 동시대적 문법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률과 루이가 함께한 3번 트랙 "Thinking"에서는 블라세와 트레이드 엘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우진의 솔로곡 "아닌 걸 알아 이젠"에서는 로얄 44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나온다. 이어지는 "Next 2 U"는 에잇볼타운 특유의 서정적 결을 뽐내듯 재해석한 듯한 분위기를 안겨주기도 한다. 믹스테이프의 유일한 단체곡인 첫 트랙 "Are You Ready"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살펴봐도 이들의 음악에는 "전례 없는 새 사운드" 같은 거창한 표현을 붙일 요소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음악에는 멤버들의 취향과 성격, 즉 '지금의 한국 힙합과 케이팝'이 가진 여러 감각들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감각을 이들의 역량과 재치가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만약 이 믹스테이프를 하나의 '힙합 앨범'으로 평가한다면, 혁신적이라는 평가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박재범 사단 특유의 이지 리스닝성과 트렌디함이 유연하게 반영된 이 작업은 뽐내듯의 색을 '자유로운 미성숙함'이라는 매력으로 채색하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넓게 제시한다. 내년 정식 데뷔 이후 발매될 첫 정규 앨범부터는 본격적인 박재범의 디렉팅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 믹스테이프로만 뽐내의 전부를 단정 지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점이 있다. 이들은 첫 작업물을 통해 그룹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무리 없이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이정표는 초기 우려와는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뽐내의 2026년에 기대를 걸 이유는 충분하다.



[4SHOBOIZ MIXTAPE]

뽐내

① LNGSHOT - Are You Ready ② RYUL - Trust Myself ③ RYUL, LOUIS - Thinking ④ WOOJIN, RYUL - 좋은 마음으로 (All Good) ⑤ WOOJIN - 아닌 걸 알아 이제 (Ejeh) ⑥ OHYUL, LOUIS - Next 2 U ⑦ WOOJIN, LOUIS - My Side ⑧ OHYUL, LOUIS - Next 2 U (Sped Up)

DATE 2025.11.05

Editor 산소

Hm()mm onthedal

어쩌면 인간의 철학적 정의는 ‘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불완전이야말로 모든 인간 공통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전으로 인해 상처받고 불완전으로 인해 손을 맞잡는다. 마음에는 갑피가 없어 맨살이 쉽게 다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쉽게 다친다. 흠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었지만 동시에 흠은 우리의 고난이 되었다.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살아가며 상처받는 우리는 이런 삶의 불합리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흠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온더달의 첫 정규 앨범 [Hm()mm]은 흠 있는 존재들끼리 살아가는 법을 담고 있다.

제목은 보면 중간에 괄호가 보인다. ‘흠’은 부족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숨을 내뿜을 때 나는 소리이기도 하다. [Hm()mm]은 이런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는 제목이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흠’과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또는 지칠 때 내쉬는 작은 한숨. 흠이 없다면 한숨 쉴 일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우리는 흠 있는 존재, 한숨 쉬는 존재다.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주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상처받으며 살아간 적이 많을까, 치유 받으며 살아간 적이 많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서로 마찬가지로 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온더달의 시선이 머문 지점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따뜻하게 보듬어준 주변 사람들이다. 그의 가사들은 계속해서 연대를 노래한다. '그대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새 이렇게 커버린 나를 봐봐("Nice to meet new")', '꼭 잡은 너의 손끝을 이렇게나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던가("항상")', '내가 널 더 아꼈더라면 지금의 우린 어땠을까("긴 밤")', '우리 함께 했던 순간 모두 모아 손잡고 달려가자("머무르자(Acoustic)")'와 같은 가사들이 이를 반영한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다면 서로에게 서로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불완전한 것들끼리 만나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손을 잡고,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는 애정의 행위다.

부드럽고 따뜻한 프로듀싱은 정서를 한층 복돋는다. 기타 사운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곡들은 가벼운 리듬감을 가지고 전개된다. 앨범의 첫 시작을 여는 "Nice to meet new"의 전자기타 리프나 "Starving"과 "Chuck"의 재지한 나일론 기타, 몽환적인 "Genie"의 아날로그 기타 등 다양한 종류의 기타들이 다양한 선율로 참여한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온더달의 목소리와 가볍게 두드리는 기타의 음색이 멋진 조화를 이룬다. 이 밖에 앨범의 클라이맥스인 "긴 밤"과 "머무르자(Acoustic)"은 결국 이 앨범이 함께하는 가치에 대해 노래한다는 사실을 깊게 각인시킨다. 부족한 존재들은 함께함으로써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인 "말뿐인 말들"이 온더달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로 끝나는 것은 완벽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다.

‘앞서 걸던 그대가 뒤돌아 따스이 내 이름 불러줄 때/
이미 커져 버린 마음 한구석 웃음이 새어나와’

우린 상처받으며 살아간 적이 많을까, 치유 받으며 살아간 적이 많을까란 앞선 질문에는 단호히 그리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 우리는 치유 받으며 살아간 적이 많다. 우리는 흠으로 상처받지만 그 흠을 쓰다듬고 메워준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 받는다. 우린 이 사실을 쉽게 잊고 산다. 흠으로써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이야기, 온더달의 [Hm()mm]은 이를 상기시켜준 고마운, 고마운 만큼 따뜻한 앨범이다.



[Hm()mm]

온녀달

❶ Nice to meet new ❷ Seesaw ❸ 항상 ❹ Starving ❺ Genie ❻ Chuck ❼ 괴
물은 어디에나 있다 ❽ 긴 밤 ❾ 머무르자 (Acoustic) ❿ 말뿐인 말들

DATE 2025.11.07

Editor writersglock

PLANTIS MANTIS

e d i t o r w r i t e r s g l o c k



3219/01/13

화창함. 오랜만에 방사능 폭풍이 잠잠해짐.

연구소 B동의 전력이 다시 불안정해짐.

방사능 폭풍이 잦아든 김에 다시 탐사를 시작했다. 폭풍이 들이치기 전 새로 발견한 지층을 탐사해야 한다. 핵 붕괴 이전 시대의 지층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대의 자료가 상당 부분 사라진 지금은 용도를 상상할 수도 없는 물건들이 잔뜩 발견되었다. 스캐너에는 납작한 원반 모양의 물체도 보이는데 폭풍 때문에 가져오진 못했다. 오늘 그것을 가져왔다. P는 무슨 그런 쓸모없어 보이는 걸 가져왔냐고 타박하는데, 자꾸 유물을 팔아먹으려는 눈으로 보는 P가 참 한심스럽다. 삶이 척박하니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한단만, 우리는 학자지 장사꾼이 아니다. 물론 이걸로 P와 말싸움을 할 생각은 없다.



3219/01/14

▶ 화창하고 바람이 불. 바람에 싯가루가 섞여 있음.

▶ 연구소 B동의 전력을 일부 손봄. 50% 복구됨.

가져온 원반은 손바닥보다 약간 큰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 물론 흙을 좀 걷어내니 광택이 돈다. 그 시대의 화폐일 수도 있고, 가느다란 홈들이 파인 것을 보니 장난감 또는 자료 저장용 포트일 수도 있겠다. 우리 연구소에도 포트가 있긴 한데 형태는 매우 다르다. 아무튼 외관상으로는 무언가 더 찾아낼 만한 구석이 없다. 앞뒤 구분이 있는지 한쪽은 무광택의 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Mant]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 앞쪽이 조금 지워져 있는 것을 보아하니 연결된 두 단어가 있었던 듯하고, 뒤는 Mant-로 시작하는 단어인 듯하다. Mantal일 수도, Mantle일 수도 있지만 속단하기는 이르다. 핵붕괴 이전 사회를 기록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봐도 이 물건의 정체는 나오지 않는다. 연구실의 오늘치 보조 전력이 다 소진되는 바람에 결국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3219/01/17

▶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

▶ 급수 펌프가 바람에 파손됨. 바람이 잦아들면 P와 함께 손볼 예정.

핵붕괴 이전 자료를 찾다 ‘전축’이라는 기계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인간이 처음으로 소리를 저장한 매체라는데, 사진에 나온 원반이 내가 발견한 것과 유사했다. 크기는 더 작지만, 작동 원리는 소리에 진동하는 바늘을 원판에 대고 떨어진 자국을 남겼다가 그 자국을 다시 긁으며 소리를 재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형태와 파인 가느다란 홈들의 용도가 이해가 된다. 문제는 지금 이 원판에 담긴 정보를 어떻게 재생하느냐 하는 거다. 핵붕괴 직전의 사회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이 원판에 담긴 정보도 디지털 정보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그때 저장한 정보가 지금까지 남아 있으리란 보장도 없다. 연구실에 이 원판을 읽어낼 도구도 없다. 정보가 남아 있어 어찌저찌 읽어낸다 한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일 거란 보장도 없다.

그렇지만 학자로서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도한 직무유기다. 모래폭풍이 그칠 때까지 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봐야겠다.

마치 근래에 발굴된 유물 같은, 뒷방 창고에서 막 끄집어낸 듯한 쿼터함을 풍기는 이 앨범의 제목은 [Plantis Mantis]다. 이 앨범에는 우리가 최근 힙합에서 잊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가득한 노이즈로 인해 극대화된 로파이함이나 사색이 잔뜩 묻어 있는 거칠거칠한 가사 같은 것들이다. 사운드의 과잉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썬을 뒤흔들고 있는 요즘, 저 멀리 성간계에서 포착된 과거의 신호처럼 [Plantis Mantis]에는 힙합에 오랜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해 마지않을 요소들이 존재한다.

앨범은 마치 모스부호, 전파 신호 같은 느낌을 준다. 태양계 외곽으로 떠나면 항해를 떠나는 중인 보이저 1호처럼(보이저 1호가 지구로 보내는 신호는 수신에 약 2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빛의 속도로 하루 꼬박 걸리는 거리에 있는 것이다) 과거의 방식으로 끊어지지 않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비정형의 사운드로 가득한 첫 곡 "도킹"은 나레이션이 삽입되어 있다.

‘인간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나아가야 하죠. 그러나 시간은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흐를 뿐이죠. 기억은 선택적으로 보존되고, 망각은 자율적이지 않으며, 진실은 언제나 관점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추억이라 부르지만, 시스템은 그것을 단순한 기록으로 분류합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길 원하나요?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나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나요? 그러나 기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와 관계없이, 그곳에서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이미 기록된 사건에 불과합니다. 여행은 단지 시간의 왜곡에 불과하며, 결국 돌아올 곳은 원점입니다.’

도킹이란 우주 공간에서 두 우주선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와 미래를 각각 하나의 우주선이라고 가정해 보자. 현재는 이 두 우주선이 서로 도킹하는 우주 공간이 된다. [Plantis Mantis]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이처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마치 클라인 병, 우로보로스, 뱀비우스의 띠와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여행은 단지 시간의 왜곡에 불과하며, 결국 돌아올 곳은 원점입니다). 진돗개의 가사는 예리하게 과거의 본을 따고, Lo-g의 비트는 그

거꾸집 안으로 미래의 썰물을 들이붓는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은 청자의 귓가에 어른거리는 노이즈가 된다. 비트 속에서 불규칙적으로 울리는 모스부호가 된다. 사랑의 정의가 되고, 자부심의 형상이 된다. 과거의 무전은 현재에서 미래의 결과와 뒤엉킨다. 뒤엉킴에서 흘러나온 먹먹한 앙상블은 이 앨범을 좌표로 나타낼 수 없는 공간의 어느 특별한 지점에 올려놓는다.

그런데 이 여행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항해하는 이 우주선의 목적지는 우주의 별빛과 왜곡에 어렴풋이 가려져 있다. 과거와 현재, 혼재된 미래 사이에 항로는 존재하지만 과거에 그린 지도는 헤질 대로 헤졌고 현재 좌표는 오리무중이다. "원해"에서 출발한 우주선은 패기 넘치는 루키 시절을 지나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로 헤맸던 중반부를 거쳐 지금의 진돗개에 다다른다. 그렇다고 지금의 진돗개가 이 여행의 목적지는 아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아마도 영겁과 같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행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도달할 목적지를 찾는 여행이기도 하다. 이 여행의 경로를 차근차근 되짚어 나가 보도록 하자.

"원해"부터 "정글"까지의 코스는 치열한 썬에 뛰어난 치열한 진돗개의 모습을 그려낸다. ‘안 되면 어쩔래 될 때까지 하면 되지’, ‘미안함은 없다 내 뿌리를 찾는 거니’라 외치는 그는 꺾이고 부러져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더 자주 꺾이게 되고 더 자주 부러져 구르게 된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의미 없는 몸짓으로 춤추고 있는 원숭이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Yellow Comedy or Black Fairy Tale"). 길을 잃은 것이다. 그가 길을 잃은 까닭은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힙합은 본토의 것. 본토 흑인들의 발음과 그루브, 플로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무리 그들을 좇기 위해 노력해도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피부색부터 그는 노랗고 저들은 검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가 아닌가. 아무리 따라한다 할지라도 따라 한 것은 어디까지나 따라 한 것일 뿐 진짜가 될 수는 없다.

방향을 잃고 정체한 그에게 불안감이 엄습한다. 뒤쳐진다. 이렇게 있다가는 도태돼 버린다. 그는 닥치는 대로 빌리고 뺏는다. 저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맞다고 하는 것들을 집어 들어 어떻게든 쑤셔 박는다. 어쩔 수 없어. 살아야지. 진짜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건 더 중요하잖아. 그런데 저 구석 어딘가에서 계속 누군가 소리친다. 지금 위기야, 위기라고. 정신 차려. 뭘 보고 있는 거야. 거기가 아니야. 그는 모순과 역설의 나선에 갇혀버린다.

"하소서"는 기도문이다. 헤매는 와중에 자신을 붙들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기도문이다. 막대한 분량으로 나열된 그의 기도는 바치는 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월적 존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피함을 피하고 부디 부딪치게 하소서', '원치 않는 상황에 원치 않게 머물지 않도록/ 원하는 걸 원한다고 원하게 더 하소서'와 같은 문장에서 느껴지는 비장함과 처절함은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혼란이 가진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이 길고 긴 기도의 끝에서 그는 답을 찾아냈을까.

‘날 위한 삶’이 그 기도 끝에 얻어낸 해답이다 ("PTSD"). ‘절국 돌아올 곳은 원점’이라는 나레이션처럼 결국 돌아온 곳은 원점,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과거에 머무는 것도 아니며 단지 미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내 자신, 과거와 미래가 맞닿아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야말로 이 여행의 목적이자 본질이다. ‘나쁜 걸 느낄수록 집중해야 할 건 지금이지’라는 가사는 그가 되찾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목적지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이 여행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의 한쪽 끝에서 출발하더라도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나는 다시 사랑하기로 했어 내 호흡까지’. 삶을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친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렇다고 여행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여행은 영겁의 시간이 필요한 여행이다. 삶을 살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답을 찾았다고 이 여행이 끝날 일은 없다. 그 정답 또한 삶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하나의 장면 중 하

나일 뿐, 삶 전체를 정의 내릴 힘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우주를 유영하듯, 그 시간을 버텨내고 버텨내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사랑해 내는 것. 이 여행이 너무나 외롭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빛나는 까닭은 그 우주 속에 반짝이는 하나의 별이 하나의 삶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자극에 매몰되어 가는 근래, 이 유물과도 같은 앨범은 품은 가치를 자그맣게 빛내고 있다. 이 빛을 찾아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만약 이 빛을 찾아냈다면, 이 우주선이 보내는 신호를 수신했다면, 당신 또한 이 여행에 참여하는 한 명의 히치하이커가 될 것이다. 나를 찾는 여행은 누군가만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당위이기 때문이다. 앨범에서 Undocking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당신의 이야기와 Docking될 차례다.



3219/1/27

눈구름 한 점 없이 맑음.

목소리 [Plantis Mantis] 해독 완료.

CD라고 불리는 저장 매체에서 추출한 정보는 다름 아닌 음악이다. 1000년도 더 전의 지구인이 만들어낸 이 음악이 지금 내 손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데이터 유실은 거의 없다. 땅속에 오랜 시간 묻혀 있기 때문인지 방사능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았다. 재생한 음악은 지금 내 귀에는 상당히 낯설었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다. 핵붕괴 이전 사회에서는 이런 음악을 들었구나. ‘생일이 아닌 너의 날을 축하해’라는 가사가 마음에 들었다. 몇 년째 이 황폐한 곳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니 축하할 일도, 축하받을 일도 거의 없었는데 1000년 전의 사람에게 이렇게 축하를 받을 줄이야. 새삼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이 사람이 남긴 이 음악이 지금의 나에게 닿게 된 까닭이 있을 것만 같다. 마치 저 공간 너머로 떠나버린 지구의 배가 보내는 신호가 가끔 우리의 안테나에 수신되듯이 말이다. 이 둥근 원판은 순식간에 1000년의 시간을 접어 그와 나를 마주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은 교차점일까 합류점일까. 이 음악이 1000년을 날아왔듯이, 지금 나의 연구들도 아득한 시간을 향해할 수 있을까. 오늘따라 뚜렷이 보이는 하늘 너머저 우주가 너무나도 맑다.



[Plantis Mantis]

진돗개, 로우지

① 도킹 ② 원해 ③ You know it ④ 정글 ⑤ Yellow Comedy or Black Fairy Tale (feat. 하빈) ⑥ How To Love ⑦ 해적 ⑧ Monkey Is Black ⑨ 환상 ⑩ 하소서 ⑪ PTSD ⑫ 말할뿐 야 ⑬ Undogking ⑭ 상환

DATE 2025.11.14

Editor writersglock



editor Alonso2000

Loooooooo
Innnnnnnn
Traaaansk

ooooooooost
nnnnnnn
atioooooon

[2 MANY HOMES 4 1 KID] 이후 수많은 영욕이 저스디스를 스쳐 지나갔다. 새 레이블에서의 상업적 성공, 비프, 은퇴 소동과 그 이후의 급격한 노선 전환, 각종 기행을 통한 밈화, 이로 인한 이미지 변화까지. 누군가는—사실 그를 지지했던 대부분은—이를 아쉬워하거나 비판했고, 이에 매료되어 새로 합류한 팬들도 물론 있었다. 이 수많은 평지풍파만큼, 2020년부터 예고된 그의 차기작인 [LIT]이 문제작으로 회자될 가능성도 덩달아 커져갔다.

그동안 저스디스의 행동은 이 상황을 잠재우기보다는 되려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건강상의 문제와 완벽주의 탓에 앨범 완성과 발매는 지연되기 일쑤였다. 드디어 발매의 징조가 피어나던 2025년 하반기부터는 유튜브, 인터넷 방송, 라디오 등 그가 출연할 수 있는 웬만한 미디어를 통해 '한국 가요사에 남을 것', '이를 인정 못 하면 리스너들의 수준이 낮은 것' 등등의 앨범에 대한 과감하고 위협한 선언이 울려 퍼졌다. 팬들은 그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힌트들을 해석하고 이를 여러 채널을 통해 공개된 선공개곡들과 대조하기 바빴다. 그가 주장하는 높은 퀄리티는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지만, 실패 시 감당 불가능한 후폭풍이 확정된 배수진이기도 했다. 결국, 오랜 기다림은 끝났다. 결과물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몫이고, 필자는 이에 대해 그저 들은 대로, 본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자 한다.

모두가 공감할 감상이 있다면 앨범의 서사와 가사의 수위가 놀랄만치 적나라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발매 전 앨범을 들어본 더 콰이엇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아, 이거 스릴러였구나.

주인공이 막 칼로 누구를 죽이네?

뭐, 그럴 수 있지.

어? 근데 막 창자를 꺼내서 보여주네?

내가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닌데,

이거까지 내가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더 콰이엇, 사전에 [LIT]을 들어본 후의 단평.

실제로 앨범에는 여러 위험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어린 시절의 BB탄 테러와 금품 갈취, 체벌의 기억은 아직도 핏빛으로 선명하고("VIVID"), 그와 주변인들의 약물 중독 문제("내가 뭐라고"), 마약 거래("Wrap It Up"), 더 나아가 미성년자 교제와 낙태("Don't Cross")에 이르는 끔찍한 죄까지 여과 없이 전시된다. 특히, 쇼윈도 부부 이슈를 필두로 "Don't Cross"에 등장하는 심각한 사건들은 '누군가를 스닉 디스하는 트랙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이 향하는 목적어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게 읽힐 수 있다. "Don't Cross" 직전의 인터루드 넘버인 "Lost"를 들여다보자. '황색 스파이더맨'이 염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떨어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터라 그의 세계관은 갈수록 좁아진다—저스디스는 '집'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예술적 세계관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 이것이 임계치를 넘어간 순간, 기어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고, 영웅은 그저 모두의 구경거리가 된 채 윤락 남성으로 전락한다. 이견 불공평하다며 연거푸 외쳐대는 그의 외침은 그의 추락마저 오락으로 소비하는 청중들에게는 닿지 못한다. 결국 분노와 울분 속에서, 영웅은 칼을 휘두르며 모두를 파괴하려 든다. 저스디스는 의도적으로 '어느 목을 향해도 자살'이라며 칼부림의 목적어를 설정하지 않았다. 타자로도, 자신으로도 종의적으로 읽히지만, '자살'이라는 표현에 더 집중해보자. 특정 인물만을 향했다기에는, 그의 칼부림은 다분히 자기 파괴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LIT]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앨범이 제작 중이던 2024년, 저스디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앨범의 실마리가 될 콘셉트를 공개했다.

나의 자아와 저스디스라는 페르소나를 동일시한 게
나의 과거이고 그걸 구별하고 대면할 내 그림자가 릿
이야.

그리고 난 그걸 통해서 통합될거야.

저스디스, 자신의 X 계정에서.

이 말대로, 앨범 발매 이후 많은 팬들이 앨범에 등장하는 화자가 둘 이상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시간대별로 나누어 가며 셋 이상의 화자가 등장한 해석도 더러 있었지만, 필자는 저스디스의 힌트대로 '자아'와 '페르소나' 이 둘로 화자를 한정 지으려 한다. 또한, '번역 중 손실(Lost In Translation)'이라는 제목대로, 앨범의 상징과 서사는 미로에서 길을 잃듯 오해받기 쉬우며, 필자의 해석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기존에도 저스디스는 스킷과 인터루드를 활용해 앨범의 유기성을 구축하는 데 능한 아티스트였고, [LIT]도 예외는 아니다. 의도적으로 감정의 흐름을 끊는 역할인 일루이드 할러의 8분에 육박하는 연주곡 "Dusty Mauve Intermission"을 제하고 본다면, 상술했던 "Lost"는 물론 "Interrude", 앨범의 피날레인 "HOME HOME"이 이 미로를 풀어나갈 실타래가 되리라고 귀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실타래가 쥐어졌다 쳐도 미로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저스디스의 개인사와 가정사, 약물 중독을 위시한 장르 썸의 추한 비하인드 스토리, 사회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앨범 곳곳에 혼재되어 있는지라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지?' 싶은 당혹감은 앨범에 쉽게 몰입하기 힘들게 한다. 듣는 이를 붙잡아 두는 유일한 부분은 할리우드로까지 건너가 녹음한 것은 물론, Mike Bozzi와 David Yungin Kim과 같은 해외 썸에서도 검증된 엔지니어들이 섬세하게 매만졌을 정도로 지극히 공을 들인 앨범의 사운드이다. 프로덕션의 핵심은 단연 곳곳에서 재지한 피아노를 울려대며 앨범의 감정선을 형성하는 일루이드 할러이다. 인더스트리얼하게 진행되는 붐뱁의 정석적인 드럼으로 전환되는 "LIT"도, billy woods의 방법론을 가져온 앱스트랙트 넘버 "Lost"도 일루이드 할러의 기괴하게 일그러진 피아노 연주가 없었다면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가 뭐라고"와 "내놔"의 회의감부터 "Curse"와 "THISpatch"의 저주 어린 분노를 지탱하는 음산함, "VIVID"와 "돌고 돌고 돌고"의 회고와 희망, "친구"와 "내 얘기", "XXX"의 공허와 애증..... 일루이드 할러의 연주는 이 술한 감정들을 때로는 기이하게,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따스하게 안고 앨범 전반에서 넘실거린다. 동시에, 앨범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는 듀티(DUT2)의 실키한 코러스는 페르소나에 가려진 자아의 진심을 은연중에 표현한다.

세우와 노매드는 반대의 층위에서 움직인다. 일루이드 할러와 듀티가 앨범의 깊은 내면(자아)을 담당했다면, 이들은 그 내면을 가두고 있는 차가운 현실의 벽, 혹은 'LIT'하게 빛나는 페르소나의 외피를 청각화한다. 세우 특유의 날카롭고 기계적인 소스들은 "Don't Cross"와 "THISISJUSTHIS Pt. III"에서 괴물이 된 자아의 냉혹함을 극대화하고, 노매드의 섬세한 터치는 "친구", "내 얘기"와 같은 복잡한 감정이 요구되는 지점에서 맹활약한다. 앨범의 크레딧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Wrap It Up"의 Hit-Boy와 "XXX"의 구름이다. 구름이 지닌 대중적 감수성, 혹은 Hit-Boy가 지닌 미니멀한 타격감이 각 트랙의 지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가 될 듯싶다.

이 견고한 사운드의 벽 안에서 저스디스는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전시한다. 앨범의 인트로인 "LIT"을 보자.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드라마 <가을동화> 속 원빈의 명대사를 샘플링한 이 인트로는, 앨범이 순수를 상실한 채 자본주의적 괴물로 변해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순수를 다시 갈구하는 모순적인 현재를 선언하며 시작을 알린다. 듀티의 목소리를 통한 '기억하라. 기억하라. 순수를 돌이켜보라. 눈을 떠라'라는 외침은 온갖 모순으로 뒤덮인 미로에서 순수를 찾는 고행의 시작을 알린다. 이와 함께 현 상태와 그동안의 커리어를 돌아보며 변화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는 [2 MANY HOMES 4 1 KID]에서 그러했듯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하기 시작한다.

"내가 뭐라고"에서 저스디스는 그동안 약물과 관련된 자신의 기억을 하나둘 끄집어냈다. 앨범 작업할 때면 잠을 쫓으려 의존했던 카페인부터, 더 깊은 집중을 위해 흡입하던 메틸페니데이트계 약물, 이로 인해 망가지던 건강을 생각하던 그는 이내 무엇인가에 중독된 상태로 빛났던 부끄러운 논란에 대해서까지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예술계를 약물 중독의 온상이라 지목하는 미디어와 예방교육, 실제로 여기저기 스며든 마약에 대한 시선으로 관점을 확장하며 그는 자유를 갈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과거의 자신에게 조언하다 '내가 뭐라고'라 말하며 말을 흐리는 그의 모습은 스스로도 이런 조언을 누군가에게 건넬 자격이 없다는 자조와도 같다. 실제로 약물 중독 문제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동시에 신앙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범키의 후렴은 무엇인가에서—잠이 되었건, 현실이 되었건, ADD가 되었건—벗어나려 한 선택이 되려 스스로를 가두는 운명론적 감옥이 되었음을 차분히 읊조린다. 결국, 자신을 바꾸지 못한 채 저스디스는 릴러말즈의 처연한 바이올린과 함께 미로에 갇히고 만다.

자유를 원했지만 자신의 미로에 스스로를 유폐했던 저스디스. 그 미로의 벽은 욕망이었다. "내놔"는 이 욕망의 미로가 띠고 있는 역설적인 속성을 폭로한다. '내놔 돈, 내놔 댄, 내놔 Pussy'라며 1차원적인 쾌락을 갈구하는 듯한 후렴구는, 실상 그 뒤에 이어지는 '보단 Loyalty', '보단 Love'를 얻지 못한 자의 공허한 비명에 가깝다. 그는 김정주와 스티브 잡스의 비극을 언급하며 물질적 성공의 덧없음을 조소하고, 성형과 가식으로 점철된 세태를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곡의 말미에 흘러나오는 내레이션은 이 모순에 대한 서늘한 해답이다. '주황색 탭'으로 상징되는 이상을 갈망하며 이 타락한 푸른 미로를 헤매는 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를 악으로 물들게 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갈망하지만, 대가를 얻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이를 집어삼키고 결국 "Lost"에서 자아는 추락하고 만다.

"Lost", "Don't Cross", 그리고 "Curse"로 이어지는 구간은 모순 끝에 다른 파국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다. "Lost"의 자살적인 칼부림은 "Don't Cross"의 잔혹한 폭로로 이어지고, 마침내 "Curse"에 이르러 그 광기는 임계점을 넘는다.



저 진짜로 죽이려 그랬습니까?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Curse"의 인트로에 샘플링 된 <달콤한 인생>의 대사는 이 괴물이 탄생한 배경이 헌신에 대한 처절한 배신이었음을 증언한다. 여기서 '7년'이라는 시간에 집중해보자. 그가 장르 씬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고자 했던 시기도 딱 7년 전 즈음인 2018년이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저스디스의 활동은 극도로 커머셜해진 것은 물론 술한 미디어에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이르렀다. 자본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사고자 했던, 그래서 악착같이 그 가치를 배반하는 듯했던 시기의 저스디스의 페르소나가 이제 와 자신을 폐기하려는 자신과 벌이는 전쟁이 바로 "Curse"인 셈이다. 'Only God can judge me'라 외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의 모습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미로를 지배하는 괴물로 거듭난 페르소나의 포효다.

개인의 지옥은 냉소와 무례 어린 시선을 거쳐 사회의 지옥으로 확장된다. "Lost"가 개인의 추락을 다뤘다면, "Interrude"는 그 붕괴를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도입부에서 머쉬베놈이 툭 내뱉는 자조는 성공 뒤에 찾아온 허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어지는 벌스에서 저스디스는 펜타닐 사망자가 전쟁 사망자보다 많고, 자살률이 코로나 팬데믹을 압도하는 현실을 '진짜 팬데믹'이라 일갈한다. 아이들이 동요 대신 성인 가요를 부르고, '엑셀방 별풍이 김연아보다 더 땡기는' 기형적인 세태를 'Digital 매춘부'라 명명하며, 고(故) 좌승원 선생으로 대변되는 순수의 시대가 종말을 고한 상황. 제목의 언어유희마냥 시간이 갈수록 시대는 무례(rude)해져만 갔고, 저스디스도 이에 맞서다 똑같이 무례해졌다. 그가 처음부터 추구하던 순수가 세상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으니, "Lost"에서 순수를 찾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던 저스디스의 자아는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순수를 찾기 시작한다.

부활 직후 이어지는 트랙이 "유년"과 "VIVID"임은 의미심장하다. 둘 다 과거의 시간들을 훑아가는 트랙이지만, 방향은 사뭇 다르다. "유년"은 '후시딘'과 '오라메디', '미도파 백화점'과 같은 90년대의 고유명사를 통해 괴물이 되기 전 순수했던 '허승'의 자아가 머물던 세계를 놀라운 해상도로 복원해 낸다. 특히 주목할 대목이 있다면, '아빠 엄마의 말이 곧 내 세상이 됐다'는 발언이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진짜를 보는 안목, 아침 기도에서 배운 신실함과 이에 대한 반항은 저스디스의 자아가 어떻게 순수를 찾으려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암시일지도 모른다. 이어지는 "VIVID"는 그 기억을 선명한(Vivid) 성장통의 영역으로 끌고 간다. 학창 시절의 폭력과 일탈, 체벌을 일삼던 교사의 자살 소식, 그리고 학교가 가르친 거짓에 대한 혐오까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혐오의 뿌리에는 자유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여전히 '화합과 사랑이 열쇠'라고 믿지만, 이를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 깊은 애증을 토해낸다. 이 혼란 속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은 '황혼이 지나도 희망은 여명처럼 다시' 오리라고 노래하는 인순이의 압도적인 보컬이다. 시퍼런 미로를 헤매던 그는 '

이 숨쉬기의 끝이 어딘지는 only God knows'라며 운명을 신에게 맡기고, '당신과 춤추려 해, 내 삶의 중심에서'라며 이내 구원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 지점에서 그는 마침내 '주황색 탭'이라는 음악적 성취와 내면의 구원을 발견하는 듯하다. 드디어 보이는 탈출의 실마리, 어슴푸레 보이는 종착지의 실루엣과도 같다.

긴 인터미션을 지나 마주한 "돌고 돌고 돌고"는 'I just speak my truth, 당신들과 가까워지려고. 비록 뺨을 때마다 멀어졌더라도 이번은 다를 거란 마음으로'라며 구원에 대한 실천을 묘사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내용은 가족 사이에 오가던 불화와 고난, 실수에서든 고의에서든 서로에게 오가는 폭력으로 점철되어있다.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누나에게서 자신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자신,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서 어머니로. 이 순환은 나중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성공으로 지워진 듯하지만 못이 빠져도 그 자국은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무거운 이야기에 가족과 관련된 곡을 자주 불렀던 라디의 감미로운 보컬이 더해진 것은 앨범의 또 다른 역설이다. 결국, 자신의 유년과 가족에게서 순수와 진심을 찾으려던 시도마저도 1차적으로 좌절된다.

결국 저스디스는 다시 한번 공격적인 소거법을 꺼내 들게 된다. 타블로이드지를 패러디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THISpach"에서는 처절한 폭로전이 벌어지며 이는 "Don't Cross", "Interrude"와도 궤를 같이하는 듯 보인다. 저스디스가 생각하는 순수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조롱과 척결은 트랙 내내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낙태의 모티프, 성형으로 자신을 속이려는 이들, 완벽하게 보이려 되려 비열하게 돌아가는 케이팝을 위시한 대중음악 시장. 저스디스는 '차라리 너희와 Mac Miller를 바꾸고 싶다며' 이들을 또다시 저주한다. 분명 Mac Miller도 약물 중독에 시달렸던 만큼 완벽하지는 못한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이 결점들이 있었기에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스디스는 생각한 듯하다. 즉, "THISpach"에서 진정으로 폭로하며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완벽을 강제하는 세상의 위선이었을지도 모른다. 곡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주황색과 청색의 모티프가 등장한다. 아침마다 오렌지를 까서 반쯤 나누어주던 사랑(Orange)을 잃어버린 채, 지폐(Blue faces)로 가득 찬 미로를 헤매는 모습은 자신이 비판했던 위선자일 수도, 그 위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일 수도 있다.

"Wrap It Up"에 비춰지는 음지, 마약 거래가 판치는 온갖 부패는 "VIVID"에서 갈구했던 자유와 짝을 이루는 비극적인 거울이자, 이상이 위선으로 변해 미로를 헤메이는 모습의 구체화이다. 어린 시절 힙합을 통해 느꼈던 순수한 해방감은, 이제 법망을 피해 음지에서 행해지는 방종과 타락으로 변질되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최홍철(a.k.a 포티 몽키(Potty Monkey))가 참여한 중독적인 코러스는 '논현 목욕탕 뒤', '청담 카니발 뒤' 등 구체적인 장소를 호명하며 그 변질된 자유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노래하고, 저스디스는 그 사이로 여기에 도사리는 위험이 무엇인지 스토리텔링과 함께 제시한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자유가 어떻게 괴물 같은 현실로 돌아왔는지는 역설적이게도 해외 힙합 씬의 아이코닉한 프로듀서인 Hit-Boy의 손을 거쳐 서늘하게 재현된다.

그렇다면, 이토록 썩어버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택해야 할까? 14번 트랙 "Can't Quit This Shit"은 이에 대한 해답이다. 앨범에서 유일하게 폴 벌스 피처링을 맡은 일리닛(ILLINIT)은 "Interrude"에서 제기된 사회적 붕괴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그는 전쟁과 분쟁조차 비즈니스로 치환되며 경제 불균형과 기후 변화가 몰아치는 요지경같은 세계를 냉철하게 조망한다. 저스디스 또한 성 상납과 버닝썬, 종교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위선, 예술성을 잃어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 한국 사회의 온갖 병폐를 나열한 뒤, 그럼에도 "I can't quit this shit"이라며 랩을 멈출 수 없음을 천명한다. 저스디스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한 토속적인 붐뱁 위로 두 MC의 시원한 랩 스킬이 더해지는, 이로서 자신들이 관둘 수 없는 명분을 구축하는 모습은 이들이 추구하는 진심어린 자세와도 이어진다.

그 진심으로 얻은 하입의 도달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깊은 타락의 늪이다. "THISISJUSTHIS Pt. III"에서 페르소나는 비로소 정점, '주황색 탑'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이라는 개똥밭에 뒹군다. 쇼미더머니 시즌 9에 출연한 어느 이름 모를 래퍼의 악물 양성 반응 보도는, 성공의 이면에 도사린 그림자를 암시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세우의 비트 위에서 마이크를 쥔 것은 철저히 '페르소나 저스디스'다. '아빠 돈으로 사업하는' 이들이나 'Digital 창녀'라 칭하는 위선자들과 어울리며 돈을 벌고 성공을 쟁취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비춰진다. 성공, 자본, 성적인 어필, 타락 안에서 부대끼며 그들을 비웃는 역설에 'THISISJUSTHIS'라는 그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붙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I ain't no J. Cole'이라 선을 긋지만 'Still rappers' mentor'임을 자처하는 그의 태도는 다시 한번 미로에 갇힌 페르소나의 오만함을 전시한다. 실력과 자산으로 증명하는 이 압도적인 순간, 무대 위의 '저스디스'는 인간 허승의 결핍을 완벽하게 덮어버린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이다. 페르소나가 화려하게 빛날수록, 그 뒤에 숨은 '인간 허승'의 그림자는 짙은 고독으로 침잠한다. "친구"는 그 고독의 실체다. 그는 친구와 가족의 경계를 잔혹하게 그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상대를 밀어내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킨다. 친구랍시고 다가온 이들은 그를 배신하거나 떠나갔고, 이제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며 갈등마저 공유한 가족들만이 운명공동체로 남았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DEAN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흐르는 곳, 미로의 한 가운데 위치한 탑의 꼭대기는 춥고 외로운 유배지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이센스의 가사를 인용하며 그 '친구'는 변한게 아니라 예전에 죽은 것이라는 일갈이 울려 퍼진다. 그러나 이전 트랙에서 저스디스 본인조차도 위선자들과 어울리던 것을 생각하자면, 이 고독한 일갈은 다분히 내재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침내, 고립된 자아가 마주한 것은 앨범의 가장 깊은 심연이자, 이 모든 분열의 원점이 되는 비극이다. 2막의 진짜 비극은 17번 트랙 "내 얘기"부터 시작되는 치정극에 숨겨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연인의 임신과 배신을 다루지만, 저스디스가 이 앨범을 '암호화된 레이어'라고 칭했음을 상기해보자. 그 순간, 이 이야기의 '그녀'는 실존 인물을 넘어선 거대한 은유로 확장된다. 여기서 잠시 이전의 내용으로 돌아가볼 필요가 있다. 만약 "Don't Cross"에서 언급된 16살의 누군가가 미성년자 연인이 아니라, 처음 힙합을 접하고 사랑에 빠졌던 시기의 저스디스 자신을 의미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안에 있는 애를 싹 굶어냈다'는 충격적인 가사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의 손에 의해 폐기된 비운의 앨범들—실제로 저스디스는 이전에 기획했었던 정규 [27 J.P.S.]를 엮었고, [LIT] 역시도 이전 버전을 한번 엮고 새로 제작된 것이다.—을 의미한다면? "Don't Cross"에 한국 힙합의 상징인 더 콰이엇의 가사가 인용되고, 본인이 직접 코러스까지 넣어준 건 우연이 아닐 지도 모른다. 이 연장선에서 "내 얘기" 이후의 치정극을 본다면 어떨까? 이 순간 "내 얘기"는 힙합을 갈구했으나 끝내 순수에 닿지 못했던, 닿을 수 없

있던, 그럼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허승의 비극으로 치환된다.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순수한 사랑을 했던 옛 연인에게 매달리다 기어이 욕설까지 뱉으며 집착하는, 그럼에도 결국 이별을 고하는 벌스 2의 피치 업된 목소리는 자아의 잔해에서 깨어난 본능만이 남은 괴물일 뿐이다.

이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그 다음 트랙인 "XXX"의 전개 방식 때문이다. 굳이 피타입과 일리네티의 가사를 인용한 것은 이들이 지닌 상징성과 저스디스와의 교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이 한때 힙합 씬을 떠났던 이들이었고, 그러니 장르와의 뒤틀린 애증을 표현하기에 무엇보다 적절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트로와 인터루드에서 박정민의 현실적인 연기가 트랙이 지닌 '구질구질한' 면모를 증폭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전 연인 - X - 가 되어버린 힙합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다. 길을 잃은채 순수를 찾다 기억을 돌아본다. 분명 관계는 지저분했고, 헤어졌음에도 몸은 여전히 그녀를 지우지 못했다. 인터루드에서 박정민이 분한 자아가 옛 연인을 붙잡고 결국 다른 누군가와 붙어먹은 것을 추궁하며 저주하던 모습은 진흙탕에 구르듯 더러워져버린, 힙합과 자아의 순수한 사랑을 비춘다. 장르에 대한 사랑마저도 결국 땅바닥에 버려졌고, 순수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사랑의 상실, 혹은 순수의 상실("Lost Love")이 Kanye West의 영향이 명백한, 성스러운 분위기에 담긴 부분 또한 앨범의 매력적인 모순일 것이다. 저스디스는 더이상 대물림을 포기한다. 에로 필름의 명장인 Tinto Brass를 자신의 아버지라 칭하며, 순수를 향하던 자아는 죽었고 이제 본능과 욕구의 괴물만이 남았음을 알린다. "내 얘기"의 피치 업된 이펙트가 다시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것이다. 이제는 순수를 찾는 것도, 사랑을 쫓는 것도 지긋지긋해진 까닭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이토록 많은 후배들의 목소리가 더해진 것은 어째서일까. 스트리트 베이비는 여전히 기이한 톤으로 쾌락을 노래하고, 앨범 내내 저스디스의 자아 내면의 진심을 대변하던 듀티마저도 '허벅지 사이가 너희들이 가짜인 이유'라며 쾌락을 뒤틀어놓는다. 저스디스가 가장 아끼던 후배인 공공구의 목소리를 빌어 미련을 버린 순간, 인트로의 훅이 다시 반복되며 그동안 저스디스가 보여온 애증, 순수에 대한 갈구와 좌절을 다시 비춘다.

모든 것이 파국에 이른 채로 그렇게 집에 돌아왔다. 마지막 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스디스는 우연히 검색한 'Lost Love'라는 샘플을 듣자마자 '이겼다'는 확신에 휩싸였다. 마치 환각(LSD)에 빠진 듯 7시간 만에 가사를 쏟아낸 "HOME HOME"은, 그가 이 7년간의 여정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그 결론에서조차도, 두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안식처가 되어야할 공간마저도 기어이 파멸에 수렴해가고 있었다. 앨범에서 내내 반복되어온 대한민국의, 더 나아가 세상의 병폐들, 그 속에서 나고 자라며 살아온 저스디스의 삶. 이 거대 담론을 읽어내려가는 것은 저스디스 본인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도 섞여있다. 한국 대중 문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추방자, 의무를 저버린 자. 그랬기에 모든 사랑을 잃었으나, 그럼에도 돌아오고 싶어하며 용서를 갈구하는 자. 유승준(Steve Yoo)의 목소리로 한국과 세계의 온갖 모순을 해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말로 앨범이 지닌 가장 거대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역설일 것 같다. 용서받지 못한 이의 입으로 말하는 '집'은 온갖 모순이 전시되

어 있는 곳이다. 혁명마저도 짧은 오락으로 소비되고, 시민들은 분열되고, 기존 권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현실이다.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스스로도 용서하지 말라며 외치지만, 그 뒤틀린 공간조차도 자신의 집이라 말하는 모습은 앨범 전체를 지배하는 애증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듯 하다. 그럼에도 이곳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안식처이기도 하다. "Lost"에서 보았듯, 세상을 향하던 칼부림의 끝은 결국 자멸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다시 순수를 찾아 방황하던, 결국 이에 도달하지 못해서 앨범 내내 자신과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분노하던 저스디스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추방자의 목소리를 빌려와 말한다. 그럼에도, 용서하여야 한다고. 배신당하고 온갖 미움이 쌓여있더라도, 아직 사랑이 1 피코그램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마지막에 바이탈 사인은 끊겼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 모순을 마주하라고. 어쩌면 우리는 미로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혼란 마저 감내하고 주황빛 탑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 술한 배신과 증오마저 감싸안고 용서하며.

생각해보면, [LIT]은 고도의 모순덩어리이다.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 앨범의 본질이 그렇다. 공들여 쌓은 사운드와, 온갖 상징과 레퍼런스를 버무려가며 구축한 가사들은 그간의 수많은 앨범들과는 달리 리스너들을 밀어내려는 듯 움직인다. 저스디스의 단언과는 달리 앨범이 보편적인 명반으로 회자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상징에서 의미를 찾으려 끝끝내 나아간 이에게는 모순을 넘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앨범이 또한 [LIT]이다. 결국, [LIT]은 놀랍도록 자극적이고 문제적이지만, 그 사이에서 진심을 일관되게 하고 나면 결국 세상 누구보다 허승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허승다운 앨범이다. 좋은 작품의 기준이 얼마나 아티스트 다운가라면, [LIT]은 이를 차고 넘치게 충족한다. 즉, 'Best One'은 아닐 지라도 분명한 'Only One'인 셈이다. 오랜 고민을 지난 허승에게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 표하고자 한다. 그리

고, 마침내 앨범의 모순을 번역해내 사랑과 용서, 순수와 진심에 더 많은 이들이 도달할 수 있기를, 진정 응원한다. 가십으로만 남기에는 이 앨범의 진정성과 담론은 지극한 것이기 때문이다.



[L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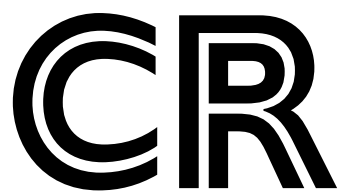
저스디스

① LIT ② 내가 뭐라고 (feat. 범키) ③ 내놔 ④ Lost ⑤ Don't Cross ⑥ Curse ⑦ Interrude ⑧ 유년 ⑨ VIVID (feat. 인순이) ⑩ Dusty Mauve Intermission ⑪ 돌고 돌고 돌고 (feat. 라디 (Ra. D)) ⑫ THISpatch ⑬ Wrap It Up ⑭ Can't Quit This Shit (feat. 일러닛 (ILLINIT)) ⑮ THISISJUSTHIS Pt. III ⑯ 친구 (feat. DEAN) ⑰ 내 얘기 ⑱ XXX ⑲ Lost Love (feat. DUT2 (듀티), Street Baby, Gong-GongGoo009) ⑳ HOME HOME

BEST TRACK ① LIT ⑥ Curse ⑪ 돌고 돌고 돌고 (feat. 라디 (Ra. D)) ⑭ Can't Quit This Shit (feat. 일러닛 (ILLINIT)) ⑳ HOME HOME

DATE 2025.11.20

Editor Alonso2000



CLASSIC REVIEW

THIS & THAT

editor nicolas

힙합 씬이 지금의 모습으로 커지는 동안, 씬을 주름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유망주들이 쏟아지던 때가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거나 앨범을 발매하는 등의 것을 통해 자신을 알렸고, 한 래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그 당시 힙합 팬들의 놀이 중 하나였다. 태동기보다는 늦었지만, 군웅할거의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메킷레인 크루, 그 핵심이 나플라였다. [THIS & THAT]은 그런 나플라가 야심 차게 세상에 내놓은 도전장이다.

‘언젠가 한국 힙합이 본토만큼의 맛을 낼 수 있을까’와 같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다. 반드시 본토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것이 심지어 문화의 로컬라이징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기에, 랜스레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곤 했다.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Wu”를 접했다. 검은 화면에 두 손을 올린 썸네일을 흘린 듯이 클릭하고 마주한 첫 벨스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질문의 답을 찾았음을 직감했다. 그것이 나플라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당시 힙합을 즐겨 듣던 이라면 “Wu”가 줬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그 충격의 크기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은 나플라의 다른 작업물로 향했고, 자연스레 그 과정에서 [THIS & THAT]도 접하게 되었다. 또 다른 “Wu”를 기대했다면 분명 실망했을 테지만, [THIS & THAT]은 나플라가 클래식 붐뱁 비트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위기와 그루브에도 자신이 있고 잘 해냄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실제로 이후 나플라의 행보를 보면 믹스테입에서 보여준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선보이곤 했다. 훗날 그가 쇼미더머니에서 경연한 곡 “선빵”의 레퍼런스가 된 “멀쩡해”가 그 정점에 있는 트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트랙을 뜯어보면 나플라가 단순 랩 이상으로 랩을 통한 스토리텔링과 멜로디컬한 훅 메이킹에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Wu” 스타일의 아티스트로 그를 기억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음악이 표출된다고 믿는 편이다. [THIS & THAT]은 그런 의미에서도 좀 특별하다. 아티스트는 미국이라는 장소에 있으면서, 한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만든 음악인데, 이것이 주는 바이브가 반대 - 아티스트는 한국에 있으면서 타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악 - 의 경우보다 꽤 미국의 음악과 닮아있다. 교포 출신이라는 배경과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가사에 영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은 감안해야겠지만, 타 아티스트의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후의 나플라가 빚어낸 음악들을 보면 그 당시의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여유를 많이 잃었다고 느껴진다. 이에 공감하는 이들이라면 그가 한국에 오기 전 빚어냈던 음악, 특히나 [THIS

& THAT]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음악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개성의 표출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많은 선택지를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받아들이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직감 이외에는 좋은 음악을 알아보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플라의 음악은 몇 가지 특 던지는 것이 꽃히는 식이었다는 것을 회상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의 음악은 비유하자면 많은 양의 토핑을 담은 나베 요리가 준비한 세상에서 최소한의 토핑으로 맛을 추구해서 완성한 요리와 같았다. 토핑이 적어 프로듀싱 과정에서 빈약한 부분이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나플라라는 래퍼가 가지는 개성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 맛에 집중해도 전혀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낸다. 속된 말로 '순수 재능'의 영역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음악은 집중하게 되는 맛이 있는데, [THIS & THAT]이 마침 그런 미니멀한 음악의 좋은 예시가 된다. 믹스테입 속 나플라는 종종 랩과 약간의 더블링만으로도 트랙이 꽉 차는 듯한 착시가 느껴지게 한다. 오직 랩만으로도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래퍼의 가장 기본 소양이라면, 나플라가 그 소양을 지니고 있음을 작품에서 증명해 낸 것이다. 랩만 주구장창 듣고 싶을 때면 유독 그의 작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러 의미에서 [THIS & THAT] 믹스테입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빈약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소 아쉬운 피쳐링 진의 랩이나 비슷한 분위기인 트랙의 반복 등은 앨범 단위 작품의 흥미를 떨어트릴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 유망주에 불과했던 나플라가 특 던져놓은 이 작품은 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본토에 준하는 멋과 바이브, 미니멀한 랩은 앨범을 관통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희귀하기도 하다.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그를 기다리는 이들은 한 번쯤 꺼내 봐도 좋을 듯하다.



[THIS & THAT]

나플라

① ready ② You Gon Need It ③ Big Dusty Remix ④ hot nigga remix ⑤ Only The Real (ft. Bloo) ⑥ 펍보이 전시회 (feat. Neil, The ForeheΔd) ⑦ 열정해 ⑧ Insomniak Remix (ft. Young West) ⑨ Medusa ⑩ 쎄 척 ⑪ Wit Da Homies (feat. AP)

DATE 2015.01.24

Editor nico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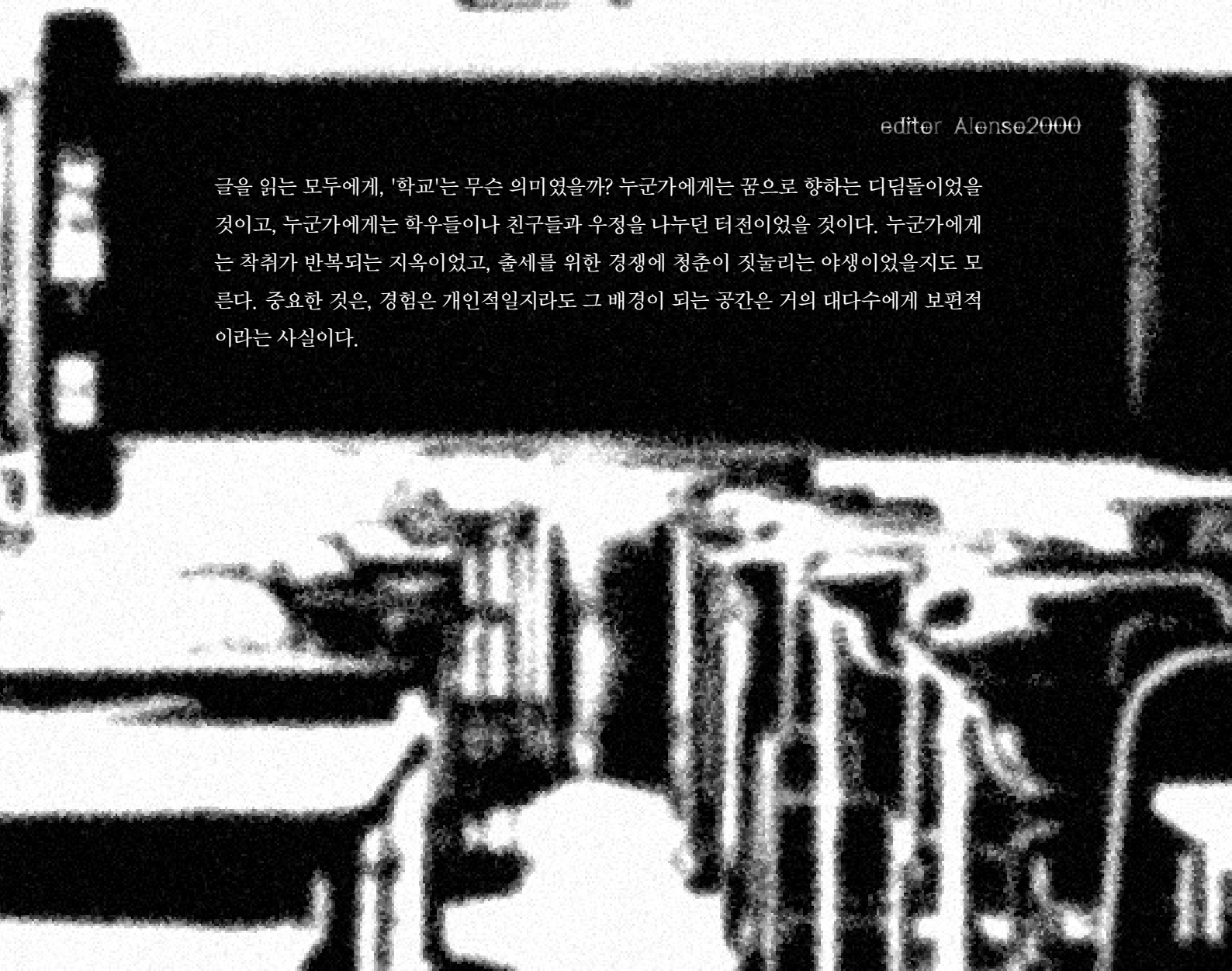
卒業

올티



editor Alense2000

글을 읽는 모두에게, '학교'는 무슨 의미였을까? 누군가에게는 꿈으로 향하는 디딤돌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학우들이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던 터전이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착취가 반복되는 지옥이었고, 출세를 위한 경쟁에 청춘이 짓눌리는 야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경험은 개인적일지라도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은 거의 대다수에게 보편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보편적 공간에서, 올티는 튀어나온 몇몇 못 가운데 하나였다. 학창 시절부터 안양과 홍대 놀이터를 오가며 사이퍼와 프리스타일이 벌어지는 곳마다 모습을 비쳤던 그는 이미 그 재치와 실력이 자자했다. 허클베리피와 JJK의 지지를 받으며 언더그라운드에 발을 디뎠던 그는 이내 장르 썬의 유망주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성공이 서서히 보이던 시점에서 올티는 도리어 솔직해지기를 택했다. 학생과 MC로서의 커리어를 병행하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에게는 '랩스타'도, '언더그라운드 킹'도 아직은 요원해 보였다. 성찰의 끝에서 올티가 내린 결론은 자신은 '그냥 랩을 하는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정우성'이라는 것이었다. 특별함을 향해가던 시점에서 찾은 보편, 이 지점에서 앨범은 시작된다.

앨범의 인트로인 "굴레" 속 화자는 사실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다. 특하면 늦잠을 자서 지각하고, 수업 시간마다 조는 인간적인 모습 덕에 그는 청자에게 더욱 정겹게 다가온다. 프로듀서 스코어(SCORE)는 그런 올티를 위해 경쾌한 건반 사운드로 '학생 정우성'의 나른한 데일리 루틴을 감각적으로 재구성해낸다. 흥미로운 점은 이 늦잠의 원인이 앨범의 끝자락인 아웃트로에서 제시된다는 것이다. 아티스트로서의 고뇌와 새로운 다짐이 그 이유였음이 드러나는 순간, 가상의 화자 위로 올티 본인의 모습이 겹쳐지며 캐릭터는 비로소 생명력을 띠게 된다. 학생이자 MC인 올티는 친구들에게 말한다. 입학한 모두에게, 서툴렀더라도 일단 첫걸음을 떼고 자기답게 달리라고. 어느 방향으로 뛰는 마라톤이건, 완주하기 위해서는 결국 출발을 해야 하니까. 기린과 프랙탈, DJ 플라스틱 키드는 앨범 [사랑과 행복]에서의 익숙한 조합 그대로 따스한 뉴 잭 스윙을 선보이며 새내기들의 시작을 응원한다. "첫걸음"에서 모두에게 용기를 건네던 올티는, "31035"에서 스스로의 생활로 기꺼이 모범을 보인다. ADV 크루의 절친한 동료인 갱자(gj)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변주, 그리고 동급생 학우들의 푹푹한 코러스 위로 올티는 자신의 학번을 외치며 자신이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방식에 대해 웅변한다. 나다운 삶을 살며 자신의 꿈으로 수렴해가는 나날들, 인생의 '푸른 봄'을 지나며 드러내는 그 순수한 열정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짙은 미소와 용기로 다가온다.



물론, 학교생활이 오직 꿈을 향한 질주로만 채워지는 것 또한 삭막한 일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앨범 [졸업]의 곳곳에는 학창 시절의 낭만을 자극하는 순간들이 여럿 존재한다. 10대이기에 가능한, 미숙하지만 풋풋한 첫사랑에 가슴 설레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한순간, 혈기를 못 이겨 드러내는 뜨거운 반항기까지. 앨범 [졸업]의 허리는 청춘극을 대표하는 순수한 장면들로 채워진다.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시 올티와 함께 10대 시절을 보내던 동년배 뮤지션들의 목소리다. 이들의 참여는 앨범이 추구하는 세계관의 밀도를 영리하게 채워낸다. "설레"의 연애편에서 백예린의 보컬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첫사랑의 풋풋한 설렘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맛이 요구되는 부분도 공존한다. JAY-Z의 명곡을 오마주한 "96 Problems"는 차메인과 던탈릭이 서로 다른 결의 랩 스킬을 뽐내며 앨범에서 가장 혈기 방장한 트랙으로 완성되었다. 학생과 MC의 삶을 살아가는 세 동갑내기가 자신의 생활을 전시하며 '누구도 우릴 가르칠 수 없다'라고 으스스대는 모습은 사춘기 특유의 뽐족함이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설레"의 멜로 우한 로맨틱함과 장난기마저 느껴지는 "96 Problems"의 로킹한 사운드, 이 상반된 두 트랙 모두에 당시 올티와 같은 레이블이었던 그루비룸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스코어, 키마 등 선배들의 조력을 받는 위치였지만, 그루비룸이 지닌 대중적 감각과 넓은 스펙트럼은 커리어 초기부터 꽤나 탄탄했음을 알 수 있다. 올티 스스로도 "연결고리"로 일약 스타가 된 프리마 비스타의 흥포한 트랩 프로덕션이 더해진 "OLL' Skool"에서 성적, 진학 용어와 교과목들을 응용한 빠곡한 편치라인, 난폭한 엇박 그리고 타이트한 라이밍을 통해 선배들마저 제쳐 버리겠다는 패기와 야망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어쩌면 "OLL' Skool"에서 "96 Problems"로 이어지는 구간이야말로, 학교와 거리를 오가며 배틀 래퍼로서의 정체성을 다져온 올티의 공격적인 면모를 가장 잘 대변하는 대목일 것이다.

"결석"을 기점으로 앨범의 톤은 급격히 어둡고 무거워진다. 왕따와 학교폭력이라는, 학교생활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올티는 Odd Future의 향이 물씬 풍기는 갱자의 호러코어 비트 위에서 예리한 필치로 묘사해 낸다. "결석"에서의 올티의 관점은 방관자에 가깝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었기에, 우리 대부분이 결국엔 방관자가 되기 쉬운 현실을 올티는 차갑게 짚어낸다. 결국, 모두의 외면 속에서 어느 왕따의 책상은 빈자리가 되고 만다. 모두의 무관심과 무심함이 낳은 비극이다.

올티는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사연들을 다루기 위해 SNS를 통해 실제 학생들의 사연들을 수집하였고, 이는 전술한 "결석"은 물론 "Fallin"의 주제의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직전의 스킷에서 입시를 앞둔 누군가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고, 이것이 그대로 그루비룸이 주조한 서글픈 건반과 앰비언트한 드럼이 울려 퍼지는 "Fallin"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중의적 표현과 편치라인에 능한 올티의 강점이 여기에서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비극적으로 적용된다.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시험에 낙방했다는 뜻으로도, 성적을 비판해 투신했다는 뜻으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아티스트인 만큼 입시 미술에서 겪는 개성과 꿈에 대한 위축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조금 더 보편적인 입시생들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결국 압박을 못 이겨 삶을 버리려는 상황에서 '뛰어놀아, 뛰어내리지 말고'라며 절규하는 올티의 모습은 위로 이상의 공감으로, 고통에 대한 진솔한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크루셜스타의 차분한 보컬은 선배로서, 후배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의 층위를 한층 더 두텁게 쌓아 올린다. 앨범 [졸업]에서 가장 빛나는 음악적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추락'의 고통을 노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청춘들이 마주치는 상황이 때때로 극한의 경쟁 속에서 비극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씁쓸한 방증이기도 하다.



지루했던 나날도, 설레던 나날도, 뜨겁던 나날들도, 여러 문제로 괴로웠던 나날들도, 결국 졸업과 함께 '학창 시절'이라는 말 한마디로 건조하게 정리된다. 이런 차가운 이별이 자못 아쉬워서였을까, 올티는 "졸업 (이젠 안녕)"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졸업식 레퍼토리를 꺼내 들었다. 공일오비(015B)에게서 비롯된 익숙한 후렴구, 그 사이로 올티는 학교에서의 추억을 돌아본다. 등교하고, 수업 듣고, 친구들과 놀고, 그 일상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길 바랐던 하루하루는 이별의 순간 앞에서 이제 도리어 아쉬워진다. 그저 언젠가 지워질 추억을 책상 위에 새기고, 학교 종소리가 들리지 않을 낯선 곳을 향해 새로운 첫걸음을 떼러 나아갈 뿐이다. 어떠한 시간의 끝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일 테니까. 앨범 초반에 등장했던 트랙인 "첫걸음"의 초기 스케치로 앨범이 마무리되는 것은 그렇기에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졸업]은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10대들의 회로에락이 가장 뚜렷하게 담긴 앨범이다. 올티는 분명 평범한 삶에서 튀어나온 못이었으나, 되려 이 보편적인 감정들을 탁월한 언어와 잘 단련된 랩으로 청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아마도, 앨범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리라. 입시 경쟁에서 졸업, 새 출발로 이어지는 앨범의 최후반 전개에서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졸업은 유년기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다. 올해도 수많은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고, 이 과정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설렘을 찾아내고, 때로는 경쟁 앞에 번민할 것이다. 이 모든 청춘에게 말하고 싶다. 부디, 자신다움을 지켜가기를. 삶이 짓누르더라도, 쉽사리 모든 것을 저버리지 말기를. 그리고, 언제나 뜨겁게 나아가 바라던 스스로에 한없이 수렴해가기를. 2015년의 어느 소년이 뻗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가벼이 들리지 않는 이유다.



[졸업]

올티

① 굴레 ② 첫걸음 (feat. 기린, DJ Plastic Kid) ③ 31035 ④ 설레 (feat. 백예린 of 15&) ⑤ Skit : 점심시간 ⑥ OLL' Skool ⑦ 96 Problems (feat. 차메인, Don Malik, DJ KEND-RICKX) ⑧ 결석 ⑨ Skit : D-100 ⑩ Fallin' (feat. Crucial Star) ⑪ 졸업 (이젠 안녕) ⑫ 첫걸음 gJ ver. (feat. Evo)

BEST TRACK ③ 31035 ⑦ 96 Problems (feat. 차메인, Don Malik, DJ KEND-RICKX) ⑩ Fallin' (feat. Crucial Star)

DATE 2015.02.25

Editor Alonso2000





FEATURE

야 됐어,



우리끼리 할게

힙힙

editor writersglock

그래 절대로 내 평생 이 노래 속 내용대로
될 수 없대도 난 또 계속 해서 외쳐대.
그럼 언젠간 행복의 꿈도 샘솟겠지.
노래 제목 그대로 개혁의 그 날이 오면...
화나 "그날이오면" 中



모두 기억해 이 싸움, 저 업체인사들과의
어깨인사보다 중요한건 개인 사고방식
잘못 다시 바로잡기 전엔 여전히 오지 않는 그 날
오지 않을 그 날
화나 "가족계획" 中



뻘한 얘기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했던 이야기다. 한때
어떤 이들은 서로 이 문제로 피가 터지게 싸웠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도 다 '그땐 그랬고 지금은
이래'라고 말한다. 분명 힙합은 예전
보다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힙
합을 듣는 이들이 늘어났고 힙합을
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몸집이 커진

래퍼들은 큰 공연장을 관객으로 가득 채우고, 케이팝은 힙
합을 차용해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음원 차트에는 힙
합이 심심찮게 보이며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도 힙합
이 하다 못해 한 곡은 꼭 있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
만) 사람들은 이찬혁을 등에 업고 '무엇이 힙합인가'를 논
한다. 힙합씬에서부터 발생한 밈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도
퍼졌다. 이제 대중에게 힙합은 낯선 무언가가 아니다. 그
렇다면 화나가 고대하던 '그 날'은 과연 온 걸까?

이 글은 분명한 계기를 가진다.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 만
연하게 퍼져 있는 '힙합 혐오'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사용
한 '이찬혁을 등에 업고'라는 표현은 이런 세태에 대한 조
롱적 표현이다. 그들은 힙합에 대해 어떤 명확한 스탠스
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심지어 알고자 하지도 않으면
서) 그저 입지 큰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혐오를 일삼는다.
이찬혁의 '그 문장'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뱉어졌는지는 상관없다. 한 번이라도 더 혐오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랴. 그들에게 힙합은 그저 심심할 때
꺼내서 한 번씩 꺼내서 주무르고 구길 수 있는 스트레스
볼이다.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반응을 보는 것까지 재미있
는, 살아있는 스트레스 볼.

그러나 지금 이 글에서 그런 대중을 무지몽매하다 가정하
고 계몽하기 위해 힙합의 우월성과 위대함을 찬양하려는
것은 아니다. 분명 힙합을 사랑하고 그렇기에 2년 넘도록
이 매거진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힙
합에 그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시선에 부정적으로 부딪혀봐야 그들의
프레임만 강화하는 꼴이다. 이 글을 읽고 있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결과다. 그렇다면 이 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분명 이 글의 첫 시작은 조롱에 대한 분노로 시작
했지만 긴 숙고를 거쳐 결정된 이 글의 논제는 '힙합은 대
중적이어선 안 된다'이다. 이 무
슨 사고의 흐름



이란 말인가. 힙합을 욕하는 대중에 분노하다가 갑자기 힙합이 대중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자자, 손에 든 거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 적어도 힙합 안에 있는 우리 서로끼리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은가.

[DETOX]를 발매하기 전 빌스택스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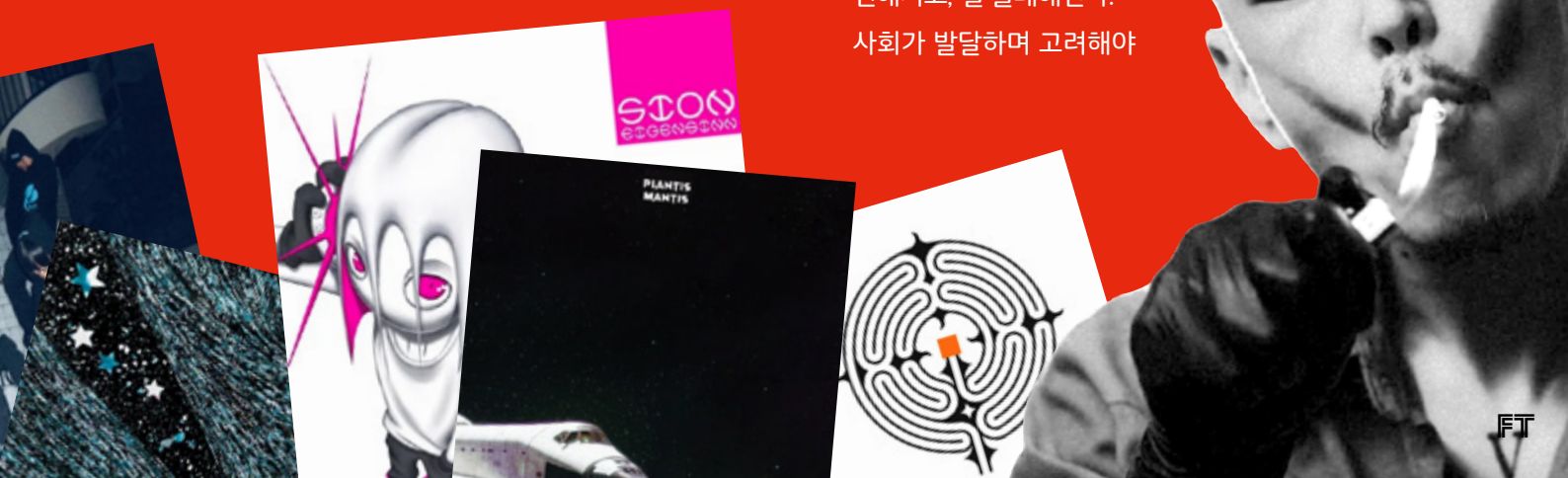
**‘그냥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가치를 매기기도 힘든 작품이 쏟아져 나왔던 2020년, 그 가운데서도 [DETOX]는 어떤 의미에선 가장 논쟁적인 작품이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마약을 주제 삼은 앨범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빌스택스 자신도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앨범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과격하게 대마초를 옹호하고 격려할지 기대했다. 그런데 정작 내용 그 어디에서도 대마를 장려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빌스택스와 그의 친구들이 취해 즐겁게 노는 모습, 빌스택스의 인간적 외로움 등이 담겨있었을 뿐이었다. 보여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DETOX]를 한결 세련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대했던 대로 대마의 긍정적인 효과, 합법화해야 할 이유 등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장려했다면 그보다 나쁠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그가 말했던 대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리스너들은 심리적 장벽을 자연스레 낮추고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 [DETOX]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리스너들의 국힙 트랩 명반 리스트의 단골 앨범으로 얼굴을 비추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우리끼리 즐겁게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것이다.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 몇 년은 정말 풍족했다고 생각한

다. 귀가 심심할 틈이 없었을 정도다. 당장 작년부터 올 해만 보더라도 씬에는 정말 과감하면서도 걸출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열해보자면 에피의 [E], 이케이의 [YAH0], 몰디의 [Kpop Addict], 비프리와 허키 시바세키의 [Free Hukky Shibaseki & the God Sun Symphony Group : Odyssey.1], ASIAN PERIOD의 [BLACK PEARL], 시스템서울의 [SS-POP], 머쉬베놈의 [얼], 시온의 [eigensinn] 그리고 이번 매거진에 실린 [Plantis Mantis]와 [LIT]까지. 이 밖에도 수없이 많다. 겨우 추리고 추려서 이만큼이다. 아마 다 꼽았으면 한 쪽을 모두 할애해도 모자랐을지도 모른다. 나열한 작품들은 무엇보다 그 과감함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고, 또 받고 있기도 하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흘러 넘치는 지금, 대중성을 좇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는 자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중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힙합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힙합을 우리끼리만 하자니, 이 무슨 어불성설인가. 아티스트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우선 ‘일반 대중’이라는 것의 특성을 정의해보자. 이들은 듣기 편한 것, 보기 편한 것을 좋아한다. 많은 생각을 요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뚜렷한 의견을 가지기보다 권위를 가진 이의 의견에 편승할길 선택한다. 그렇기에 대중성이란, 듣기 편하고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보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성질을 뜻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은 ‘대중 문화’가 되고, 그렇지 못한 소수의 것들은 ‘하위 문화’가 된다. 그리고 대중 문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해지고, 덜 불쾌해진다. 사회가 발달하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중성은 점차 무결성과 동일한 성질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힙합은 일반 대중과 융화되기 매우 어렵다. 솔직하고 본능적인 자기표현을 추구하는 최근의 힙합은 더욱 대중과 화합하기 어렵다. 힙합을 듣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거 한 번 잡썬 봐'라며 [YAHQ]를 떠먹여본다고 생각해보라. 아무리 이 앨범이 왜 좋은 앨범이고 장르가 어떻고 어떻게 들어야 하고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MollyWorld"의 털 4연타를 듣고 나면 이 앨범을 뱉어낼 수밖에 없다.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하위 문화, 서브컬처란 대개 그렇기 때문이다. 서브컬처에는 충위가 존재한다(음악이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빙산으로 표현한 도식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어떤 충위까지는 일반 대중들이 소화하기에 무리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일반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야 너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못 느껴?'라며 억지로 쑤셔 넣을 것인가? 그랬다면 이들이 소화했던 것들마저 게워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부정적 여론은 서브컬처를 더욱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것이다. 전혀 건강한 방향이 아니다.

그렇다면 힙합은 대중성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않다. 우리가 소위 '감성 힙합'이라 부르는 부류는 대중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말랑말랑한 프로듀싱, 달콤한 가사, 부드러운 멜로디 등 대중이 싫어할 수 없는 요소들로 만들어졌으니 아마도 힙합 가운데서는 가장 대중적인

카테고리가 아닐까? 비프리의 "네르갈"이 음원 차트 탑100에 오르는 것보다는 지스트의 "처음 마주쳤을 때처럼"이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두 곡 모두 훌륭한 곡이지만 장르팬인 본인 입장에서는 "네르갈"이 차트에 오르기를 더 바란다. 그리고 "네

르갈"이 차트에 오르는 것이 가능해진 때가 아마도 화나가 말했던 '그 날'이 온 때일 것이다. 물론 '그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감성 힙합은 계속해서 힙합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성 힙합이 힙합의 장르적 성취를 고취시키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물음표가 남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성 힙합은 힙합의 장르적 성취와는 거리가 먼 카테고리라고 생각한다.

단정지어 말하자면, [YAHQ]를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거부감 없이 들을 거라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투와 UGP의 [Human Tree]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 장르적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지만, 이 앨범이 지향하는 소비층이 모든 대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이 대중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르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대중을 지향하지 않을 때 장르적 성취가 비로소 가능하다고도 생각한다. 물론 아티스트 입장에서 내 노래를 많은 이들이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나 하위 문화에 속하는 장르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하위 장르를 주특기로 삼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대중성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건가? 힙합과 대중성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관계인 것인가? 화나가 노래한 '그 날'은 결국 불가능한 미래인 것인가?

대중을 끌어들어야 한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쫓게 해라'라는 썬의 격언으로 남은 가사처럼 대중이 힙합을 쫓게 만들어야 한다. 대중을 향하느라 힙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요소를 잊어서는 안 되고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즐겁게 나를 표현하는 음악이 힙합인데, 모두의 사랑을 받으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힙합성'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지 돈이나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기 표현이라



는 중요한 힙합성을 놓치게 된다면, 그저 그런 대중음악과 힙합의 차이가 무엇이란 말인가. 쇼미더머니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다.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만들어내는 음악은 대중음악에 가깝다. 연말 분위기, 감성, 차트 따위의 것들을 신경 쓰다 힙합성을 잃어버렸다. 이제 힙합은 더 이상 이런 쇼미더머니에 기댈 수 없다.

하위 문화일수록 정수, 근본, 본질 따위의 것들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힙합은 이와 같은 힙합 혐오의 시대에 더욱 힙합이어야 한다. 집중할 때다. 바깥에서 던지는 돌에 일일이 반응할 때가 아니다. 혐오는 오래 가지 않는다. 다른 먹잇감이 생기면 모두들 그리로 우르르 몰려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기회다. 힙합만이 가지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 매력이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지, 사람에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다.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만들어 사람들이 힙합을 찾도록 해야 한다. 매캐한 지하 클럽에서 모수핏하고 레이브하는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밤을 세워 적어낸 진심을 담은 가사에 그들의 가슴이 울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모두의 사랑은 받지 못할지언정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케이가 '눈치 안 볼래, 재미있게 놀래'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끼리 더 재미있게 힙합을 해야 한다.

'그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솔직히 모른다. 그러나 '그 날'은 힙합의 이상이다. 이상은 모두가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도 이상은 그 가치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날'은 어떻게든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 날'이 올 것인가가 아닌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다. 힙합 고유의 것을 모두 거세당한 상태로 맞이할 것인가, 온전하고 생생히 살아있는 힙합으로 맞이할 것인가. 당신은 그 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무리 힙합 위기론이 불거지고 힙합이 변했다고 말이 많아도, 대중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어도 아직 힙합은 건재하다. 계속해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 이 글을 쓰는 본인, 그리고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본인의 글을 읽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 주체의 선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상 힙합은 살아 숨쉴 것이다. 그러니 다 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하면 된다.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게 하면 된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된다. 여기를 그 어느 클럽보다도 즐거운 클럽으로 만들면 된다. 음악이 끊이지 않고 디제이는 디제잉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레이브를 멈추지 않는 그런 클럽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 멀뚱하니 서 있는 당신, 그리고 거기 욕하는 당신, 우린 지금부터 존나 재미있게 놀 거니까 따라올 거면 따라와. 먼저 가 있을게.



r/ss

씨의 탄생을
지켜보고
싶다면,

이 레이블에
주목해야 한다.

editor WestCastle

비와이와 해쉬스완은 각자의 목소리가 갖는 특성이 다르고, 선호하는 라임 배치 패턴과 장르도 다르다. 래퍼의 스타일은 여기서 생긴다. 이와 완벽히 같은 이유로 각 연주자들도 잘 구사하는 사운드와 장르가 나뉜다. 그러니 크레딧에 보였던 연주자가 계속 보이는 이유는 곡에 포함되길 원하는 사운드를 그 사람이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힙합 음악에 드러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장르를 잘 이해하는 동시에 내가 원하는 드럼 사운드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게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사운드와 가까운 스타일을 구사하는 힙합 앨범의 크레딧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름 중 본인이 생각하는 소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협업 요청을 보내게 될 것이다. 피처링 래퍼를 구할 때, 이 사람이 이 비트에 피처링을 해준다면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청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래퍼를 기술자가 아닌 뮤지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연주자들도 기술자가 아닌 한 명의 뮤지션이다.

연주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힙합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가령 쿤디판다의 [The Spoiled Child : 군], 언텔의 [Paradise Syndrome] 같은 앨범의 크레딧에서 수많은 연주자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넥살은 아예 즉흥연주 밴드인 까데호와 협업하여 앨범을 만들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디깅하는 과정에서 프로듀서까지 주목하는 경우는 있어도 연주자까지 주목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불어 음원 플랫폼에서 작곡, 작사, 편곡 크레딧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연관 정보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지만, 연주자는 어떤 앨범에 연주로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비교적 힘든 편이다. 앨범의 크레딧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야 이 사람이 연주했다는 것을 가까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동료 뮤지션들은 연주자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사라웃해 왔으나 연주자들은 늘 스포트라이트 바깥으로 밀려났다. 종종 인디 밴드 팬덤에는 밴드 멤버를 '세션'으로 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세션이라는 단어를 음악에 관여하지 않고 연주 기술만 더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연주 행위 자체에 음악성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다루는 행위를 단순 기술로 인지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레이블이 씨를 만들겠다고 들고 일어났다. 리듬소망사랑과 소울딜리버리가 그 주인공이다.

리듬소망사랑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신드럼과 하은 부부는 스튜디오와 자택을 하나로 합친 RSS HOUSE를 지었다. 지하에서는 악기 연주를 포함한 녹음을 할 수 있고, 1층에는 로비처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2층은 사적인 공간으로 되어있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RSS 잼세션>을 통해 연주자들을 한데 모았으며, 공연 브랜드 <RSS HOUSE PARTY>를 통해 뮤지션과 팬들을 한데 모아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있다. 그밖에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인 <RSSpharmacy>, 폴리마켓 <소망시장> 등 음악 외적인 일로도 RSS 하우스를 방문할 동기를 만들고 있다.

한편 RSS 하우스 바깥에서는 장르 음악 매니아를 노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리듬소망사랑 소속 아티스트인 소울딜리버리는 서울에서 한남동 소재 레코드샵인 TW레코즈와 손을 잡고 파티 브랜드인 <SOUL NiGHT>를 개최했고, 나중에는 댄서들과 손을 잡으며 함께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이 표방하는 길은 <RSS MUSIC FESTIVAL>을 통해 가장 잘 엿볼 수 있다. <RSS MUSIC FESTIVAL>은 헤드라이너 없이 모두가 같은 라인업임을 표방하는 페스티벌로 그 어떤 투자도, 도움도 없이 시스템 바깥에서 리듬소망사랑이 홀로 만들어낸 페스티벌이다.

그 밖에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펼친 리듬소망사랑과 소울딜리버리의 행보는 아주 명확하다. 기존 시스템 바깥의 사람들을 계속 모아 동료로 만드는 것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철학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그런 관점에서 소울딜리버리의 국내 투어인 <NEW WAVE TOUR>의 투어리스트는 꽤 재미있는 구성이다. 블루노트 플레이스를 포함한 메뉴에서 일본 투어를 마친 뒤 부산부터 국내 투어를 시작했는데, 수도권 서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서브컬처로 시작해서 최후에는 메인스트림이 되겠다는 야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역사적으로 인디펜던트 뮤지션은 시스템 바깥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가장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인디펜던트 레이블 역시 같은 정신을 공유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듬소망사랑과 소울딜리버리는 인디펜던트라는 이름에 걸맞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뮤지션 중 하나다. 모든 창작활동, 매니지먼트, 에이전시의 역할까지 뮤지션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80년대에 태어나지 못해 한국 힙합 씬의 탄생을 놓쳤는가? 혹은 90년대에 태어나지 못해 웹툰과 웹소설, 보컬로이드와 우타이테 씬의 탄생을 놓쳤는가?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씬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전부는 모르지만 하나는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리듬소망사랑과 소울딜리버리가 만들 것이다.



2 0 2 5

YIIR

YEAR IN REVIEW

어느덧 2025년의 끝을 맞이하고 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블랙뮤직 앨범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고, 씬을 뒤흔들었으며, 귀를 즐겁게 채워주었다. 그중 HAUS OF MATTERS 에디터들이 듣고 고민하여 선정한 약 40장의 앨범을 2025년의 마지막 매거진에 정리해 보았다. 적지 않은 수의 앨범을 추려냈음에도 끝내 담지 못한 뛰어난 작품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올해 한국 블랙뮤직 씬이 얼마나 풍성하고 치열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부디 이번 결산이 독자 여러분의 2025년 블랙뮤직 여정을 차분히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 사이 발매된 블랙뮤직 앨범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선정했다.

2026년에도 멋진 앨범들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APGU]

나우아임영, 수도

① AH [prod by SUDO] ② Early Morning Freestyle [prod by SUDO] ③ ME N ME [prod by SUDO] ④ pick N choose [prod by SUDO] ⑤ SWAGGER [prod by SUDO] ⑥ POP OUT (feat. DADA) [prod by SUDO] ⑦ APGU [prod by SUDO] ⑧ BREATHE [prod by SUDO] ⑨ 4 YOUTH [prod by SUDO] ⑩ BAD [prod by SUDO] ⑪ BAD Remix (feat. MILLENNIUM, HIRA) [prod by SUDO]

DATE 2024.12.25

[APGU essential]

나우아임영

① AH AH (feat. 식케이 (Sik-K)) ② I'M LIKE ③ GIRL FRIEND ④ MISS AV

DATE 2025.04.30

압구정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자 젊고 럭셔리한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곳이다. 동시에 래퍼 나우아임영과 프로듀서 수도에게 꿈의 계기가 되어준 곳이기도 하다. [APGU]는 이들이 꿈을 가꿔온 과정을 담고 있다. 압구정을 우려했던 2010년대 초를 시작으로, 나우아임영은 언제나 추구해 온 성공과 반짝이는 삶에 대한 열망을 노래한다. 당시 유행했던 일렉트로닉 댄스뮤직을 하이퍼팝으로 재해석한 수도의 프로덕션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음악부터 뮤직비디오까지 그 시절의 감성과 세련미를 마음껏 드러낸 작품은, 화려한 도시가 낳은 성공을 향한 소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통했을까. 이후 나우아임영은 레이블 KC에 영입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입단작과도 같은 디럭스 버전 [APGU Essential]은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동시에 복고적 기류를 더욱 강화해 그 꿈의 근원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역할로도 기능했다.

Editor loding



[K-FLIP]

식케이, 릴 모쉬핏

① K-FLIP ② KC2 (Feat. HAON & JMIN) ③ LALALA (Snitch Club) ④ INTERLUDE ⑤ SELF HATE (Feat. 호미들) ⑥ PUBLIC ENEMY (Feat. 노윤하 & Wuuslime)

DATE 2025.01.08

[K-FLIP+]

식케이, 릴 모쉬핏

⑦ MADE IN KCOREA (1TAKEBAR) ⑧ LOV3 (Feat. Bryan Chase & Okasian) ⑨ NEW ANTHEM (Feat. PENOMECO) ⑩ PUBLIC ENEMY REMIX (Feat. 장모 & ZICO)

DATE 2025.03.17

도메스틱이 정점을 찍으면 글로벌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K-FLIP]을 들으면 이 문장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 분명 한국의 음악을 재구성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도는 국적을 초월한 쾌감을 제공한다. 릴 모쉬핏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트 프로덕션과 그 비트를 완벽히 이해한 식케이의 퍼포먼스는 완벽한 마리아주를 이룬다. 특히 [K-FLIP+]의 “MADE IN KCOREA”에서 보여준 식케이의 퍼포먼스는 과장 조금 보태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여러 리스너의 AOTY로 언급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 오죽하면 올해의 앨범 경쟁은 [K-FLIP] 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이들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다. 최근 열린 장충체육관에서의 단독공연까지 순식간에 매진시켜 버린 식케이 사단. 이들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날이 가면 갈수록 기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Editor writersglock



[NEW W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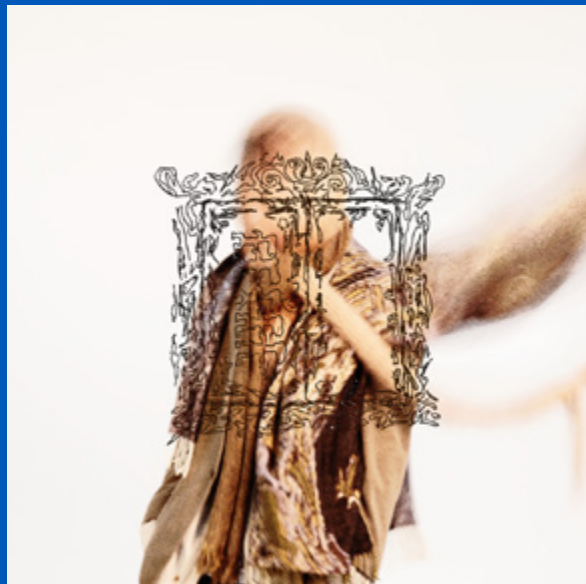
소울 딜리버리

① Intro ② FORTRESS ③ YON ④ Soundcheck 4 ⑤ Forget Me NOT! (with dePresno) ⑥ 자유로 ⑦ Daydreaming (with THAMA) ⑧ NEW WAVE (with Q the trumpet) ⑨ Soundcheck 5 ⑩ Heatwave (with LAZYKUMA) ⑪ oldmanstreet (with Yechan Kim) ⑫ Soundcheck 6 ⑬ oowee (with Horim) ⑭ Paradise

DATE 2025.02.21

음악에 음악가의 경험이 반영되는 것처럼 즉흥연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는 잼밴드의 음악에도 경험이 반영된다. 어떤 관점에서는 더 강렬하게 반영된다. 공연을 위해 방문한 도시에서 보았던 풍경, 공연 전에 들었던 가게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 공연장에 들어서 마주한 관객의 반응 등을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요리하기 때문이다. 조금 미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영감받은 땅의 기운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소울딜리버리의 [NEW WAVE]는 가장 한국적인 잼 음반이다. [NEW WAVE]에는 이국적인 소리도, 해외 뮤지션을 레퍼런스 삼은 곡도 없다. 한국인 4명이 라이브를 위해 들렀던 한국 도시의 풍경을 소리로 빚어 있는 그대로 전시할 뿐이다. 피쳐링으로 참여한 유일한 외국인인 데프레스노의 탑라인조차도 철저히 '서울'이라는 맥락 안에서 진행된다. 이들이 일으키려는 '새로운 물결'은 무엇인가.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앨범이다.

Editor WestCastle



[NONG]

신지향

① NONG ② 골짜기 ③ 이름 ④ FACES ⑤ DUCK TO CONDOR ⑥ SLOW ⑦ BREATHE (Feat. Fisherman) ⑧ END OF THE WORLD (Feat. Yescoba) ⑨ 전단지 ⑩ 4LETTERS ⑪ SEOUL2 ⑫ FRIENDS (Feat. FRIENDS) ⑬ I'VE FOUND YOU (Feat. hiko) ⑭ AS MUCH AS WE WANT ⑮ OUTRO.

DATE 2025.02.26

AP 알케미 컴필레이션 앨범 참여와 저스트뮤직 입단을 기점으로 리스너들에게 존재감을 내비치기 시작한 신지향. 그의 첫 정규 [NONG]에서는 의외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이전에도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보컬리스트이자 프로듀서로서의 모습이 더욱 부각된다. 소년미 있는 음색의 싱어는 편안한 인상을 주며 앨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끈다. 직접 세션 연주를 더해 구현한 프로덕션 역시 따스하고 가벼운 무드를 기반으로, 몽글몽글함과 강렬함을 오가는 다채로운 사운드로 각 곡의 색깔을 뚜렷하게 만든다. 이렇게 번뜩이는 재능은 '사랑을 탐색하는 여정'을 그리는 도구로 쓰인다. 앨범은 자기소개에서 출발해,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건네는 이야기로 확장된다. 나아가 전체가 순환하듯 이어지는 구성으로 '사랑의 순환'이라는 메시지도 담아낸다. 신지향이 바라본 사랑의 농도는 얼마나 짙었을까. [NONG]은 마치 장롱 속 두꺼운 이불처럼 포근하게 우리의 마음을 녹여낸다.

Editor loding



[(concept)]

오딘

❶ CONCEPT KILLS ❷ I DON'T KNOW HOW TO SAY THIS ❸ PITY BOY (feat. sokodomo) ❹ INTO THE DEN ❺ BACKWARD ❻ CLEAN WAY ❼ LEAVE THE TOWN ❽ FOR YOUR LOVE ❾ MORNING CHATTER ❿ GLITTER LIQUOR ⓫ NEVER SOBER ⓬ HARD TO PLAY ⓭ RUNNING OUT ⓮ CAN YOU DESCRIBE IT? ⓯ PINKY RING

DATE 2025.02.28

‘그냥’이라는 말이 너무 비싸다. “앨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어. 그냥 만든 거야.” 그래서 단순히 전개하며, 그냥 죽이고 본다. “CONCEPT KILLS”로 시작하는 오딘은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는다. 화도 탄식도 불안도 섞여 있지만 전개는 의식도 대전제도 뚜렷하지 않다. 오딘에게 일렉트로닉과 힙합의 조화는 익숙하지만, 무심한 톤으로 내뿜는 삶의 가타부타에는 길고 짧은 소회가 내비친다. “왜 피하고 사냥 말들에 닥치고 살았어”. “어쩔 수 없다면 가져갈게 내걸”. “이해는 노력, 납득은 습관으로 와닿지”. 턴테이블이 뒤집히며 객원 아티스트들이 한마디씩 거두고 퇴장할수록, 암전하고도 무던히 번지는 오딘만은 작품의 주체로서 더욱 존재감을 또렷이 드러낸다. 플롯과 시나리오가 튀어 오르고, 음악과 메시지가 경계를 잃으며 뒤섞인다. 목표하지 않고 빌려오지 않는, 오직 나에게서 나와 나로서 완성되는 음악. 무엇도 겨누지 않고 있기에, 말하지 않는 힘이 불쑥 다가온다.

Editor 에리



[ANIMAL FKRY]

바이스벌사

❶ BACK IN THE GAME ❷ FAQ ❸ THE WOODS ❹ DOGGIE HOLA ❺ WOL-FY ❻ NIGHT VISION ❼ NEON LIGHTS ❽ IF I DIE

DATE 2025.03.03

인간다운 삶. 짐승다운 삶. 삶을 서식환경으로, 논리를 먹이 사슬로 빚대는 표현은 다소 진부하지만, 랩의 디자인과 퍼포먼스 모두를 짐승 그 자체로 의인화시킨 바이스벌사에겐 하나뿐이자 곧 전부인 옷이나 마찬가지로. 앨범은 믹스테이프의 진취에 연이어 비슷한 전개로 진행된다. 포문을 열자마자 날것의 분노와 비탄을 모조리 배설한다. 인간만도 못한 개와 돼지 같은 존재를 겨누며 돌리는 화살촉은 곧 자조적으로 변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질주와 질주를 거듭해 도착한 막바지는 마침내 낭떠러지에 내몰린 채 세상을 내려다보는 구성이다. 답습이라면 답습이고 자가복제라면 자가복제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바이스벌사의 굶주림은 믹스테이프으로도 충족하지 못한 욕망 앞의 반항심처럼 부풀어오른다. 그러니 돌아온 그는 다시금 욕망을 다져야만 했다. 전작의 반향으로도 모자란 무기력한 야심과 이상향의 재확인이다. 슬프게도 반년이 더 지나고서도 여전히 입지는 그의 삶을 되돌린다. 정신이 소각당하고 예술의 혼을 되풀이한다.

Editor 에리



[산업현장]

얼라이브 핑크

① Don't try this (feat. 오도마 (O'Domar)) ② 생고생 (feat. dsel, Young Jay) ③ 투울 더힙합피플 (feat. JJK, 딥플로우) ④ 산업현장 (feat. Rohann, 버벌진트 (Verbal Jint)) ⑤ 워커 (feat. Chaboom, Skull, Loopy) ⑥ 숫자 (feat. Ja Mezz) ⑦ 동네 (feat. 스카이민혁, Ambid Jack) ⑧ UnderLine (feat. 오도마 (O'Domar), Bona Zoe)

DATE 2025.04.15

힙합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이에 성공하는 래퍼들이 생기며, 힙합씬은 누구라도 성공을 거머쥔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 또한 가득 있다.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활동해 온 프로듀서 얼라이브 핑크. 그의 씬을 향한 비판적 시각은 [산업 현장]으로 재탄생됐다. 앨범은 전작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프로듀싱에서는 기존의 '연주'에 가까운 작법 대신 루프 기반의 구조와 건조한 질감의 인더스트리얼 사운드를 채택했다. 또한 씬에서 활약하는 래퍼들을 대거 섭외해 씬의 현장감을 더한다. 그렇게 앨범이 전하는 내용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 힙합 씬은 예술이란 상품을 찍어내는 '산업 현장'으로 탈바꿈되며, 플레이어들은 현장의 직원으로서 가지는 냉소 섞인 분노와 체념을 내뿜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들의 외침 속에는 힙합을 향한 애정 역시 고스란히 담겨있다. 즉, [산업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다.

Editor Ioding



[WUUSL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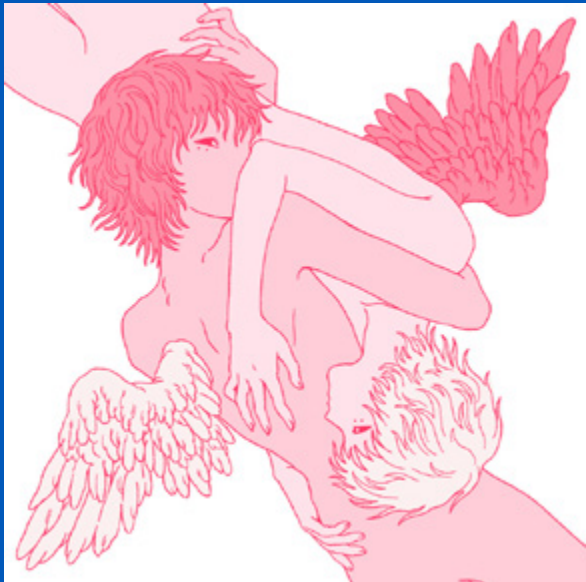
우슬라임

① FREE AGENT (Feat. Royal 44, Krome Lee, KHAN, Yung Blesh) ② NEW LOUIS VUITTON (Feat. KHAN) ③ ZOOTED (Feat. HAON) ④ YADOM (with. Shyboiitobii) ⑤ LIFE IS GUCCI (Feat. 2win Tunna, AP) ⑥ INDEPENDENCE DAY (Feat. Sik-K) ⑦ FLASHBACK (Feat. LEY) ⑧ LIVE LOVE & FLOW (Feat. BILL STAX) ⑨ 2024 DECEMBER FREESTYLE (Feat. The Quiett)

DATE 2025.05.10

존재하는 표본을 빌려오기란 제법 단순하다. 남을 흡수하며 특색을 살리고 보존하면 문화의 문익점이 되고, 변주 없이 훔쳐 오면 말 그대로 도둑놈이 되는 메커니즘이다. 칠린호미, 아니 우슬라임은 무슨 랩이든 무슨 사운드든 바닷물 건너를 바라봐왔기에, 새 이름과 셀프 타이틀 앨범은 좀 더 오랜 비행시간의 산물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관건은 목화숨의 영웅이나, 모욕이나의 구별이다. 장르팬들의 표현으로 더 높아진 우슬라임의 음악은 다분히 호불호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주 논쟁은 난잡하고 의중 없는 가사들이 얹히고설켜 흐물거리는 랩 스타일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지점이다. 킬링 트랙 "YADOM"에서 극에 달하는, 정형화된 트랩 위 몽롱하게 물 흐르는 청산유수 플로우를 곧 새로운 A.K.A.가 겨냥하는 랩 스타일의 극치다. 조금이라도 감흥을 안겨줬다면 이 출국식에 합세하는 편에 가까울 것이다. 아쉬움이 남지만 더 듣고 싶은 랩이라는 결론만으로도 그는 몇몇이 새 이름을 두르고 승리감에 취할 수 있다.

Editor 예리



[EVE: ROMANCE]

비비

❶ 종말의 사과나무 ❷ 홍대 R&B ❸ 몸 ❹ Pygma Girl ❺ 책방오빠 문학소녀 ❻ Sugar Rush ❿ 데레 ❿ Burn It (feat. Dean) ❶ Real Man ❷ 왔다갔다 ❸ 밤양갱 ❹ 한강공원 ❺ 행복에게 ❻ 겨울 (미발매)

DATE 2025.05.14

아마도 본능적인 사랑을 다루는 데 있어 R&B만한 장르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따른다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시점 한국 R&B 주류의 최전선에 비비가 위치해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EVE: ROMANCE]는 이에 대한 최고의 보증이다. "밤양갱"의 아날로그적 순수함부터 "홍대 R&B"의 현실적인 퇴폐미, 창세기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성(聖)과 속(俗)을 자유로이 오가는 "종말의 사과나무", 향수 어린 은유로 섹시한 뉘앙스를 거부감 없이 다룬 "책방오빠 문학소녀"까지. 이를 미려한 음색과 탁월한 표현, 자연스러운 그루브로 구현해 내는 역량은 가히 영민함의 그것이다. FRNK와 딘, 유턴(U-Turn)과 장기하가 공존하는 기이한 크레딧 또한, 성에서 순수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향하는 앨범의 흐름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아니, 어쩌면 위에서 말한 이 모든 양극은 애초에 그녀의 안에서 일체가 되어 잉태되었는지 모르겠다.

Editor Alonso2000



[SS-POP]

시스템 서울

❶ ㅈㅇDㅈ uHhㅈ ❷ 긴발 ❸ 너 ❹ REEunion ❺ 단하나 ❻ ah ah uh uh ❿ SoJUGㅈEK ❿ SS

DATE 2025.05.16

뭐든 음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뭐 맞는 말이라고는 쳐도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싶었다. 시스템 서울은 '이게 돼?' 보다는 '이게 왜 안 돼?'에 집중했다.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음악이지만, 그 소스가 독보적이다. 듣자마자 바로 아는 지하철 안내 방송 같은 소스는 정경다가도, 생판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면 병쩍 채로 듣게만 되는 시간도 있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소식은 많이 접했어도, 생각보다 음악에서 그것을 느낀 적은 없었다. [SS-POP]이 변화하는 생각의 시발점이 될 듯하다.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친숙한 세대가 오면서, 어느 한 아티스트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 손쉽게 추측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다양성을 시스템 서울은 품고 있고, 앨범에 담아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같은 문화를 향유했을 확률이 적어지면서, 도리어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에 대한 친밀감은 커졌다. 음악에 잘 아는 샘플 소스가 사용됐다면, 반가움이 배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시스템 서울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 헤쳐모여!'를 외쳤으니 [SS-POP]에 모일 이들은 그에 응답해 주면 되겠다.

Editor nicolas



[Human Tree]

지투, UGP

① Wizzop (feat. Mike B. & JAEYOUNG) ② Like That (feat. Mike B.) ③ Sustain (feat. JAEYOUNG) ④ 35 (feat. Above Average AL & MDuke) ⑤ Profit ⑥ Trees (feat. Mike B. & Junoflo) (Remastered) ⑦ Karma (feat. Clavita) (Remastered) ⑧ Drips (feat. T'nah & Chelsea Reject) ⑨ Wind Blow (feat. I'MIN) ⑩ Bridges (Remastered) ⑪ Low Tides (feat. Junoflo) ⑫ Borrowed Times (feat. JAEYOUNG) ⑬ Get Money (feat. Mike B. & JAEYOUNG) ⑭ Summer (feat. DOMO) ⑮ DNA (feat. LIFE OF THOM)

DATE 2025.05.23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떠난 이후, 지투는 교포 씬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커리어를 이어갔다. 주노플로와는 지속적으로 협업을 이어갔을 정도로 절친해졌으며, 하이라이트 시절부터 적극 교류했던 Year of Ox와의 인연도 깊어졌다. 지투와는 커리어의 시작부터 함께 해왔던 UGP는 그런 그와 미국 각지를 종횡하며 웨스트코스트는 물론 재즈 랩, 트랩, 심지어 힙키한 팝 랩까지 오가는 다채로운 판을 짜놓았다. 이러한 다양성이 적절하게, 부드럽게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최소한의 소스로 최대의 그루브를 자아내는 UGP의 솜씨일 것이다. 모국어인 영어로 일관하는 지투의 랩 퍼포먼스 또한 기존의 동물적인 움직임과 터프함, 그 이면의 섬세함까지 여느 때보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출하였다. 각지에서 만난, 교포 씬과의 교류까지 부드럽게 스며들며 앨범은 담백하고도 넓은, 두 성취를 모두 수준급으로 이뤘다.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온 콤비의 대표작.

Editor Alonso2000



[TIKTOKSTA]

물리 얄

① MONEY UP ② LADY 9A9A ③ EVERYDAY WAKE UP ④ TIKTOKSTA (feat. SWINGS) ⑤ ROLL OUT ⑥ WET (feat. KID MILLI) ⑦ LUCKY! ⑧ 2025 (feat. LOCO) ⑨ WHAT U THINK ⑩ BURNING SLOW ⑪ NINJA'S BEHAVIOR (feat. GOLDBUUDA)

DATE 2025.05.25

혜성 같은 신인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했던 올해였지만, 그 중에서도 물리 얄은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다. 소셜 미디어 바이럴로 뜬 건가 싶다가도 [TIKTOKSTA]를 듣고 있자면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에 대해 다시금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LADY 9A9A”의 과감한 샘플링 및 파격적 편곡은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능숙하며, 멜로디의 짜임 또한 상당히 중독적이다. 처음 바이럴로 사람들 눈에 띈 트랙 “BURNING SLOW” 또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 중독적 hooks 있었기 때문에 바이럴을 탈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도록 색깔이 뚜렷한 신인이란니. 최근에 발매한 [Yoco]까지 생각한다면 물리 얄이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에 채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Editor writersglock



[살아숨서 4]

염따

① 갓생 ② 욱! ③ 더과이엇 ④ IE러니 ⑤ C.R.E.A.M ⑥ 순정 2025 ⑦ sWing ⑧ Y-3 ⑨ 그때 우리는 ⑩ 마

DATE 2025.06.12

하늘과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뽀은 손바닥이 다시 땅바닥을 짚게 될 때의 심정은 어떠할까. 대기만성형 래퍼이자 썸의 슈퍼스타로 불리던 염따는, 한 해 동안 연이어 터진 논란으로 어느새 ‘나락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후 4년간의 잠적을 끝내고 [살아숨서 4]로 돌아온 그는 많은 대중을 울리며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앨범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그가 지나온 굴곡진 여정을 담아낸다.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가벼운 음악과 유머러스한 라인들은 우리가 알던 염따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작품 전체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낀 열등감, 성공 뒤에 따라붙는 불안감 등 그의 친근한 이미지 뒤에 가려졌던 감정들이 서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작품의 매력은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염따에게 느끼는 감정이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스토리텔링 능력에 있다. 음악가 염따를 만들어낸 [살아숨서]의 강점이 다시 한번 유효타를 날린 셈이다.

Editor loding



[사랑은 노래와도 같이 : Love is a Song] 던말릭, 드비타

① Spinboutu ② 오 와우 ③ White T ④ 춤 ⑤ DAP ⑥ How To Make Love Song ⑦ name cost ⑧ Savio, Draco ⑨ Pornography ⑩ Ew ⑪ Winter is Coming

DATE 2025.06.13

엠비션 뮤직 합류 이후, 던말릭은 기존의 색을 벗어나 더욱 대중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OMG 출신 네오소울 보컬리스트인 드비타와는 여러 차례 협업하기도 했다. 던말릭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둘의 다정한 모습에 열애설까지 돌던 와중, 깜짝 발매된 합작 [사랑은 노래와도 같이 : Love is a Song]에서의 케미스트리는 이에 박는 썸기와도 같았다. LIXX, 권디엘 등 던말릭의 주요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멜로우한 무드 위로 소울풀한 보컬, 멜로딕하되 촘촘한 랩이 병치되며 묘한 조화를 드러낸다. 가사의 미묘한 뉘앙스와 암시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풍문과 맞물리며 앨범에 기이한 사실성과 유기성을 부여한다. 사실이 어땠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 앨범에서 드비타의 보컬은 유려했고, 던말릭의 변화도 제대로 본 궤도에 올랐다. 그것만으로도 리스너들에게는 만족스러운 한상이 됐음직하다.

Editor Alonso2000



[MOLLAK]

재키와이, 방달

① GG ② 1 Coin ③ Choom ④ Wreck Car ⑤ Narak ⑥ Ms. Menhera ⑦ Bungaluetan ⑧ Necrophilia

DATE 2025.07.01

재키와이와 방달의 협업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 매니아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했다. 2024년 KC 입단 발표 이후 뜨거운 행보를 이어간 프로듀서와 한국 힙합 매니아에게 가장 타올 좋은 여성 래퍼의 만남이었으니까. 특히 KC는 하이퍼한 사운드, 그중에서도 레이지 기반의 디스코 그래피가 두드러지는 레이블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예상은 아마 KC스러운 재키와이의 앨범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나 재키와이가 원한 것은 트렌드의 최전선이 아니라 선점으로 보인다. 덕분에 [MOLLAK]은 유럽향 짙은 트랜스와 2000년대 인터넷 문화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 멘헤라 등 2020년대의 키워드가 한자리에서 충돌하며 독특한 매력을 전달하는 앨범이 되었다. [MOLLAK]을 통해 전에 없던 시도를 보여주었으니 "재키와이와 방달의 유로팝 저점매수는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두 사람의 다음 행보가 될 것이다.

Editor WestCastle



[YAH0]

EK

① YAH0 ② MollyWorld (Feat. GV) ③ FLY ④ 초신성 ⑤ Machine ⑥ Back In The Building (Feat. Jeremy Que\$t) ⑦ 아관문 ⑧ SKIT (삼각관계) ⑨ 똑같이 (Feat. 엄따) ⑩ AFTER PARTY ⑪ 엄마잘 ⑫ MR.P ⑬ SKIT (불링불링) ⑭ 해뜰날 ⑮ Religion True (Feat. MILLHAM)

DATE 2025.07.02

앞서 이번 호의 [YAH0 RED]에도 썼던 표현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EK는 신림동 별빛거리에서 밤하늘로 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YAH0]는 그의 열정과 패기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드리프트한 기묘한 작품이다. 한창 SNS에서 바이럴 중인 "MollyWorld"의 '그 가사', "SKIT (삼각관계)"의 '그 긴거' 등, 품위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도파민 대잔치가 앨범 전반에 걸쳐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흐름 안에서도 EK의 랩과 여기에 깃든 이면의 메시지는 선명하다는 점이다. 작품의 후반으로 나아갈수록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의 방향성 또한 명확해진다. 결국 [YAH0]는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앨범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EK가 지닌 솔직함과 본능이 가감 없이 드러난 괴작이자 수작으로 자리한다. 특정 곡의 특정 라인만 부각되어 앨범 전체가 조명받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약간 아쉽다. 올해 발매된 한국힙합 앨범 중에서 가장 또렷한 인상을 남긴다.

Editor 자이즈



[SCRAPS]

로꼬

① work++ ② Dam ③ Eh freestyle ④ OMG (Feat. 1MILL) ⑤ random summer night (Feat. Jordan Ward) ⑥ No where (Feat. Feby Putri) ⑦ radio ⑧ 저절로 (Feat. TOMMY YANG, 4BANG) ⑨ 파파고 ⑩ 다시 (2023) ⑪ Matcha High (Feat. TAI-CHU, Young Coco) ⑫ Skoo / S.A

DATE 2025.07.08

AOMG를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 로꼬의 새로운 앨범 [SCRAPS]. 타이틀처럼 주변에 흩어져 있던 파편을 모아 구축해 낸, 그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순간, 파편들은 쓰레기가 아닌 보석들로 탈바꿈된다. 로꼬는 이번 앨범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기존의 이지리스닝 기반 랩 퍼포먼스에서 한 발 나아가, 개성 있고 다채로운 면모를 선보인다. 국경을 가리지 않는 자유롭고 다채로운 협업 또한 작품의 색을 풍성하게 만들어 낸다.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로꼬식 팝-랩의 단단한 표피가 깨지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매력이 발산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껍질을 벗고 드러난 음악적 속살은 새롭고 연약해 보여 상처가 쉬이 날 법 하지만, 오랜 시간 다져온 로꼬의 뮤지션적 재능은 예상보다 더 단단히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 덕분에 새로이 보여주는 흐름 역시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 익숙함에 스며든 낯섦. 이 지점에서 [SCRAPS]는 로꼬의 또 다른 첫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ditor 자이즈



[LIFE LOVER]

뱃사공

① 다해봤어 ② BOUNCE BACK ③ 개소리 ④ 기지개 ⑤ 년날원해 ⑥ 고독사 2025 ⑦ 뱃맨2 ⑧ 우행시 ⑨ 마흔즈에 ⑩ 하기사러 ⑪ 두근두근

DATE 2025.07.09

‘랩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뱃사공의 [LIFE LOVER]를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LIFE LOVER]에서 뱃사공의 랩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노래에 녹아든다. 화려한 스킬, 치밀한 다음절 라임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도 ‘좋은 랩’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든다. 간결하면서도 타격감 있는, 비트를 완벽하게 해석한 랩이 지금 뱃사공의 랩이다. 단순한 작사법은 이런 그의 랩스타일을 더욱 부각시킨다. 어느 지점에서는 비프리가 연상되기도 하는 그의 랩은 어느 경지에 도달해 버린 듯하다. 그런가 하면 허키 시바세키의 비트는 빈티지만의 세련됨을 한껏 풍긴다. “다해봤어”나 “기지개”, “우행시”, “두근두근”에서 보여주는 둘의 합은 완벽을 넘어선 합일에 가깝다. 오랜 시간 자신들만의 무기를 갈고 닦은 장인들의 하모니가 바로 [LIFE LOVER]의 의의일 것이다.

Editor writersglock



[Where to Begin]

밀레나

① Where to Begin ② Bluejay ③ Foot on the Moon ④ bad handwriting ⑤ read my love ⑥ Coffee Shop ⑦ Piano (feat. Yun Seok Cheol) ⑧ What about Next Spring (feat. Kim Daniel of wave to earth) ⑨ Love with a loneliness ⑩ Subtle Change ⑪ Wrong Way

DATE 2025.07.11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 정대건 <급류>

사랑은 밀물처럼 밀려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만남과 이별의 순환을 겪고 사랑하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들고... 밀레나의 [Where to Begin]은 사랑의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담아낸 한 폭의 그림 같은 앨범이다. Laufey가 떠오르는 알앤비와 재즈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프로듀싱은 사랑의 과정이라는 테마를 포근하게 담아낸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부드럽게 흘러가는 앨범 내내 유지되는 통일성이다. 잘 짜여진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앨범의 흐름은 조밀한 집중력과 치밀한 구성으로 듣는 이의 감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단연코 놓쳐서는 안 될, 풍요로운 2025년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들어봐야 할 수려한 작품.

Editor writersglock



[AP Melodies]

AP 알케미

① MOOD;Cloud (Prod. hyeminsong) ② One and Done (Prod. TII) ③ Allergy (Prod. hyeminsong, Jeffrey White, shinhjang) ④ 러브파워전사 (Prod. hyeminsong) ⑤ 이제 난 사랑을 안 믿어 (Prod. SOQI) ⑥ M.I.A (Prod. Coa White) ⑦ The Way (Prod. tuna.) ⑧ Party on Sunday (Prod. mil house, shinhjang, 그냥노창, symi) ⑨ Rush (Inevitable) (Prod. TII) ⑩ Need You (Prod. hyeminsong, TII) ⑪ 온도 (Prod. hyeminsong) ⑫ 조수석 (Prod. hyeminsong)

DATE 2025.08.01

AP 알케미는 출범 이후 여러 대내외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스윙스의 뛰어난 안목을 증명하듯, 그 속에서도 소속 신예 플레이어들의 행보는 눈부셨다. 특히 2025년 양질의 R&B 앨범들을 배출해 내면서 장르 씬에서 큰 존재감을 내비쳤다. 이들의 새 컴필 [AP Melodies]도 그중 하나이다. 다수의 소속 멤버는 물론, 외부 인력까지 적극 섭외해 참여진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싱어들과 슈가비츠 멤버들의 멜로우한 프로덕션이 컴필레이션의 중추를 맡는다. 지난 컴필레이션 앨범들에서 보여준 의외의 참여진 조합에서 오는 신선한 시너지는 이번에도 유효하다. 트렌디한 팝 뮤직부터 90년대 소울까지 포괄하는 비트들은 편안하고 감미로운 바이브를 이룬다. 곡을 채우는 싱어와 래퍼들 또한 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다채로운 색채와 이를 만드는 세심함. AP 알케미의 최대 강점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다.

Editor loding



[pullup to busan 4 morE hypEr
summEr it's gonna bE a fuckin moviE] 에피

❶ MORE HYPER ❷ 2025기침 (feat. ian kumming) ❸ CAN I SIP 담배 ❹ LET'S FIND A GOOD MANAGER ❺ MAKGEOLLI BANGER ❻ thankie thankie

DATE 2025.08.01

올해초 발매된 에피의 새 앨범 [E]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모았다. 곧이어 발표한 [pullup to busan 4 morE hypEr summEr it's gonna bE a fuckin moviE]은 그의 행보에 정점을 찍으며 스스로 명실상부 새로운 세대의 대표 주자임을 공고히 했다. 올해 씬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가사인 '20세기 출생들은 이제 좀 꺼져 봐'라거나, 2hollis의 내한공연 오프너로 나타난 것이나, 그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기기에는 충분했다. 지금 이 세대를 '도파민 세대'라고 명명하자면 에피의 이름은 그 첫 장 첫 줄에 올라오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pullup to busan 4 morE hypEr summEr it's gonna bE a fuckin moviE]는 이 도파민 세대를 대표하는 앨범 가운데 최정상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Editor writersglock



[stereo] 주혜린

❶ Digital ❷ Busy Boy ❸ 아무것도 ❹ 놀러 와 ❺ 무슨 생각해? ❻ Green Tea

DATE 2025.08.14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떤 장르와 프로듀싱을 가져와도 모두 그에 맞게 소화해 내는, 비유하자면 하얗고 맑은 도화지와 같은 목소리 말이다. 주혜린의 목소리가 그러하다. 분명 들으면 바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특색 있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장르와도 섞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stereo] 또한 여러 장르가 섞여 있지만 주혜린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이를 요리해 낸다. 가벼운 리듬으로 한데 묶인 노래들은 듣는 이의 귀를 산뜻하게 자극한다. 첫 곡 "Digital"부터 마지막 곡 "Green Tea"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구성은 도저히 한 번만 들을 수 없게 만든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곡 "Green Tea"를 앨범의 백미로 꼽고 싶다. 아마 올해 나온 음반 가운데 가장 자주 들은 음반이 아닐까.

Editor writersglock



[KOREAN AMERI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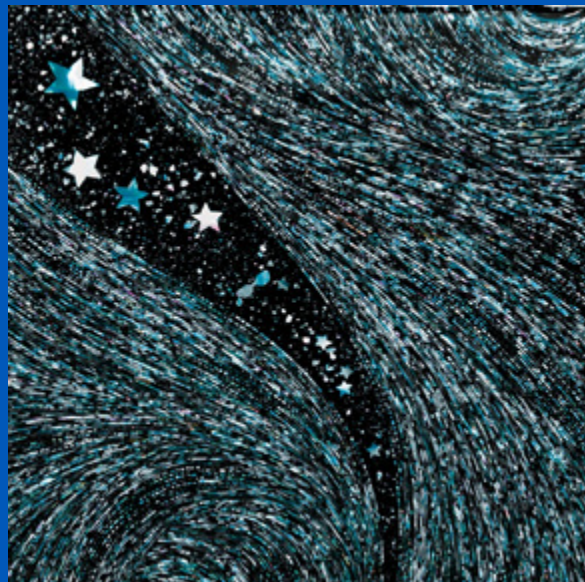
김제이

① hello everybody :) ② DRAGON BURP ③ 1-800-FUCKOFF ④ KOREA ⑤ SUM CHIC SHIT ⑥ R U READY GASHINAYA VIP ⑦ MY UNNIES ⑧ I WANT SOMETHING MORE ⑨ just a little more... ⑩ #chinesekorean ⑪ KRAZY with a K cuz like...#KOREAN ⑫ byebye everybody:({

DATE 2025.08.15

규정할 수 없는 음악이 범람한다. “인기 있는 음악 만듭니다.” 에피의 자기소개는 신세대 슈퍼스타가 아닌 갈팡질팡하는 개척자의 마음가짐이다. 시작은 알게 모르게 다가온다고, 어느새 남발하는 ‘하이퍼하다’라는 어수룩한 표현을 완성하는 건 몇 줄의 텍스트가 아닌 포효와 으름장이지 않을까. 무언가가 튀어나오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의 연속이다. MY UNNIES와 Surf Gang의 메커니즘이다. 브로스텝 기반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음악인데? 김제이가 대답한다. [KOREAN AMERICAN]. 제목이 곧 정체성이다. 음악도 창작가처럼 국적이 뒤엉켜있지만, 종주국을 가리지 않는 흡수와 배합은 모호한 주제에서 한국적인 예술이란 키워드를 슬금슬금 끌어당긴다. 블랙뮤직 팬들이 느끼는 정서적 동질감도 그런 무자비한 자유로움에서 온다. 주제의식으로 무언가를 저질러보고, 이끌리는 뼈대와 구체적인 살이 붙으면 완성이다. 그들도 그들의 음악을 이해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뿐. 그러니 아무리 소망해도 불은 붙지 않는다. 이젠 더 멀리 번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Editor 에리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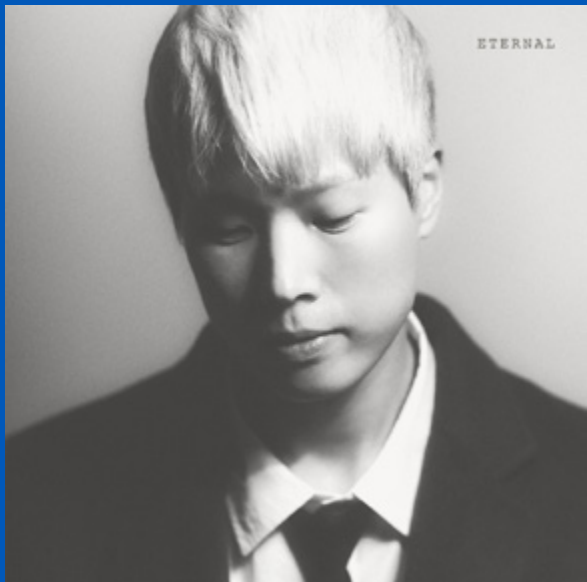
머쉬베놈

① 돌림판 (feat. 신박람 이박사) ② 물러유 ③ 오렛동안 (feat. 거북이) ④ 오토매틱 (feat. 코요테) ⑤ 멍멍멍멍 ⑥ 날다람쥐 ⑦ 빠에 ⑧ 오늘날 ⑨ 모나리자 ⑩ 얼

DATE 2025.08.21

충청도 방언의 억양을 적극 활용한 플로우와 이를 뒷받침해 주는 토속적 개성. 머쉬베놈의 모습은 한국 힙합 극초창기에 여러 래퍼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한국적인 랩’의 가장 이상처럼 다가왔다. 기나긴 작업 기간과 험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두둥등장’한 첫 앨범 [얼]은 음악적 실험과 함께 풀어내는 ‘흥’과 ‘한’이다. 뽕짝의 “돌림판”으로 시작하는 초반부는 뽕끼 넘치는 사운드와 2000년대 가요의 재해석을 통해 토속미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후 후반부에는 라틴 음악, 레이지처럼 그와 연관 없을 것 같은 서브 장르들을 적극 차용해 사운드의 폭을 넓혀간다. 머쉬베놈의 퍼포먼스도 능수능란하게 변화하며 곡의 강한 색채와 맞물려 청각적 쾌감을 풍성하게 만든다. 반면 일관되게 과거의 향수와 험난한 현대사를 담은 가사는 과거지향적 방향성을 구축하는 또 다른 축이 된다. ‘한국적인 힙합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2025년, [얼]은 그중에서도 한국 고유의 정서를 극대화한 작품이 되었다.

Editor loding



[Eternal]

지넥스

① This is love (Feat. 라디 (Ra. D)) ② Lemonade (Feat. g0nny (거니)) ③ Love (Feat. Horim (호림)) ④ Too late (Feat. Blessing) ⑤ Bye Bye Bye (Feat. 노디시카 (Nody Cika)) ⑥ Anxious (Feat. The Deep) ⑦ Light (Feat. Summer Soul) ⑧ Eternal (Feat. 별키) ⑨ Melody (Feat. RuRu (루루)) ⑩ 그 모습 그대로 (Feat. 이기찬) ⑪ Love again (Feat. Shammah) ⑫ Eternal (Original Demo) (with. umzi)

DATE 2025.08.26

R&B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장르다. 재즈와 함께하던 여명기의 리듬 앤 블루스, 미디어음악 환경에 적응한 컨템포러리 R&B, 힙합, 전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고 변형되며 여전히 다양한 장르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겨왔으니까. 사랑이라는 인류 공통의 주제를 노래하는 R&B는 한국에서도 발라드, 록/메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며 수많은 리스너에게 사랑받는 곡을 배출한 바 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R&B/Soul, 특히 R&B는 대중음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사랑을 노래할 장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넥스의 [Eternal]은 과거부터 사랑을 노래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을 노래할 R&B에 대한 헌사이자 수장고로 보인다. 한국의 신세대와 구세대를 한 앨범에 엮어 1990~2010년대의 사운드를 2020년대 식으로 세련되게 다듬어 전시했으니까. 오늘은 지넥스의 [Eternal]을 들으며 R&B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Editor WestCastle



[her.]

최엘비

① 니여자 ② YSL ③ 김오브인프피 ④ 전셋집 ⑤ 징징 ⑥ 찌질의 역사 ⑦ I'M FINE! (feat. C JAMM, 최성) ⑧ her. Intro (narr. 우정영) ⑨ her. (feat. UNE) ⑩ 어... 어.. 어. ⑪ 위하여 ⑫ 포르르... (feat. 미현, 핑키뉴, 버벌진트, 웨스턴 카잇) ⑬ 헨즈앞 / 망가 ⑭ 물 (feat. jerd) ⑮ 아마겟돈

DATE 2025.09.09

스타라는 존재는 상상하기를, '일반인과 다른 누군가'로 하게 된다. 최엘비에게서는 그런 클리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신기했다. 청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압도적인 인기를 컨트롤하는 쿨함도 없지만 [독립음악]의 그는 '스타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음'을 공표했고, 큰 성공을 거뒀다. 그를 잇는 [her.]은 그런 최엘비가 과연 변했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했다. 첫 트랙부터 그 질문은 기우였음을 느꼈다. 앨범은 '그녀들'이라는 거울에 비춰본 최엘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인간은 연기하며 살아간다는 이론에 빗대보자면, 최엘비는 그것을 못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그런 모습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두고 찌질하다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를 좋아하는 이가 많은 이유는, 찌질함이라는 단어가, 귀여움이라는 단어의 사회적 페르소나이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최엘비 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쉽게 말해서, 최엘비는 자존심 부리는 찌질함이 아니라서 귀엽다. 래퍼라고 반드시 멋있을 필요는 없다. 순수함이 오히려 큰 무기가 될 때도 있다.

Editor nicolas



[MATT MA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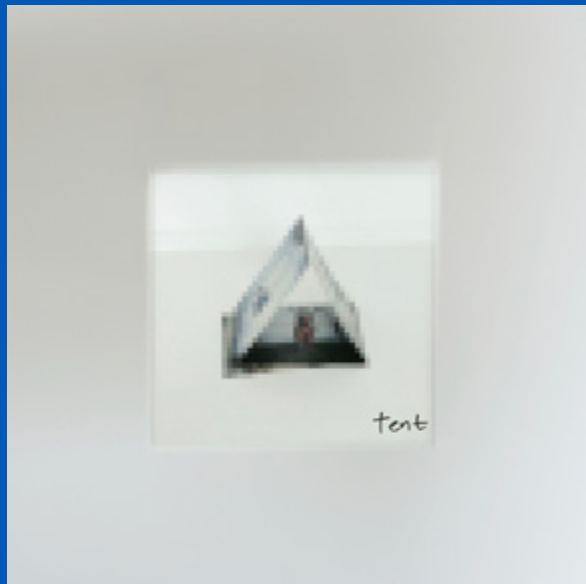
맷 맷

① ONE! TWO! ② MEMORY ③ MYSELF ④ HEY HEY ⑤ ECHOES ⑥ That's enough ⑦ Slide ⑧ FOOLS ⑨ fault ⑩ TELL ME ⑪ SUICIDE

DATE.2025.09.24

어떤 아티스트의 시작을 지켜보는 일은 늘 즐거운 법이다. 발견한 뮤지션이 좋은 음악을 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아직 발자국이 덜 찍힌 설원의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지, 친구들을 불러서 눈싸움을 할지 고민하는 어린아이의 마음가짐을 다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맷 맷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이 정확히 그러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듬뿍 담아 사람들 앞에 자랑스레 내놓은 맷 맷의 [MATT MATT]은 R&B를 기반으로 여유로운 그루브와 뮤지션의 에너지를 일체감 있게 뒤섞었다. 더불어 따뜻한 소리와 시원스러운 진행이 빚어내는 총돌에서 비롯된 청각적 경험은 짜릿함마저 선사한다. 맷 맷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 다같이 지켜보도록 하자.

Editor WestCastle



[TENT]

원슈타인

① I Don't Speak English ② 더블팩트체크 ③ You Look So Good ④ 중고인간 (Feat. Jclef) ⑤ 하회라&최수중 ⑥ Vision ⑦ FLEX ⑧ 알잘딱깔센 (Feat. Zion.T) ⑨ 달팽이2 ⑩ 잊기전에 메모...! (Original Pitch) ⑪ DENIM with Valo ⑫ Valentine (Feat. 민지운) ⑬ 사랑새 ⑭ 파자마 ⑮ 꿈 (Feat. 윤석철)

DATE 2025.09.25

텐트는 언제나 경계의 공간이다. 집이라고 부르기에 허술하고, 떠돌이의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연을 품는다. 얇은 천 하나 걸어둔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붙은 조각들을 천천히 펼쳐 보이며, [TENT]는 바로 그 모호함을 정면에서 안아 올린다. “중고인간”의 서늘한 상처, “꿈”의 간신히 말끝에 걸친 후회. “알잘딱깔센”과 “Valentine”이 남긴 따뜻한 체온이 서로 엇갈리며 흔들리다가도, 기어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쉰다. 감정의 결을 따르는 식의 흐름과 얼터너티브와 알앤비, 팝과 재즈가 어느 지점에서 스치며 섞이는 구성은 마치 더욱 선명한 장면을 만드는 드문드문 빈 필름과도 같다. 바로 그 중심, 텐트의 기둥처럼 서 있는 건 원슈타인의 목소리다. 힘을 주지 않아 더 멀리 스며드는 얇은 떨림, 꾸밈없는 멜로디 라인은 텐트 바깥의 소음을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안쪽의 체온으로 뒤섞는다. 불완전함을 덮지 않는 편곡 역시 이 공간의 숨결을 만든다. 구조적으로 완벽한 집을 지으려는 야심 대신 삶이 흔들리던 순간들을 천막의 바느질처럼 이어 붙인 기록. 이 작은 임시 거처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만 있는 빛과 온기가 있다.

Editor 공ZA



[eigensinn]

시온

① eigensinn ② celeste ③ holdon ④ avoid2 ⑤ homes ⑥ borocca ⑦ remix1

DATE 2025.09.26

내일을 잃는 오늘엔 어제만이 쌓여간다. 시온은 막연하게 상자에 담긴 흔적들을 쫓는다. 2010년을 겨냥하며 변화한 전자적 스타일은, [eigensinn]이라 쓰고 자의식이라 이름 붙인다. 과포화된 세상을 장르적 혼류와 세대 시류로 빚대는 무질서로 표현한다. 시끌시끌한 세상의 소리가 잘고 풍부하게 불어난다. 그도 “Braindead”라는 초연함을 이끌었으나 한동안 짧은 순간만에 엮매였기에, 목소리와 악기는 마음이 이끄는 예술 어디라도 정처 없이 떠나갈 내면의 파편처럼 분산적이다. 이 도약을 음악의 장치와 구조의 총괄로 비로소 실현해 낸다. 꿈은 어릴 적 바라온 미래이자 크고 난 뒤 돌아가는 집이다. [eigensinn]도 두 꿈을 오간다. 음악은 오늘에 있지만 추억은 어제 두고 왔다. 누군가도 두 꿈을 꾸기에, 시온은 어디선가 시작된 변신에 박수를 보내며 제 뒤통의 일기를 남긴다. 누구라도 떠나보낸 그 시기를 암전히 저물도록 놓치지 않기 위해 남긴다. 온전히 흩어지는 기억을 위해.

Editor ऐ리



[개미의 왕]

윤다혜

① little drummer bot ② 신 시티 ③ 개미의 왕 ④ 그녀는 손가락 금붕어 ⑤ 그녀의 손가락 금붕어 ⑥ Funeral Freestyle ⑦ 귀 있는 자 ⑧ White tee ⑨ Cabriolet (reprise) ⑩ 카스테라

DATE 2025.09.26

우리의 눈에 비치는 개미는 너무도 작고 연약하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끈질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는 존재다. 그러니 [개미의 왕]은 보잘 것 없어보여도, 작음으로 인해 끝까지 버텼고, 살아남았기에 왕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왕’은 다른 누군가를 통치하거나 억압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타인을 쉬이 믿지 못하는,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 윤다혜는 이 서사를 [개미의 왕]이라는 타이틀에 담아낸다. 고후와 헤민송이 중심이 되어 구축된 프로덕션은 기존 알앤비의 익숙한 진행을 뒤엎어버리며 은은하지만 긴장감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이 위에서 울려퍼지는 윤다혜의 보컬은 자신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짚어낸다. AP 알케미에서 유독 뛰어난 알앤비 앨범들이 발매된 한 해였는데, 이중에서도 [개미의 왕]은 가장 놀라우면서도 기분 좋은 한 방이 아니었을까.

Editor 자이즈



[POVIDONE ORANGE]

에이트레인

❶ 불기둥 (feat. Rani Bober) ❷ LOVE IS THE ANSWER (feat. 산설화) ❸ POVIDONE (feat. 단편선) ❹ 짤 (feat. 담예) ❺ DISTOPIA ❻ BROKEN HILL ❼ UTOPIA ❽ 돈이 안 돼도 해 (feat. Ben T Kadar) ❾ 딸꾹질 ❿ SELL FISH ⓫ 낚은 사랑과 집에 두고 나온 낚은 개 ⓬ 나도

DATE 2025.09.27

초록빛 고통은 분홍빛 속살을 드러내게 했고, 이윽고 오렌지색 포비돈 용액을 바르며 치유를 희망한다. 에이트레인이 수년 동안 이어왔던 자기 서사의 마지막 장에 당도했다. [POVIDONE ORANGE]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순간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겪어온 자신의 생각과 회복의 이야기를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빚대어 전개해 나간다. 하지만 치료의 과정에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듯, 이 또한 마냥 쉽지는 않다. 그는 뮤지션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고통과 삶에 대한 고민을 그대로 전시함으로써 ‘다 잘될거야~’ 식의 일반적 낙관론에 기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안에는 그가 삶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끔 만든, 모두와 함께 나아간 여정이 자리하고 있다. 국경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뮤지션들과의 협업,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나가며 느꼈던 감정적 위안들은 여전히 고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는 에이트레인의 생각을 다시금 공고히 한다. 치유 이후 새로이 나아가게 될 그의 다음 여정이 궁금하다.

Editor 자이즈



[LUXURY TAPE]

나우아임영

❶ LUXURY BASS ❷ YOU READY? ❸ LUCKY OH MY LIFE ❹ AIN'T FREE ❺ PUT SOME SWAG ON (ft. 김하은 (HAON)) ❻ (NY INTERLUDE) ❼ Idontwannaparty ❽ EXCLUSIVE ❾ CALL GIRL ❿ 편.해.졌.음.해.서 ⓫ FRIENDS

DATE 2025.10.02

식케이는 오랜 커리어 동안 ‘트렌드’와 ‘멋’을 추구해 왔고, 이를 레이블 KC의 정체성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를 생각하면, 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APGU]로 자신의 멋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나우아임영이 KC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였을지도 모르겠다. [LUXURY TAPE]는 KC의 일원이 된 그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알리는 작품이다. 한때 압구정을 이상향으로 바라보던 그는 이제 중심에 올라서 더욱 럭셔리해진 삶을 드러낸다. 여전히 세련된 싱잉-랩과 함께 풀어내는 화려한 스웨깅은 단기간 사이 바뀐 그의 환경을 확인하게 한다. 전작의 기초를 이어 하이퍼팝과 EDM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수도의 프로듀싱은 댄서블한 리듬과 함께 작품의 주 무대인 클럽의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지금이기에 가능한 빛나는 청춘 예찬이 담긴 [LUXURY TAPE]. 이를 통해 나우아임영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자신은 마침내 꿈을 이루었고, 이제는 차세대 트렌드세터가 될 것이라고.

Editor loding



[toast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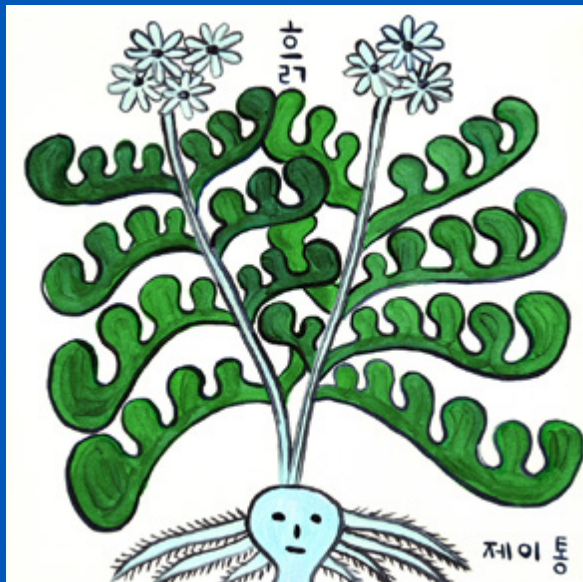
플랫샵

① CANDYLAND ② 빠큐버튼 ③ 추적1분 ④ 비밀기지 (Safelock) ⑤ 내게로 와 (THE COMEONSONG) ⑥ Wake Up Call ⑦ FANTASY ⑧ 별풍선 ⑨ OPTIMIST PRIME ⑩ Buckshot ⑪ GUYDANCE ⑫ BOYTHINGS ⑬ 돈마미 / nothing really happened

DATE 2025.10.02

각자가 이미 빛나는 보석이었던건만, 이들이 한데 모이니 예측하지 못했던 화학작용이 일어났다. 비양, 쿤디판다, 담예, 누기로 구성된 밴드 플랫샵은 서로가 지닌 유니크한 음악성과 개성을 하나로 뒤섞어내며 이전에 볼 수 없던 맛을 구현해 냈다. 첫 정규앨범 [toast recipe]가 그 결과물이다. 힙합도 아니고, 록도 아닌, 얼터너티브의 바다 어딘가에서 길어 올린 사운드는 네 명 각자의 이야기가 한 지점에서 교차했을 때 만들어진 독특한 감흥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감정들을 참신한 발상과 표현을 통해 맛깔나게 버무려,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탈바꿈한다. 하나의 역할에 경도되지 않는 멤버들의 자유로운 퍼포먼스 또한 이러한 흐름에 함께한다. 가벼운 농담과 비유 속에서 건네는 메시지는 진중하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듯하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저 즐기면 된다. 이들의 음악과 함께하며 건배 잔을 부딪쳐보자.

Editor 자이즈



[흙]

제이통

① 갯신 ② Woof (Feat. Northfacegawd, lobonabeat!) ③ LaLaLa (Feat. Jibin) ④ 통 ⑤ Goat ⑥ 도레미 (Feat. Wonstein) ⑦ Young Climber (YC) ⑧ ZaZa ⑨ 자연재해 ⑩ Woof Remix (Feat. Nosun, Mckdaddy, Raf sandou, Zenethezilla, Street Baby, Owen)

DATE 2025.10.03

흙은 묻히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돌아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제이통의 [흙]은 그 양면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쉰다. “갯신”, “Woof”, “통”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흙먼지 속에서 고함을 치는 장판파의 장비와도 같고, “도레미”에서는 스스로를 밀어내고 끌어들이는 감정의 압력이 커져서 쌓여 단단한 흙층처럼 굳는다. “자연재해”에서 열리는 단단할 것만 같던 흙의 균열은 어떠한가. 통 기타에 실린 맨목소리가 젖은 흙처럼 울렁이며 금을 만들고, 흔들리는 마음이 제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장면이 그대로 지나간다. 마지막 “Woof Remix”에서 여러 목소리가 흔적을 남기며 먼지가 일고, 앨범은 그 흐릿한 공기를 남긴 채 끝난다. [흙]은 폭력성, 현실성, 투박한 사운드를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며 제이통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계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흙이야말로 그가 다시 서기 위해 택한 출발점이다.

Editor 공ZA



[FREE THE MANE 3 “FREE THE MANE VS B-FREE”]

비프리

① FTM3 Intro ② FREE THE MANE VS B-FREE ③ 네르갈 ④ 욕심쟁이 (feat. FREE THE BEAST and the GOD SUN SYMPHONY) ⑤ 콩나물국밥 (feat. ROB MIZORY) ⑥ 궁정최면술 ⑦ 내 머릿속의 파티 ⑧ 보왕사메론 (feat. JEREMY QUEST) ⑨ 개천절 (feat. DJ BIGTER, THE FLOWER OF LIFE TRIO) ⑩ 할아버지 ⑪ Haribo ⑫ 인터넛은 너의 친구가 아니야 / 폭설 (feat. THE FLOWER OF LIFE TRIO, FREE THE BEAST and the GOD SUN SYMPHONY)

DATE.2025.10.03

비프리의 창작욕은 좀처럼 식을 생각이 없는 듯하다. [FREE THE MANE 3]가 이를 증명한다. FREE THE MANE 시리즈 중 가장 정돈된 형태의 이 앨범은 그만큼 농축된 맛을 자랑한다. 수메르 점토판을 모티브로 한 커버처럼 앨범은 어딘가 푸석하고 건조한 프로듀싱을 견지한다. 그런데 그 건조함에서 오는 미학이 상당하다. “네르갈”, “콩나물국밥”, “보왕사메론”은 이 맛의 진수를 보여준다. 또한 Free The Mane와 비프리의 대결을 설정한만큼 자기성찰적 태도도 물씬 흘러나온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이슈로 그를 잠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씬에 그가 남기고 있는 발자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도 또 깊어져가는 중이다.

Editor writersglock

Jbfm

[Jbfm]

진보 더 수퍼프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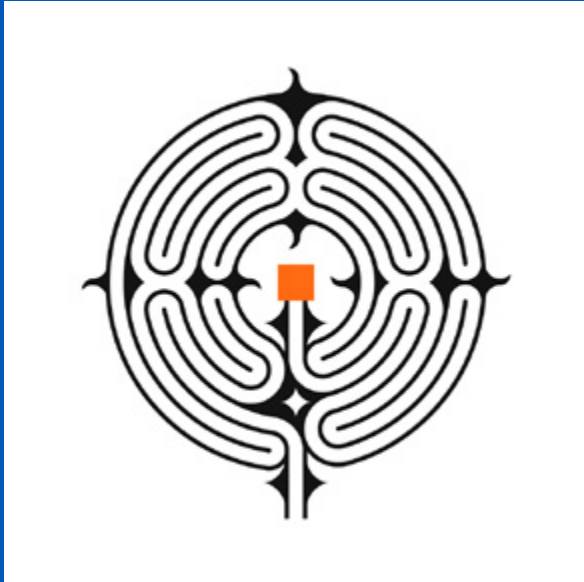
① Jbfm #1 ② 느낌이 와 ③ Jbfm #2 ④ All Kinds ⑤ Jbfm #3 ⑥ Love Like Purple ⑦ Gold Skin ⑧ Jbfm #4 ⑨ Times Of Our Lives (Feat. The Quiett) ⑩ Jbfm #5 ⑪ 종살이 (Feat. JUSTHIS) ⑫ 눈을 떠 ⑬ Jbfm #6 ⑭ Light ⑮ Jbfm #7 ⑯ Blueberry Eyes ⑰ Jbfm #8 ⑱ Milk ⑲ Jbfm #9 ⑳ 고독한 남자 (Feat. Bizzy) ㉑ Jbfm #10 ㉒ Ease Your Mind (Feat. Dopein)

DATE 2025.10.17

아티스트의 아티스트, 진보 더 수퍼프릭이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했다. 이 정도 기념비적인 순간이면 화려하게 축포를 터뜨려도 좋으련만, [Jbfm]은 의외로 소박한 자축의 장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지난 20년 동안 진보라는 아티스트가 남긴 모든 궤적이 단단히 응축되어 있다.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스킷과 곡을 오가며 전개되는 앨범의 구성은, 음악가 진보의 시작부터 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 나아가 앨범을 듣는 이들에게 전하고픈 사회적 메시지까지 고루 담아냈다. 시대를 구분 짓지 않는 자유로운 프로덕션, 플랫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닌 그의 보컬이 발칙한 상상과 어우러져 진보를 위한,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FM 방송국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앨범, [Jbfm]이 되었다.

참고로 [Jbfm] 바이닐에는 우리 HAUS OF MATTERS가 제작한 스페셜 매거진도 동봉되어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레코드샵으로 달려가자!

Editor 자이즈



[LIT]

저스디스

① LIT ② 내가 뭐라고 (feat. 범키) ③ 내놔 ④ Lost ⑤ Don't Cross ⑥ Curse ⑦ Interrude ⑧ 유년 ⑨ VIVID (feat. 인순이) ⑩ Dusty Mauve Intermission ⑪ 돌고 돌고 돌고 (feat. 라디 (Ra. D)) ⑫ THISpatch ⑬ Wrap It Up ⑭ Can't Quit This Shit (feat. 일라넷 (ILLINIT)) ⑮ THISISJUSTHIS Pt. III ⑯ 친구 (feat. DEAN) ⑰ 내 얘기 ⑱ XXX ⑲ Lost Love (feat. DUT2 (듀티), Street Baby, GongGongGoo009) ⑳ HOME HOME

DATE 2025.11.20

콜럼버스는 발견자 아닌 침략자였지만, 역사에 없던 새 갈래를 창조했다. 그 현대 창세기에 살생의 옳고 그름은 논쟁거리지만, 만약은 무의미해지고 주어진 실체만이 삶으로 지속된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LIT]은 추구하지 않는다. 암전히 보여준다. 미로의 중심에서 탑에 올라 내려다본 발 아래의 광경. 집에 잠기던 회상과 같은 맥락에서 말을 아끼고 물밀의 해일을 끌어올린다. 저스디스는 정론 없는 파도를 떠올렸다. 추측뿐인 작품에 모두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한마디씩 거드는 감상은 꼬끼리 만지는 장님들의 실랑이가 됐다. 몇 가지만이 또렷했다. 굵은 예술을 숭상하던 사람은 집에 잠긴 회상에서 멀리 떠나갔다는 사실. 그러나 여전히 목말라 있다는 사실. 기억을 짚으면 전시회엔 늘 작가가 없었다. 큐레이터와 도슨트는 세 발짝 떨어져서 입장을 견어내고 운을 떼다. 작품은 키 높이에 걸리고 발에 채지 않는다. 모두 그 저 손끝으로 밀실의 벽을 훑는다.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을 돌고 돈다.

Editor 에리



[KC3]

식케이, 김하은, 제이민, 나우아임영, 방달

① KUNICHI'S CALL ② KOCAINE CASTLE ③ KANDY CRUSH ④ KURT COBAIN ⑤ KYODAI CHINGU ⑥ KUBAN CHAIN ⑦ KAY COOL ⑧ KARMA COLLECTOR ⑨ KOLOK COLOK ⑩ KOREAN CERTIFIED

DATE 2025.11.27

KC의 멤버는 다섯으로 불어났고, 그룹이라 칭할 만한 덩치로 성장했다. 비로소 [KC3]에 이르러, 그들을 진정 무브먼트로 들여다 볼 이유에 도착했다. 연호하는 가사. 역두문자 트랙리스트. B&W 비주얼라이저와 프로필 컷. 손으로 못 세는 KC가 담겨있다. 하지만 갈라지는 중이다. 장르와 랩 스타일 그리고 프로덕션이 곳곳에 흩어진다. 누군 매일같이 리릭시즘 감지에 목말라있고, 누군 사이드킥과 주연의 경계에서 허우적거리고, 누군 EDM을 둘러매고 흥대 아닌 'APGU'에 되돌아가기에, [KC3]은 나란하기보다 서로 등을 맞대고 선 모습에 가깝다. 그 뻘뻘함이 KC의 움직임을 설득한다. 심히 별나지도 독특하지도 않지만, 비정상적인 랩에 질린 랩스타들이 너저분하고 진득한 블록버스터를 선보인다. 타협 없이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받는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빛깔로 제련하고서 때때로 결연히 갈라진다. 이젠 갈래를 뺄다는 표현이 더 옳다. 고집부리지 않는 식케이의 유연한 고집 아래, 레이블이 저무는 시대에 '하나되지 않음'이 외친다. "Give me that KC".

Editor 에리

2025 YEAR IN

YEP

EDITOR'S PICK



[Moth (EP)]

아귀, 수요

① Hand me a towel ② Lano ③ Train lane ④ Luina ⑤ Out of frame ⑥ Between walls

DATE 2025.01.27

'그로테스크'는 일상생활에서 징그럽거나 혐오스러운 무언가의 속성을 지칭하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은 어휘로 활용되곤 한다. 그러나 그로테스크는 본래 중립적인 단어다. 15세기에 로마 유적지에서 사람의 상반신에 물고기의 하반신을 한 문양 따위에서 기원한 단어인데 부자연스러움, 기괴함, 부딪히는 성질을 지닌 것이 하나가 되어 뭉친 것 등을 의미한다. 픽사의 <토이스토리>가 그렇고, 아귀와 수요의 [Moth]가 그러하다. 수요의 몽환적이고 가냘픈 음색과 아귀가 빚은 남미 음악의 격렬한 그루브가 아름답게 충돌하며 일으킨 스파크가 불꽃을 일으켜 아지랑이를 보이는 [Moth]는 목표를 향해 불나방처럼 목숨을 태워 날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 2025년 한 해 많은 아티스트가 남미음악을 선보였으나, 아귀와 수요는 그 중에서도 남미 음악을 가장 '그로테스크'하게 해석한 아티스트인 동시에 괄목할 만한 작품을 내놓은 아티스트라고 하겠다.

Editor WestCastle



[L7E3]

디젤

① coEn ② L7 ③ 어쩔건데 ④ L(uck)E 정신 ⑤ Bz (feat. 주석) ⑥ 또띠아 (feat. Ambid Jack) ⑦ hoLLow ⑧ Dragon quEst (Skit) ⑨ E3 (feat. Qwala & Minos) ⑩ 왜유 ⑪ 쉬는 시간 ⑫ aLLergE ⑬ byE3

DATE 2025.02.03

이 세상은 노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운만 따라줘서는 기껏 찾아온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밸런스다. 디젤의 [L7E3]은 '운칠기삼'으로부터 영향받은 타이틀처럼 운 또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거머쥔 수 있음을 역설하며, 자신만의 저돌적인 애티튜드를 가감 없이 담아낸다. 이 안에는 그만의 음악적 취향이 듬뿍 담겨있다. 직접 주조한 심플한 프로덕션 위 골때리는 비유를 동반하는 작사법은 디젤이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유니크함이 살아있다. 결국 [L7E3]은 디젤이라는 뮤지션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앨범 단위로 증명한 작품이 되었다. 운이 찾아온다면 잡아채고, 오지 않아도 문을 때려 부수고 운을 집어 오는 사람. 이러한 저돌맹진 정신이 있어야 운과 실력 모두를 휘어잡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디젤 특유의 타격감과 유머러스함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Editor 자이즈



[한찬가게]

한,찬

① 그게다야 ② 네 옆에 있을 때 (feat. 보라미유) ③ Your names (feat. Gabriel) ④ Rainbow ⑤ Go Play (feat. 미노이 (meenoi)) ⑥ Toxic (feat. Jword) ⑦ 센척 (feat. 재멜 (Yel)) ⑧ Mayb3 (feat. 던말릭 (DON MALIK)) ⑨ No lie ⑩ all I need is u ⑪ 한뼘 차이 ⑫ Time to say goodbye ⑬ I can't call u (Live ver) (CD only)

DATE 2025.05.26

'백화점식 구성'이라고 불리는, 특정 컨셉이나 유기성보다는 각 트랙의 개성에 중점을 둔 앨범이 있다. 그렇다면 좋은 백화점식 구성 앨범이란 무엇일까? 아마 퀄리티는 물론, 아티스트의 개성과 강점이 강하게 담겨있어야 할테다. 그런 면에서 프로듀서 한과 보컬리스트 찬의 합작 [한찬가게]는 이러한 앨범의 좋은 예시와도 같은 작품이다. 트랙들은 이들이 주로 하는 '대중적이고 듣기 좋은 R&B'라는 큰 폭으로 묶일 뿐, 구성하는 요소들은 제각기 다르다. 한의 프로듀싱은 여러 사운드와 서브 장르들의 융합을 통해 세련미를 자랑한다. 찬의 보컬 역시 감미로운 미성을 통해 단숨에 듣는 이들을 사로잡고 힐링시킨다. 각자의 재능이 십분 발휘한 덕에, 여러번 합을 맞춰 본 이들의 시너지는 그 어느때보다 밝게 빛난다. 취향에 맞는 트랙들을 골라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도, 손수 짜놓은 트랙리스트 그대로 들어도 이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단 점 역시 [한찬가게]가 가진 노련함일테다.

Editor Ioding



[LUCHADOR]

라쿠네라마

① Cool Perc ② YARR ③ HUH ④ InteRLude ⑤ B ⑥ Dubby (feat. LEE ILLGU)

DATE 2025.08.13

제니나 페노메코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뮤지션부터 소울딜리버리처럼 마니아들의 지지를 받는 뮤지션까지. 올해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남미 음악, 그 중에서도 삼바를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필자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장르를 막론하고 파티에서 DJ들이 셋리스트에 삼바 트랙을 섞어 플레이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었다. 그러니 삼바가 2025년의 트렌드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꽤 재미있는 소재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쿠네라마의 [LUCHADOR]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업물이었다. 삼바가 주는 정열적인 무드를 멕시코의 루차리브레와 연결지은 비주얼, 라틴 아메리카 음악이 주는 특유의 맛을 잘 살린 프로덕션, 그리고 덩 레게까지 뻗어나가 남미와 중미를 연결하는 트랙리스트까지. 올해 나왔던 앨범 중 남미 음악에 가장 진심이었던 앨범이 아닐까?

Editor WestCastle



[FANG]

크러쉬

① UP ALL NITE (Feat. SUMIN) ② 2-5-1 ③ FREQUENCY (Feat. Loco) ④ MALI-BU ⑤ MAMMAMIA (Feat. Tabber) ⑥ OVERLAP

DATE 2025.08.28

홍포한 맹수의 이빨은 상대의 목을 물어 제압하는데 수초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송곳니가 스스로에게 향한다면 어떨까? 크러쉬의 새로운 앨범 [FANG]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자신에게 향한 야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오래전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에너지와 감성이 오롯이 담겨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직관적이고 거침없는 힘이 되살아난 듯 하지만, 이 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악적 내공 또한 고스란히 얹혀 있다. 각기 다른 무드와 사운드가 담겨있는 트랙들이 하나로 모여 크러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재현해 낸다. 미니멀한 구성으로 분량은 다소 짧지만, [FANG]이 남긴 인상은 절대 가볍지 않다. 짧은 순간 드러낸 날카로운 이빨은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로 향한 덕분에 오래전 잠들어 있던 크러쉬의 옛 면모가 다시 깨어났다. 그가 지닌 음악적 송곳니는 지금도 충분히 날카로움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Editor 자이즈



[Hannah's Studio]

장한나

① Holy Moly ② Bartender ③ Something Real (feat. BUMKEY) ④ Power (Remastered) ⑤ A Good Thang (feat. g2) (Remastered) ⑥ Choosy ⑦ Ain't That Guy ⑧ KPOPSTAR ⑨ Down (feat. DUT2) (Remastered) ⑩ Cinnamon Kisser (feat. Mac Curly) ⑪ Keep It Going (feat. Yoseph) ⑫ Man Like You (feat. Los) (Remastered) ⑬ Sticky Clap ⑭ Burning Slow ⑮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Remastered) ⑯ Sugar Honey Iced Tea (Remastered) ⑰ Never Change

DATE 2025.11.20

장한나의 첫 정규 앨범 [Hannah's Studio]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올해를 정리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앨범이 될 것이다. 그의 긴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첫 정규 앨범’이라는 타이틀은 다소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다. 그러나 앨범을 들으면서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17트랙이라는 방대한 분량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을 의미한다. 그 시간이 이제야 이 앨범을 만나며, 그간 응축해 왔던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한나의 무르익은 보컬은 앨범을 훌륭히 이끌고 나간다. “Bartender”와 “Power”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나, “Sugar Honey Iced Tea”와 “Cinnamon Kisser”의 애타는 간드러짐, “A Good Thang”의 자신만만함은 그의 역량을 확실히 드러내는 곡들이다. 무엇보다 이 앨범에서는 그와 옆에서 그를 도운 모두의 애정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드디어 주인을 찾아간 앨범, 장한나의 [Hannah's Studio]는 올해 막바지를 아주 멋지게 장식한 그의 새로운 출발이다.

Editor writersglock

CREDIT

NEW RELEASE

[Bad Songs] 아이엠버니, 비저너스메인
loding
[thai,s] 샤이코
writersglock
[NO] 험노시스 테라피, 알렉스 윌콕스
loding
[YAHOREDD] EK
자이즈
[Rich or Die II] 로얄 44
공ZA
[SAVIOR] 도화
writersglock
[퇴마왕] 김오카
자이즈
[MEWSIC] 원티울
공ZA
[마보지퍼] 막문치
Alonso2000

NR+INTERVIEW

[WAH] 해민송, 허다니엘, 랜코
review writersglock
interview 자이즈, writersglock
[Talk Less, Do More 1.0] 제이컨
review loding
interview 자이즈, loding
[Secret] 카모
review 자이즈
interview 자이즈, writersglock
[#FREEO2] 정연서
review 자이즈
interview 자이즈, loding

FULL REVIEW

[4SHOBOIZ MIXTAPE] 룬샷
산소
[Hm()mm] 온더달
writersglock
[Plantis Mantis] 전돗개, 로우저
writersglock
[LIT] 저스디스
Alonso2000

CLASSIC REVIEW

[THIS & THAT] 나플라
nicolas
[졸업] 윤타
Alonso2000

FEATURE

야 됐어, 우리끼리 할게 험함
writersglock
원의 탄생을 지켜보고 싶다면,
이 레이블에 주목해야 한다.
WestCastle

2025 YEAR IN REVIEW

[APGU] 나우아임영, 수도
[APGU essential] 나우아임영
loding

[K-FLIP] & [K-FLIP+] 식케이, 릴 모쉬멧
writersglock
[NEW WAVE] 소울 딜리버리
WestCastle
[NONG] 신지향
loding
[(concept)] 오딘
예리
[ANIMAL FKRY] 바이스멜사
예리
[산업현장] 일라이브 펑크
loding
[WUUSLIME] 우슬라임
예리
[EVE: ROMANCE] 비비
Alonso2000
[SS-POP] 시스템 서울
nicolas
[Human Tree] 지투, UGP
Alonso2000
[TIKTOKSTA] 물리 얍
writersglock
[살아숨서 4] 엄파
loding
[사랑은 노래와도 같이 : Love is a Song]
던말락, 드비타
Alonso2000
[MOLLAK] 제키와이, 망달
WestCastle
[YAHOREDD] EK
자이즈
[SCRAPS] 로코
자이즈
[LIFE LOVER] 뱃사공
writersglock
[Where to Begin] 밀레나
writersglock
[AP Melodies] 에이퍼 알케미
loding
[pullup to busan 4 morE hypEr summEr it's gonna bE a fuckin moviE]
에퍼
writersglock
[sterco] 주헤린
writersglock
[KOREAN AMERICAN] 김제이
예리
[열] 머쉬매뉴
loding
[Eternal] 지넥스
WestCastle
[her.] 최엘비
nicolas
[MATT MATT] 땃 땃
WestCastle
[TENT] 원슈타인
공ZA
[eigensinn] 사온
예리
[개미의 왕] 율다해
자이즈
[POVIDONE ORANGE] 에어트레인
자이즈
[LUXURY TAPE] 나우아임영
loding

[toast recipe] 플랫샵
자이즈
[흙] 제이퐁
공ZA
[FREE THE MANE 3 "FREE THE MANE VS B-FREE"] 비프리
writersglock
[lbim] 진보 터 슈퍼프릭
자이즈
[LIT] 저스디스
예리
[KC3]
식케이, 김하은, 제이민, 나우아임영, 망달
예리

2025 YEAR IN EDITOR'S PICK

[Moth] 아키, 수요
WestCastle
[L7E3] 더젤
자이즈
[한잔가게] 한,찬
loding
[LUCHADOR] 라쿠네라마
WestCastle
[FANG] 크러쉬
자이즈
[Hannah's Studio] 장한나
writersglock



글
Team KHL

간수
자이즈

디자인
nhana

팀 KHL은 블랙뮤직을 사랑하는 장르팬들이 모여 결성한 매거진 팀입니다. 음악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앨범 소개, 리뷰, 인터뷰, 칼럼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통해 아티스트와 앨범, 그리고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록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팀원 각자의 개성을 담아 블랙뮤직을 둘러싼 다채로운 풍경을 함께 담아내보려 합니다.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 hausofmatters.com 📷 [hausofmatters](https://www.instagram.com/hausofmatters)

